

금강 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사찰은 세상과 함께 호흡해야죠
그래서 요즘 매일 '팽목항' 갑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며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아라.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4월 3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94호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승납 20년'으로 확대되나

조계종 총무원, 21일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이 비구 · 비구니의 차별 없이 총무원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5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총무원장 선거인단 구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대덕 · 혜덕(승랍 20년 이상) 이상의 스님으로 확대했다. 이는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에서 각각 10명씩 선출하는 교구선거인단 등 총 321명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조계종 스님 가운데 대덕 이상의 비구 스님은 3052명, 혜덕 이상의 비구니 스님은 3117명으로 총 6169명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1만여 명의 조계종 스님 가운데 60% 이상이 총무원장 선거권을 갖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비구 · 비구니 스님 모두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비구니 스님들에게 부여되는 총무원장 선거권은 매우 미비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과 각 교구선거인단에서 선출되는 1~2명이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해 왔다.

4월 16일 열렸던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과 차별없는 완전 직선제를 요구했다. 비구니 대표로 참여한 중앙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준직선제부터 추대제, 선추천 후 선출 방안 모두 비구니 참종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완전 직선제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대덕 · 혜덕 법계 투표권 부여
321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비구니 참종권 보장 의미도
6월 25일 종회 통과가 관건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말사 주지의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선거법 개정안 따르면 제4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서 말사 주지는 교역직 종무원에서 배제했다. 총무원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도 확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회부권한은 일원화했다. 개정안은 '선거법' 제49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3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호법부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심판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의원 2/3이상의 결의로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무원은 5월 26일 법주사에서 예정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참석해 선거법개정안을 설명했으며,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장단, 비구니 스님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마련하고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총무원은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을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정안을 보완, 6월25일 중앙종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은 5월 20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로 일대에서 추모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그들은 떠났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20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재… 유가족 등 5천여 대중 참석

"죽음마저 불평등한 시대에 죽음 고통 벗어나 왕생극락하옵소서."

선정 스님의 화청이 조계사에 마련된 식장을 메웠다. 출 · 재가할 것 없이 모두 눈물을 훔쳤다. 28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그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재가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20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개최했다.

그간 사찰과 단체의 추모법회들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종단 차원의 대규모 추모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추모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희생자 유가족과 불자, 시민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돼야 한다. 그런 세상을 위해 바꿀 것은 모두 바꾸어야 하며, 도려내야 할 것은 모두 도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인 제삼열 씨(단원고 제세호 학생 부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식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제 씨는 "못해준 것이 많아 지금도 마음이 아린다.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자. 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에게 도움이 못돼 미안하다"면서 "네가 나의 아들이라 너무 행복했다.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재에서는 인묵 스님과 수륙재보존회의 천도의식과 순정소년 · 제니걸, 성의신 해금연주가, 장사익 씨의 추모 공연이 함께 진행돼 유가족과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랬다. 특히 세월호 참사 추모헌정곡인 '우리 함께' 열창한 아이돌 그룹 순정소년과 제니걸은 음원 수익 전부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의 정근과 참회의 108배를 이어갔으며, 참석대중은 백등을 들고 종로 일대를 추모 행진했다. 신성민 기자

관련 기사 3면

노인 법회·복지를 함께… 유대감을 늘려야

독거노인 대책 무방비, 불교의 역할은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원룸에서 A씨(57)가 목을 매 숨졌다. 당시 A씨가 남긴 유서에는 '나는 가족이 없다. 내가 죽으면 화장시켜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로 미뤄 사망한 지 1주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남편과 이혼 후 36년을 혼자 살다 오던 B씨(71)도 지난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려왔으며, 장기간 고립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뚜렷한 정책적 해결책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 고독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데이터도 없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통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올해 453만9000가구로 전체의 25.3%에 달한다. 특히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독거노인은 2013년 현재 12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노인 613만8000명의 20.4%에 해당된다.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54만4000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118만7000명)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5년 137만9000명, 2025년 224만8000명, 2035년에는 34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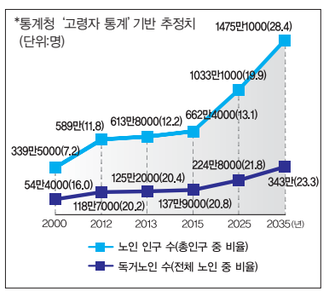
문제는 노인 빈곤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노인실태 조사 결과 전체 독거노인의 42.4%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독거노인 가운데 특히 위기가구 9만5000명, 취약가구 20만5000명을 '요보호군'으로 보고 있다. 약 30만명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고독사 위험군 노인 30만명
불교계 복지관 돌봄서비스
운영 위주… 정서 공유해야

이런 상황에서 독거노인을 위해 따로 사업을 제안하거나 운영할만한 역량을 갖춘 복지관은 드물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제안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복지관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는 방문과, 심폐술 등의 생활교육, 수요자에 맞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같은 수혜를 받는 독거노인의 수는 한정돼 있고, 무엇보다 관심과 케어, 정서적 유대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故 법정 스님이 창립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노인복지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맑고 향기롭게'의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은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부문화 캠페인으로 후원계좌 이체, CMS(자동이체) 정기후원, 캠페인 현장 모금, 동전 모금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연 대상자로 사연이 소개된 어르신들에게 난방비 및 생계비 지원 목적으로 골고루 배분하고 있다.



〈표〉 전체 노인 및 독거노인 증가 추이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노인공동주거시설 설립과 지역 사찰에서의 노인 계층 법회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서적 유대와 공감대가 고독사를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스님은 "본사와 말사 등이 독거노인들을 품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생신 잔치 등은 1회성 행사일 뿐이다. 가족처럼 돈독히 노인들을 묶을 수 있는 계기를 사찰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 대표는 노인법회 상설화를 제안했다. 권 교수는 "노인들의 신행활동과 복지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 법회는 계층 간 동질감과 자부심을 찾게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노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불교 노인 복지에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동 생활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일반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리사를 별도 두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 정혜숙 · 배현진 기자

관련 기사 31면

994호 INDEX

시방세계 5
원학 스님, 진오 스님 북 콘서트 현장



종합 2·3
'청소년 마음등불' 확대 시행
제3회 청년출가학교 열린다
진제 스님 시중…동화사 내홍 일단락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한다
백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선양사업

신행·복지 6·7
자기연민, MBSR… 공부모임 인기
문턱 낮춘 복지관 인문학 강좌 호평

강의실 중계 8
조성택 교수의 '불교인문학' 1강



여객선 세월호 침몰 희생자 및 호국영령를 위한 천도대재와 국가안녕 경제부강 기원대법회



※ 참가 신청 선착순 1000분에게 용성조사께서 지으시고 마과 강사께서 번역하신 귀원정종을 봉암문도회에서 봉정하겠습니다.

기미 3.1 독립운동의 민족대표이신 용성조사 탄생 150주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선구자로서 용성조사로 부터 은. 법. 강. 율을 전수 받으신 봉암 대선사 성도 75주년, 사리 500여과 를 출현하신 석가산 장로의 자모 마야성 보살 입멸 1주년이 되는 음력 5월 8일을 맞이하여 차가운 진도 앞 바다에서 희생하신 애처로운 고혼과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다 가신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천도대재를 봉행하므로 조국 대한민국의 안녕과 경제가 부강 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국민은 해인사 용탑선원에 모여 함께 기원하시기를 합장 합니다.

***일 시 : 2014년 6월 5일 10시 *장 소 : 가야산 해인사 용탑선원**

주최 : 봉암대선사문도회 주관 : 천도대재봉행위원회

봉 행 위 원 : 보산. 남산. 가산. 화산. 혜산. 미산. 홍산. 정산. 대산. 엄산

■ 접수처 : 서래사 051)556-0278 법전사 054)972-5545 불광사 055)364-4747 금선사 033)763-2441
조계사 053)257-7032 광덕사 041)584-4154 용호사 043)253-7657 비봉사 055)742-0441
천양사 010-6593-7982 구룡사 054)437-4792

봉행위원장 : 화산당 월인 화남 / 개당화상 : 혜산당 혜륜 화남 / 배당화상 : 미산당 천강 화남 / 어장화상 : 정산당 청봉 화남

※ 장소변경 : 팽목항에서 가야산 해인사 용탑선원으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계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 열린다

5월 30일 조계사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수행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 다례재가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오는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를 봉행한다.

이날 다례는 개회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도의국사 행장 소개, 추모사, 청법게, 법어, 헌향, 헌다, 종사영반, 헌화,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도의국사는 8세기 신라에 최초로 선(禪)을 전하고 조계종의 원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한 스님이다. 선덕왕 1년(780년) 당나라로 유학해 지장의 제자가 되어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헌덕왕 13년(821년) 귀국해 선을 전했으나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이후 40여 년간 설악산 진전사에서 수행하다가 제자인 염거 스님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기일인 음력 5월 2일 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진각종 통리원·교육원 제2기 집행부 출범

대학원장 경당·기획실장 호당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5월 20일 총인원 통리원장 접견실서 진각대학원장과 통리원, 교육원 부·실·국장 등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제 29대 2기 집행부를 새롭게 출범 시켰다.

이에 따라 제 10대 진각대학원장에 교육원장 경당 정사(행원심인당 주교)를, 통리원 기획실장에는 사회부장 호당 정사(실상심인당 주교)를 각각 임명했다. 또한 진각대학원장은 교육원장이, 기획실장은 사회부장이 겸직하게 됐다. 이외에도 교육원 교무부장 서리 겸 진각대학원 교학처장 서리에 교무국장 법경 정사(시복심인당 주교)를 임명했다. 현 통리원 총무부장 겸 총인 예경실장인 덕정 정사(밀엄심인당 주교)는 유임됐다.

또한 이날에는 국장급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신임 교육원 교무국장에는 수각 정사(밀각심인당 주교)가, 통리원 기획국장에는 재무국장 수혜 정사(능인심인당 주교)가 겸직한다. 사서국장에는 혜진 정사(관음심인당 주교), 전산국장에는 보당 정사(장엄심인당 주교), 사회국장에는 법공 정사(명선심인당 주교)가, 총무국장에는 정일 정사(대원심인당 주교) 정사, 건설국장에는 진광 정사(선정심인당 주교), 교법연구국장 혜담 정사(혜원심인당 주교)는 유임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청소년 마음치유 전국서 만난다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마음등불' 서울·경상 등 8곳서 확대 시행

한마음과학원 등 수련원서 진행 오는 10월까지 430명 대상으로

청소년 마음등불 전국 시행 장소

일정	지역	센 터	인원	프로그램 명
6/21-22	경기 남양주	봉인사 수련원	40	상담이 있는 명상
7/10-11	전라남도	명상상담센터 쉼	20	감정조절 프로그램
7/12-13	경남 거창	지혜로운 마음 명상상담센터(죽림정사)	20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7/19-20	광주광역시	비로자나 명상상담센터	30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7/26-27	광주광역시	비로자나 명상상담센터	20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7/26-27	충청북도	광명선원 수련원(한마음과학원)	30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꽃을 피우는 나무
7/28-30	서울	금강선원	50	집중명상
8/01-02	부산 중구	행복한 명상상담센터(미타선원)	20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8/02-03	경남 산청	맑은 명상상담센터	20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명상상담
8/09-10	경남 산청	맑은 명상상담센터	20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명상상담
8/13-14	부산 중구	행복한 명상상담센터	20	감정조절 프로그램
8/11-13	서울	금강선원	50	집중명상
8/16-17	경기 이천	행불선원	30	힐링캠프
8/23-24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20	감정조절 프로그램
9/13-14	경기 부천	마인드힐링명상상담센터	20	감정조절 프로그램(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습력 저하 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서울, 강원, 경상, 전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무기력, 우울증, 자살, 학습력 저하 등의 청소년 문제를 치유·예방하고 자존감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인 '청소년 마음등불'을 보급·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청소년 마음등불'은 포교원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으로, 참가 단체는 금강선원, 한국명상상담학회(명상상담연구원), 한마음과학원, 봉인사, 행불선원 등이며 각 기관 명상센터나 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이며 전국 중고등학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집중명상 △명상상담 △감정조절 △상담이 있는 명상 △심성개발 △힐링캠프 등 참가 단체에서 특화시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강선원이 진행하는 '청소년 10분 집중명상'은 20년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교 명상법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집중력·지구력·자기조절력을 기르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 하나의 사물에 집중해서 응시하거나 소리를 듣고 외우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응용해 청소년들이 쉽게 집중명상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 방법을 시행한 중고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가천의과대학에서 훈련 전·후 뇌 모습을 촬영한 결과 안와전두엽이 뚜렷하게 활성화된 것이 관찰됐다.

명상상담학회와 명상상담연구원은 명상상담 및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상관법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 어딘가 자극을 받은 사건을 명상을 통해 떠올리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 내면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봉인사는 '상담이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주의와 연결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스스로 알아가게 한다.

이 밖에 행불선원은 '힐링캠프'를 운영, 힐링체조, 힐링박수, 만다라명상, 잣나무숲 명상 등 다양한 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포교원은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은 물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미래관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 해부터 청소년 마음등불을 운영해 문체부 자체평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청소년 명상상담 프로그램'으로 입지를 굳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내려놓고 싶은가, 청년출가학교로 오라

조계종 교육원, 6월 28일부터 미황사서 출가학교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대학 입시, 취업 등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생긴 비용으로 청춘은 저당 잡혔다.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3포 세대'까지 생겨났다.

경쟁과 불안이 공존하는 20대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청년출가학교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는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8박 9일 간 해남 미황사에서 '2014 청년출가학교'를 개최한다.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청년출가학교는 올해에도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도법사로는 법인 스님(청년출가학교장),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만초 스님(해남사 주지), 가섭 스님(교육국장), 원영 스님(교수아사리), 재마 스님(중앙승가대 박사 과정)이 참여하며, 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의 스스로 자기 비전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게 이끌 예정이다.

올해로 3회째… 20대 청년 대상 용타 스님, 조성택 교수 등 강의 지도법사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6월 2~20일까지 남녀 40명 모집

교수진으로는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 조성택 교수(고려대), 함돈균 교수(고려대), 박웅현 CP(광고기획사 대표), 황광우 교수(철학자), 이종만 풍경소리 대표가 나선다.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의 강의는 둘러싼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파악하고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고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청년출가학교는 청년들이 출가를 삶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경쟁과 불안이 공존하는 현 시대의 청년들에게 청년출가학교는 출가를 자신의 삶으로 상상할 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영 스님은 "1, 2기 출가학교를 진행하면서 3명의 출가자가 나왔다"면서 "이번 출가학교에서도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청년출가학교는 20대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우편 및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모집인원은 남녀 40명이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문의 (02)2011-181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제 스님 화합 示衆…동화사 사태 일단락

21일 동화사 산중대회, '성토' 대신 '원융' 선택

총림 차기 주지 인선을 놓고 내홍을 빚은 팔공총림 동화사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 스님(조계종 종정)이 차기 주지 인선부터는 주지와 임회, 각 문중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키로 유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진제 스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중을 5월 21일 열린 '9교구 정상화를 위한 사부대중 산중대회'에서 방장 시중(示衆)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제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 스님이 봉독한 시중에서 "앞으로 팔공총림 살림 제반에 대해서는 신임 주지인 덕문 스님과 임회 위원들에게 맡기고 초연할 것"이라며 "차기 주지 추천은 주지와 임회 위원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주지 덕문 스님을 중심으로 원융 화합된 모습을 보여달라. 팔공총림을 가장 모범적인 도량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따라 산중대회는 성토가 아닌 화합의 메시지가 주를 이뤘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발원 의식들도 함께 진행됐다.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오늘 방장 스님의 시중은 팔공총림 정상화를 위한 대중들의 열망과 원력이 뭉쳐 나온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더라도 총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중대회 참석 대중은 △총림의 제반 운영은 대중공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어른을 잘못 모신 당사자들은 참회하고 자숙하라 △산중대회를 계기로 원융화합된 총림으로 거듭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팔공총림 동화사의 산중대회가 방장 진제 스님의 시중 발표와 사중의 수용으로 성토 대신 화합으로 마무리됐다. 차기 주지 인선을 놓고 빚어진 내홍이 일단락됐다.

서울교육감후보들, "학교 내 종교편향 안돼"

고승덕·문용린·조희연 후보, 불교계 좌담회서

불교계가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좌담회에서 후보자 전원이 교내 특정종교교육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승덕·문용린·조희연 등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3명은 5월 22일 불교생명윤리협회(대표 흥선)·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이수덕)·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진관)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승덕 후보는 "종교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으로 학생 역시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특정종교과목이 있을 시 대체 과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대안으로 학생들의 개별 종교를 기초로 학교기피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시했다.

문용린 후보도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을 반대했으며 종립학교 종교교육 폐지와 함께 철학 과목과 유사한 일반종교 과목 도입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좌로부터 고승덕·문용린·조희연 후보) 좌담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문 후보는 "대광고 사건에서 보듯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은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며 "하지만 철학 과목 개념의 일반종교 과목 설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후보로 꼽히는 조희연 후보도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조 후보 역시 배정기피신청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종립학교 내 타종교 동아리 활동을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追慕

世界佛教 法王廳 初代法王 一鵬 徐京保 尊者 追慕大祭
社團法人 大韓佛教 統合禪教宗 創宗2週年 大法會

慕

귀의삼보하옵고,

온 인류의 스승이시며 근래 한국불교의 큰 스님이신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 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탄신 100주년 다례제 및 원적 18주기 추모 대법회와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창종2주년 기념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전 종도 및 문도 스님들께서는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일붕 서경보 존자님 큰 가르침을 되새기고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의 창종 2주년을 기념하여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인류평화 실현을 기원하는 뜻 깊은 법석을 빛내주시길 기원합니다.

일 시 : **불기 2558(2014)년 6월 6일(음력 5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
문의 : 041)566-2277~2278. 010)7311-2277 / 팩스 041)566-6141

증 명 : **용암. 명종. 법운. 화엄**
봉행위원장 : 삼주 (010-7191-0086)
추진위원장 : 지현 (010-3610-7462)
봉행위원회 : 총무원 임직원, 중앙종회의원, 전 종도 일동

社團法人 大韓佛教 統合禪教宗 奉行委員會

세월호 피해자·국민 '슬픔 보듬기' 준비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매 주말마다 추모 촛불 문화제가 열고 있으며, 불교계도 잇달아 추모 행사를 개최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조계종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20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유가족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해 서로를 위로했다.

24일에는 안산시사암연합회(회장 승현)가 1달 동안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한 '참회 · 추모 · 화합' 의 1만배 회향 법회가 열렸다. 안산시 사암련은 매일 저녁 7시 300배를 올리는 형식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대의 공업을 참회했다.

종단 차원의 49재도 준비 중이다. 천태종은 6월 1일 서울 서초동 관문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49재 및 참회 법회를 봉행하며, 각 종단들도 49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범종단적인 49재와 추모 위령재를 6월 중순 경 봉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들도 전국 사찰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교계가 열거나 추진 중인 추모행사와 49재는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워낙 대형 참사이고 아직 실종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수 없었다. 이 같이 '울어줄 공간' 을 마련하는 불교계의 추모 행사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사고 직후 진도 팽목항에 긴급재난구호 봉사단을 파견해 현장 봉사를 하고 법당을 설치해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것도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여법히 수행한 것이었다.

불교계 추모행사 잇달아 개최
종단협 6월 중순 합동 49재도
성금도 잇달아 답지 '자비행'

개신교 2년동안 돌봄 캠페인
현장 중심 지속 지원 준비돼야
자승 스님 "치유 프로그램 준비"
거점 템플스테이 설치 등 필요

문제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이후이다. 49재 등 추모행사를 마친 이후 사업 방안 등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1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겨진 슬픔' 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들이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년 간 돌봄과 위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위원회(위원장 김삼환)' 가 중심이 돼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등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가정에 파견하고, 상담치료와 함께 재정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지원 돌보미 인력 양성과 안산지역에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스님들은 5월 22일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귀환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추모 이후 남겨진 슬픔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불교계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만큼 희생자 · 실종자 유가족과 생존자, 나아가 국민들을 치유하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교계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실제 조계종은 치유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중앙종회의장단의 성금 전달 자리에서 "종단 차원에서 세월호 희생자 49재와 치유프로그램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며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방침" 이라고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가장 먼저 불교계에서 계획 중인 49재를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국민적 행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이후 유가족과 국민들이 불교의 문화와 신행 안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특히 템플스테이 사찰을 중심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거점 사찰을 지정해 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한다" 면서 "종단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스님과 재가자로 구성된 치유 상담 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상담 · 케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민족대표 용성 스님, 잊지 않겠습니다

탄신 150주년 선양사업 잇달아…5월 29일 심포지엄 · 6월 5일 법회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명 중 한명이었던 용성 스님의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된다.

(사)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이사장 법륜)는 오는 5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탄생 기념 심포지엄을, 6월 5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기념 법회를 각각 개최한다.

6월 5일 열리는 기념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원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장재영 장수군수 등과 일반 시민 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회에서는 '나 용성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다시 독립운동을 하겠다' 는 주제의 기념 퍼포먼스가 선보여지며, 법회 후에는 기념 음악회도 열린다.

'부처님 정법의 계승과 전파' 와 '시대의 과제, 독립운동' 등 2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탄생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용성 스님의 불교 안팎의 행장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로 이뤄진다. 발제자로는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 김순석 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하며,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집 진각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민족대표 33명 중 한명인 백용성 스님의 진영

(사)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성장이 백용성 조사를 비롯한 선조들의 인연공덕임을 생각한다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에 맞게 행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 라면서 "내적으로는 부처님 바른 법을 따라 수행정진하여 나와 이웃의 행복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 과거 백년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백년의 희망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공공연구 분야 '종교편향' 논란 해결점

불교학계 반발에 한국연구재단 '불교학 전문위원' 선출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전문위원 선임에서 종교분야 중 불교를 배제 시켰던 한국연구재단이 불교학계의 반발에 불교학 전문위원을 선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불교학계와 간담회를 열고 학술연구분야분류표를 새로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5월 20일 '(사)한국불교학회 공문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답변' 을 통해 "종교분야 책임전문위원(CRB) 선임에 학문적 전문성, 형평성 및 공정성을 지닌 학자를 선임할 계획" 이라며 "학술연구분야분류표 상에 있는 종교분야 불교학의 전문위원(RB)을 선임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어 "학술연구분야분류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책연구과제 '융합시대 인문학 연구분야분류표 재설계를 통한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를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겠다" 고 약속했다.

앞서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종교학회에 기독교 10명, 가톨릭 10명, 한국종교 10명의 후보로 구성된 인문학 분야 책임전문위원(CRB) 및 전문위원(RB)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는 가톨릭과 기독교는 종교분야와 철학분야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 불교는 철학 분야만 인정받은 것으로 종교편향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불교학회를 비롯한 11개 불교계 학술단체들은 이에 성명을 통해 △종교편향에 대한 연구재단의 사과 △학문분류표 개정 특위 구성 △전문위원 추천 요청 학회 선정기준 공개 등을 촉구하고 해명이 없을 시 공직자 종교차별행위로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에 대해 불교학계는 간담회 개최 및 불교학 전문위원 선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공식 해명과 사과가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표 한국불교학회장은 "불교계 학회들에서 수용의 입장이 많았다" 며 "한국연구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 전문 인력 양성할 '능인대학원대학교' 문 연다

지광 스님 10년 원력 불사 '완성'
경기 화성 위치… 3천평 규모
불교학·상담치료 등 석·박사 과정
6월부터 학생 모집… 9월 개강


학교법인 한국불교학원이 운영하는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가 9월 1일 개강한다. 사진은 학교 전경.

불교학 석 ·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대학교가 경기도 화성시에 개교한다. 학교법인 한국불교학원은 5월 21일 "불교학을 비롯한 응용불교학 연구를 통한 전문 인재 양성의 요람인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하고 9월 1일 개강한다" 고 밝혔다.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총장 지광, 이하 능인대학원대학)는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의 인재불사 원력의 집결체이다. 2004년 한국불교학원 설립허가를 받고 2005년 11월 대학건물 기공식을 가진 후 10년 학교 건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간 투입된 자금만 120억 원이다.

많은 정재가 투자된 만큼 교육기반시설이 매우 탄탄하다. 학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9,917㎡(3000여평)에 이르며 스포츠센터부터 도서관, 강의실, 학보사, 세미나실, 방송국, 강당, 교수연구실 등 다양한 학내 시설들이 들어섰다. 내년엔 300명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도 지어진다.

올해 1월 교육부로 정식 인가를 박은 능인대학원대학은 석사학위 과정부터 시작하며, 2년 뒤에는 박사과정도 개설한다. 현재는 불교학과(불교학, 전법학)와 응용불교학(명상학, 융합상담심리학, 융합심리치료학) 등 2개 과가 우선 운영된다.

능인대학원대학 총장 지광 스님은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이 강남 포교 산실 능인선원을 이끌어낸 노하우를 전부 전수할 계획이다.

지광 스님은 "불교는 현대화 되고 새로워져야 하지만 한국불교는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면서 "능인대학원대학은 부처님의 이상을 현대에 맞게 새로운 각도로 조명해 불교 과학화와 현대화의 첨병들을 양성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능인대학원대학은 9월 개강을 맞아 첫 신입생들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불교학과, 응용불교학과 각각 50명이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2014년 8월 취득예정자, 법령상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누구나 입학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5월 26일~6월7일까지다.

문의 www.niu.ac.kr, 02)578-1880, 031)8046-9700

신성민 기자

관세음보살님께서 대한민국 서울에 대자대비의 그늘을 드리우시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무시는 사바세계의 주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을 이루는 영험한 기도도량 - 현지사 서울분원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6월 정기법회 : 6월 1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8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

관세음보살님 기도 및 공부법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를 3,5,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관세음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서울분원 관음재일 안내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안내 ; 음력 1일, 15일, 23일,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혜민병원 뒤) 02-453-5953

불자 여러분들에게 정법과 사법(邪法)의 여섯 가지 구별기준을 제시합니다!!

"삿된 외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지의 흙과 같이 많고, 정법을 만나 수행하는 사람은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다!"

「잡아함경」

정법교단은 ①청정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②부처님의 실존을 믿으며 ③지옥 · 극락 등의 사후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가르치고 ④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설하며 ⑤금강경 등 경전을 중시하고 칭명염불을 정통수행법으로 채택하며 ⑥부모 · 조상님에 대한 효행, 스승 공경과 나라 사랑, 이타의 보살행을 핵심 수행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는 교단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일 주 문



세월호 희생자 성금 기부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 5월 20일 2000만 원을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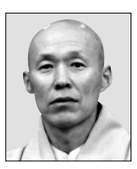
간화선 집중수행 수강생 모집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은 6월 30~7월 6일 열리는 간화선집중수행 수강자를 모집한다. 선착순 80명 참가비 25만원. (02)2260-3891



대전충남파라미타 총재 추대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5월 17일 대전충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로 추대됐다.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책위 활동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장 종호 스님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산하 존엄과 안전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한다.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서울 문수사 주지 태성 스님은 5월 20일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으로 600만원과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금 1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다.



중앙승가대 발전기금 기부
송광사 서울포교당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내마음 바로보기' 문화강좌
마가 스님은 6월 2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서울 · 경기 지점에 문화강좌 '내마음 바로보기' 를 진행한다.

반야로 채원화 원장, 대한민국차인대회대상 수상

교육부문 공로인정… 전통 선차법 해외 시연도



한국 반야로차도문화원 채원화 원장은 'TEA EXPO 2014 대한민국 차인대회' 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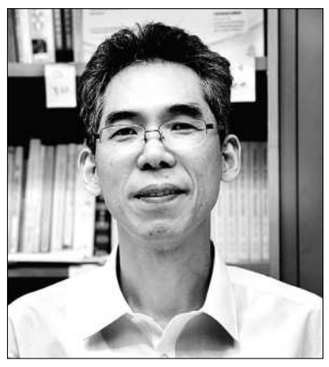
채 원장은 한국 차도의 기반을 세운 故 효당 최범술 스님의 차법 전수자로 반야로차도문화원을 세워 전통차법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2006년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최초로 문하생들과 선차도를 시연해 뜨거운 갈채를 받기도 했다.

채원화 원장은 "세월호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열린 차인대회이기에 마음이 무거웠다" 며 "국민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우리 차문화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日불교연구 관심 높인 것 보람"

일본불교사연구소 5년 정리
31일 세미나 여는 김호성 교수





일본불교사연구소가 그동안 펴낸 자료집

"5년 동안의 활동의 성과라면 일본불교를 한국에 알리고 예전과 달리 일본불교를 연구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공도 아니었던 일본불교를 함께 공부해왔던 여러 학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불교 연구의 대표주자로 활동한 일본불교사연구소가 5월 31일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김호성 일본불교사연구소장(동국대 교수)는 5월 22일 "운영위원회를 연 결과 소장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일본불교사연구소가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 이후에는 가칭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가 구성될 예정이다. 일본불교사연구소는 2009년 5월 창립한 이해 논문집 〈일본불교사연구〉를 총 10회 펴냈으며 학술세미나도 11회 개최했다. 또 20여명의 학자들이 그동안 자신이 연구한 일본불교 논문을 연구소를 통해 발표했다.

또 △일본서적 번역 및 장학사업, 일본불교 스터디모임 활성화 및 '일본불교사 공부방' 서적 간행 △시민강좌 '한일문화교류 아카데미' 및 '일본불교사 강좌기행' 등을 펼쳐왔다.

김 교수는 "반드시 저희 공덕만은 아니지만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일본불교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장학자들이 많이 배출됐으며 학계에서도 일본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태" 라며 "연구소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학자들이 자율적으로 학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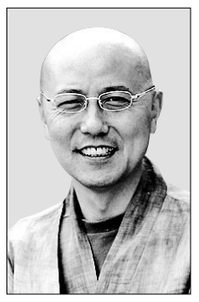
김 교수는 "일본불교 스터디 모임 및 자료집인 '일본불교사 공부방' 발간은 계속 진행할 예정" 이라며 "학회에도 학자들의 장학 등을 지속적으로 뒤에서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불교사연구소가 마지막으로 31일 여는 세미나 주제는 '일본 조동종 개조 도겐의 선과 청규' 다. 이날 발표자로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중국 선종청규와 〈영평청규〉의 비교고찰' , △강형철 박사가 '도겐의 시간론에 대한 불교철학적 고찰' 을 △김호성 교수가 '효, 출가, 그리고 재가의 딜레마' 를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미혼남녀 결혼, 불자들이 앞장서자"

10년간 1500쌍 부부연 맺어준 혜철 스님



"제가 결혼시킨 부부들이 가끔 아이를 데리고 절에 놀러옵니다. 큰 아이들이 벌서 7살 정도에요. '스님, 얘도 크면 장가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저 흐뭇할 뿐입니다."

'중매쟁이 스님' 으로 유명한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인터넷 중매카페인 '따뜻한 만남' 을 운영하고 매달 한 차례씩 '인연 맺기 특별법회' 를 연다. 이런 활동을 시작한지 10년. 1500쌍의 인연이 맺어졌고, 현재 카페 등록회원은 1만여 명에 달한다.

스님이 선남선녀 인연맺기에 뛰어든 것은 2005년이었다. 옥천의 처녀총각을 결혼시키기 위한 작은 행사를 열면서 부터였다. 스님의 중매는 입소문이 나 도시에서도 찾아오게 됐다. 주말법회에는 100여 명이 넘는 처녀총각들이 대성사를 찾는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합니다. 부부의 인연이 얼마나 지중하겠습니까" 라며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결혼의 행복한 모습을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미혼남녀들이 많은 것일까. 스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 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혼하면서 팔자를 펴려고 합니다. 상대가 최고로 예뻐야 하고, 또 직업도 좋아야 한다는거죠. 말이 안되요. 정작 그런 기준에 결혼하면 결혼생활이 행복할까요? 그런 욕심을 버려야 행복이 찾아 옵니다."

스님은 향후 사찰에 조그만 찻집을 마련하고, 그 수익금을 자신이 맺어준 부부들을 돕는데 쓸 예정이다.

스님은 "많은 부부들을 맺어주다보면 이혼하는 커플도 소수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가정까지 돌봐주고 싶다" 고 덧붙였다.

끝으로 스님은 "불자들이 부부연을 맺는데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분당 대광사, 5월 18일 명상수련센터 상량식



현대인의 마음 치유를 위해 건립 중인 천태종 분당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 및 지관전 상량식' 이 5월 18일 도용 종정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전통명상수련센터는 현대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몸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수행 · 힐링의 선구적인 시설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도 개회사서 "다양한 힐링 시스템을 가동해 지혜와 자비의 길을 안내하는 복합적인 명상 문화 시설로 자리 잡아 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량식에는 성남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주혜 스님과 이종훈 · 전하진 국회의원,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신영수(새누리당).이재명(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후보 등 지자체 단체장과 시구의원 후보들도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 108돌 '동국인 수계대법회'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건학108돌을 맞아 '동국인 수계대법회' 를 봉행했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은 5월 21일 동국대 본관 앞 팔정도 광장에서 불명과 계를 받는 수계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제2건학 원만성취와 새로운 108년을 출발하는 동국인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마련됐으며 팔정도 청동여래입상 개보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법회로 의미를 더했다. 수계법회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을 전계사로 재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탄허대종사 갑오년 추모공연



탄허기념박물관(관장 혜거)은 5월 22일 서울 자곡동 기념관 보광명전에서 '탄허대종사 갑오년 추모공연' 을 열었다. 탄허 스님 열반 31주기를 맞아 열린 공연은 1부에서 금강선원 합창단의 '해탈' 음성공연과 정선화의 춤공연, '탄허 스님의 노래(최영철 작곡)' 초연 등이 이어졌다. 2부 추모공연에서는 판소리와 범음범패, 육법공양에 깃든 우리 소리 등에 대한 혜거 스님의 해설이 이어졌고 채수정 예술단의 판소리 공연이 열렸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 경주캠, 노인요양원 봉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인재개발처 참사람재능나눔센터는 5월 17일 경주 불국성림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홍보대사와 한국음악과 학생 등 40명이 노인 전문 요양원인 불국성림원을 찾아 시설 청소와 정리, 말벗 봉사 등의 활동과 한국음악과 학생들의 국악 공연 및 부채춤 공연 등의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태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재개발처장은 "경주시와 기관 및 산업체, 지역 학생들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나눔 재능 기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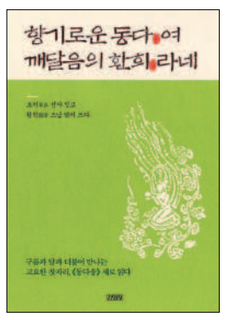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 세월호의 아픔을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화세계법왕 석만청 합장



원학 스님은 18일 북콘서트에서 초의선사가 〈동다송〉을 펴낸 의미는 '나눔과 회향' 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왼쪽은 김문주 아나운서







정목 스님이 진행한 진오 스님(오른쪽 두번째)의 북콘서트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사연이 소개돼 감동을 선사했다.

북콘서트 현장

茶·禪수행·생명존중은 '나눔'에서 출발

한국불교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조계사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18일과 19일 양일간 연달아 열려 눈길을 끌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동다송'을 풀어 쓴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과 '달리는 스님' 진오 스님. 원학 스님은 대중들이 접하기 힘든 차의 세계를 보다 쉽게 해설하는 편안한 대화형식의 콘서트로, 진오 스님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 등을 진솔하게 풀어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북콘서트가 열린 조계사에는 양일동안 입추의 여지없이 불자들과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책을 계기로 두 스님의 삶의 철학을 듣고 공감하며 그 감동을 함께 했다.



원학 스님의 북콘서트에는 불교합창단의 공연도 있었다.

원학 스님 "다선은 주변 돌아보는 계기"

초의 스님 〈동다송〉 저술 의미 '회향'

'다선일미'는 생명존중의 또 다른 표현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 모두의 공업

진오 스님 "어려운 이웃 위해 계속 뛸 것"

사람 마음 모으는데서 모금 시작

1km 당 100원씩 총 2200km 뛰어

세월호 희생자 위해 108km 달려



진오 스님과 정목 스님이 진행한 북콘서트

"생명존중 · 삶의 여유를 되돌아 보자"

원학 스님, 〈동다여…〉 북콘서트서 강조

"200년 전 초의 스님은 동다송에서 '다성이 불성이다'는 말로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심성에 주목했습니다. 종교를 떠나 당대 유학자 등 지식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초의 스님의 사상을 되돌아보며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학 스님(봉은사 주지)은 5월 18일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저서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원학 스님의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는 우리나라 차 문화를 대표하는 저서인 초의선사의 '동다송'에 수행자로서 스님의 해설을 담은 책이다. 전문아나운서 김문주 씨와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400여 대중이 운집해 스님의 말을 경청했다.

이날 북콘서트에서 원학 스님은 선수행의 의미와 책 속의 이야기 등을 청중들과 나누고 직접 친필 사인회를 진행했다.

먼저 원학 스님은 "200년 전 초의 스님께서 말하고자 하신 차가 곧 수행이라고 하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번역 해설했다"고 집필의도를 전했다.

스님은 "집필과정에서 초의선사의 차인의 모습 뿐만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며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기쁨은 '나눔'인데 초의 선사는 차를 통해 느낀 깨달음을 대중에게 회향하기 위해서 동다송을 지었으며 저 또한 공부한 바를 회향하기 위해 이번 책을 내게 됐다"고 회향차원에서 이번 책을 출간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스님은 오늘날 초의 선사의 다선일미 정신을 되살려야 하는 이유로 종교의 벽을 넘은 소통과 생명존중 등의 가치를 들었다.

스님은 "초의 스님은 평범한 수행자였지만 숭유억불의 시대, 당대 유학자들과 교우를 나누었다. 다선일미 사상은 종교와 이념의 벽을 넘어 당대 지식인들에게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그것은 사람의 심성을 탐구하고 우리 삶을 향기롭게하는 '차의 힘'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오늘날 세월호 참사는 사회병폐를 만든 우리 모두의 공업"이라며 "진정한 환희는 멀리 있지 않다. 서로를 돌아보고, 여유를 갖고, 심성을 맑게하며, 자연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콘서트는 참석한 대중들이 스님에게 차와 초의선사 등에 대해 묻는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 삼성동에서 온 김명숙 씨는 "평소 잘 알지 못하던 초의선사와 차의세계에 대해 알게된 계기였다"며 "초의선사가 강조한 것이 결국 나눔과 회향이라는 점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웃 돌보기 위해 지구 끝까지 뛸 것"

진오 스님, 〈혼자만 깨우치면…〉서 다짐

'달리는 스님'으로 알려진 진오 스님(대둔사 주지)은 "가진 것도 없고 제대로 염불도 할 줄 몰랐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기에, 마라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구 끝까지 뛰겠다"고 밝혀 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진오 스님이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혼자만 깨우치면 뭣 하겠는가〉** 북콘서트에서 밝힌 각오다.

불교계 명진행자 정목 스님과 함께 대화 형식으로 콘서트를 진행한 스님은 "모금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배운 것이 '모금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닌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는 점"이라며 "단순히 돈을 모으려고 프로그램을 들었던 나에게 이런 가르침은 크게 다가왔다. 이후 진심으로 달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슈를 만들고 기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었으며 '스님'이 이런 일을 하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며 도움을 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진오 스님이 마라톤을 하게 된 첫 계기는 무엇일까. 스님은 2010년 머리 한쪽을 잘라낸 베트남 청년 토안을 만나며 부터라고 밝혔다.

토안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고 머리 한쪽을 잘라냈다. 하지만 보상금은 700만원이 전부였다.

스님은 "한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반쪽 가까이 되는 뇌를 잘라낸 토안을 보면서 미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님은 토안을 위해 울트라 마라톤에 나섰다. 그 거리는 108km. 1km 당 100~200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결국 스님은 1000만원을 모아 토안을 도왔다. 이후 스님은 이주노동자, 다문화여성, 통일(탈북)아이들, 일본 쓰나미 수재민, 베트남 해우소 설치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계속 달렸다. 해외에서도 마라톤을 진행했다. 스님이 지금까지 달린 거리는 2200km에 달한다. 이날 스님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108km를 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할 수 있었던 어린 생명 300여 명이 피어보지도 못한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달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이자 참회였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목 스님은 스님의 말을 받아 "진오 스님은 고통을 나누고자 정진하는 관세음보살"이라며 사랑을 전하는 달리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오 스님은 콘서트에서 "앞으로는 혼자 달리기가 아닌 함께 달리는 릴레이 달리기를 할 계획"이라며 "릴레이로 마음을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생각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신행소식

청소년예술경연대회 5월 17일 동국대서

최우수상에 명지중학 · 국립전통예술고 차지

청소년들이 사물놀이, 고전무용 등 전통예술을 뽐내는 자리가 열렸다.

(사)청소년교화연합회(총재 현성)는 5월 17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7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대한불교진흥원, 도선사, 동국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600여 청소년과 내외귀빈이 참석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경연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4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1부에서는 현성 스님의 대회사, 함종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청소년교화연합회 창립 48주년 기념 유공지도자와 모범청소년 표창 등이 마련됐다.

이어 2부 경연에서는 동대부여중(국악관현악연주), 국립전통예술고(해금산조), 동대부고(바라춤) 등 14개 팀의 전통예술 경연이 펼쳐졌다.

3부 특별 축하공연에는 송죽예술봉사단의 퓨전국악과 마술쇼가 선보여 관람객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여성가족부장관상인 대상에는 아쟁을 연주한 국립전통예술고 김수정양이 선정돼 선정과 장학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인 최우수상에는 명지중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가,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인 우수상에는 불광사, 철성중이, 본회 총재상인 장려상 · 인기상에는 동대부속여고, 창신초, 동대부속여중 등 각각 총 7개 팀에겐 상장과 부상으로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나은 기자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사진 오른쪽)과 대상 수상자 김수정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레협, 3급 전문지도자 과정 개강

5월 31일, 금강불교신문사 내 교육관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 불레협)는 불교레크리에이션 3급 전문지도자 과정을 개강한다.

이번 과정은 5월 31일 오전 10시 금강불교신문사 내 교육관에서 전국 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지도자 · 포교사 등 포교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프로그램에서는 기본교리, 불교교리 전달법, 프로그램작성 및 진행 등을 배우고 실습하게 된다. (02)738-7860

이나은 기자

한국공불련, 제14회 합동수계법회

6월 14~15일 덕숭총림 수덕사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장, 이하 공불련)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제14회 합동수계법회를 거행한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공불련 회원 및 가족 등 400여명이 참여하며, 입재식 및 수행정진 및 임원단 회의, 암자순례와 수계법회가 열린다. 지난 2000년 창립된 공불련은 임원 연수 및 대의원총회, 복지시설 자원봉사, 국내외 사찰 성지순례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나은 기자

자기연민, MBSR… 공부모임 인기

한불심, MBSR연구소, 불교방송 등 강좌 및 모임 열어



BBS불교방송은 불교심리학의 핵심과 그 실천방법으로서의 명상 기법들에 대해 소개하고 현대인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불교 수행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불심… 심리 · 명상 독서 모임
불교방송… 명상심리강좌
상담개발원… 산사워크숍 15년째

무한경쟁과 상대적 박탈감, 물질적 풍요로 인한 공허감에 시달리면서 심리치유와 마음공부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런 열풍을 반영이라도 하듯 교계에서는 심리학과 관련된 책 읽는 공부모임을 비롯해 명상심리학 강의, 워크숍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의 위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특히 서구에서 유행하는 현대 심리학과 마음챙김 등을 불교와 조화시켜 공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책 읽는 공부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학생, 주부, 직장인, 교수, 스님, 의료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매주 첫째 주 화요일 저녁 상도선원에 모여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에 참여한다. 공부모임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책은 〈진화심리학-마음의 기원〉 〈소셜애니멀〉 〈사로잡힌 뇌, 강박에 빠진 사람들〉 〈MBCT-8주 나를 비우는 시간〉 〈나를 위한 기도, 셀프컴패션〉 등 심리학과 상담, 마음챙김을 주제로 한 책들이다.

고원열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간사는 "참가자들은 공부모임을 통해 책을 읽고 궁금했던 내용들을 함께 참여하는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들에게 묻고 답을 들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부모임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 임미정 씨는 "심리치료에 관심이 많아 공부모임에 참여하게 됐다. 〈진화심리학 마음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을 진화론적으로 분석을 하니 내가 처한 상황도 객관화 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결국 불교를 통해 심리치유의 답을 얻었지만 이러한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MBSR연구소(소장 안희영)는 동양의 마음챙김 명상과 서양의학을 접목해 탄생한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완화)과정을 열고 있다. 일반과정과 지도자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비롯해 의사, 심리치료사, 상담사 및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8주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마치면 참가자들은 후속모임을 가지며 명상과 토론을 하며 자신이 배운 것들을 활용한다.

직장인 김보라 씨는 "성격이 예민하다 보니 우울하고 자기비하가 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졌다. 원치 않는 업무나 갑작스럽게 주어진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 전 같으면 '짜증나' '어떡하라고' 하는 식으로 습관적인 반응이 튀어나왔었다면 이제는 상황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 마음의 여유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에서는 2000년부터 '산사에서 만나는 수행과 상담' 워크숍을 진행해오고 있다. 매년 하 · 동계로 나누어 15차례 진행했으며, 일반인을 비롯해 불교상담심리사, 자원봉사자, 심리학 전공자 등 60~80명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다.

워크숍에서 다루는 주제는 '2천년대의 불교와 상담의 만남' '我, 버려야 할 나, 채워야 할 나' 등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것들이다. 지난 해에는 영국 수행공동체 아미타 트러스트 창립자인 데이빗 브레이저 박사가 진행한 '불교심리학과 선 치료' 등 서구의 심리치료와 불교를 접목한 워크숍도 진행됐다.

황선미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은 "2000년 초반에는 불교에서 심리상담의 해결방안을 찾았다면 최근에는 불교 심리학 관점에서 상담과 심리치료의 기법을 계발하고 향상시키는 실험적인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명상심리학 강의도 마련됐다. **BBS불교방송**은 7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 이사장 서광 스님의 '명상심리학' 강의를 연다.

강좌에서 서광 스님은 불교심리학의 핵심과 그 실천방법으로서의 명상 기법들에 대해한 소개하고 현대인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불교 수행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영인 불교문화 편집장은 "명상, 힐링, 치유 등이 대세이다 보니 50~60대 주부뿐 아니라 불교상담심리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한 분들도 강의를 듣는다"며 "강의도 생활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쉬운 내용이다 보니 불교를 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마음챙김 명상 교실로 대중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풍경소리학교**는 명상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방송작가와 함께 하는 마음 글쓰기, 스피치 전문가와 함께 하는 '마인드 업! 힐링 스피치', '감정조절 대화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지도자훈련 실시

5월 16~18일 용주사서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연맹장 송묵)은 5월 16~18일 어린이청소년법회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용주사에서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 제2기 지도자훈련'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어린이청소년 법회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스님, 지도교사 및 훈련강사 등 35명이 참석해 불교예절, 예불과 기도의 의미, 하이킹, 야영법, 응급처치, 지도와 나침반, 스카우트 조직과 운영 등 일선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습득했다.

또한 송묵 스님이 입소식과 수료식에 참석해 훈련 수강자와 강사들을 격려하고, '화랑도와 불교스카우트'를 주제로 특별강의도 진행했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연맹장 송묵)은 5월 16~18일 어린이청소년법회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용주사에서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 제2기 지도자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앞으로 스카우트 프로그램과 운영조직을 더욱 체계화해 전국 사찰에 보급해 어린이청소년 법회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변확대와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명상포교 현황과 전망' 주제 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5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명상포교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56차 포교종책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포교적 관점에서 불교 명상의 정의와 범주, 역할과 전개방법, 종단차원에서의 명상포교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명상포교, 어떻게 전개돼야 하나'를 주제로,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 원장)이 '명상포교의 역할과 종단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02)2011-1913

이나은 기자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6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문턱 낮춘 교계 복지관 인문학 강좌 호평

인문학 강좌가 복지관까지 찾아들었다. 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고자 몇몇 복지관은 정기 강좌를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인문학은 팍팍한 사회를 때로는 냉철하게, 가끔은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게 하고, 삶을 한 단계 성숙해진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어르신들도 주부들도 사춘기 시절 이후 잊어버렸던 나에 대한 질문을 되찾기 시작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인문학 강좌 수업현장(사진 아래)과 진지한 어르신 수강생 모습.

노친네인가 선배시민인가

"세상에서 누가 가장 사랑하기 어렵나요?"

"제 자신요"

"왜죠?"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죠"

막힘없는 대답이 좌중에서 흘러나왔다.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모인 곳에서는 날선 정치이야기도, 불만 가득한 사회이야기도 없었다. 수업에서는 사랑, 이해,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다.

5월 22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인문학교 두 번째 교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선배시민의 공동체 가꾸기' 란 주제하에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10회기 분량의 인문학 강좌였다.

수업은 어르신들이 공동체원으로서의 자신을 성찰하고 선배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보수적이고 사회에는 부담만되는 능력없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벗고 후배시민들의 상담자와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스스로 일깨우고자 마련됐다. 강의가 끝나는 8~9월에는 선배시민으로서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실행해볼 계획이다.

이날 주제는 인간존재론이었다. 19명의 어르신들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인간존재에 대해 탐구하면서 나는 결국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을 배웠다.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주변 사회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맡은 유해숙 교수(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사회복지학)는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며 지식인들의 어록을 자주 인용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태산이 아니라 작은 흙무더기다."

수강생들은 한비자의 말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존재임을 되새겼다.

윤무영(76) 어르신은 생각할 수 있는 폭과 깊이가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문학 강좌를 신청했다. 가입해둔 시사토론 동아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했다. 젊었을 적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그는 수업내내 필기에 열심이었다. 그는 오늘 수업 중 가슴에 남는 어귀로 "사랑은 이해"를 뽑았다.

지적 호기심 앞에서는 나이가 무색했다. 심리학, 종교철학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다는 어르신들도 여럿 있었다. 어르신들은 질문에도, 답변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모든 선생님들이 바라는 이상적 학생의 롤모델이었다.

수업만족도는 별 네 개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높다고 한다. 2008년부터 철학, 문학 등의 주제로 꾸려져온 커리큘럼은 양질의 수업수준을 자랑한다.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균형적 사고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훌라춤추며 하와이 문화를

이외에도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옥)에서 진행하는 '하와이 언어와 문화'는 다소 무거운 주제의 철학 일색 인문학교실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문강좌다. 생소한 하와이 문화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이 수업의 강점은 귀로만 듣는 수업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참가자들은 하와이 전통무용인 훌라춤을 추며 몸으로 하와이 문화를 익힌다. 또한 하와이 노래를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으로 번안해 불러보면서 다양한 언어 속 문화와 접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자들의 호응도는 높다. 특색있는 주제 덕분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잠재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수업은 6월 28일까지 3개월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도 있다. 인문학적 개념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해 성찰해보고 이상적 지역 공동체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총 8회기의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표〉 주민 위한 인문학 강좌

장 소	주 제	기 간
서울노인복지센터	선배시민의 공동체 가꾸기	5.15~7.17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하와이 언어와 문화	3.21~6.28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힐링에서 필링으로	5.8~6.26
중림종합사회복지관	혼돈과 전망	4.1~7.1
강남시니어플라자	동양철학, 서양사, 미술사	3개월 과정
벽고을 작은도서관	한국 전통예절 이해와 체험	6.12~8.28

자비나눔 통장 7천만 구좌 돌파

조계종복지재단, 난치병 지원에는 약 1700만원 모여

계좌 개설만으로 나눔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자비나눔 통장이 최근 7천만 구좌를 돌파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지난 1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적립식 예금상품 자비나눔 통장은 연평균 잔액의 0.1%를 불교사회복지발전기금으로 후원할 수 있는 불교계 최초 나눔 통장이다. 가입자는 목돈 마련과 동시에 별도 비용없이 소외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비나눔 사업이다.

현재 자비나눔 통장의 이율은 시중은행 최고 금리인 3.1%다. 후원 및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최대 0.3%의 우대금리가 추가적용된다.

한편 보다 많은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 품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바라는 국내외 장애인 · 난치병 어린이지원에 모연금 전달 줄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5월 19일 총무원 4층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제14회 국내외 장애인 · 난치병 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고운사와 함께 '난치병어린이지원 모연금 전달식'을 가졌다.

고운사는 이날 930여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는 4월 한 달간 고운사 신도회, 의성사암연합회, 의성불교신도연합회, 의성불교대학총문회, 의성군청불자회, 의성군노인복지관에서 모연한 금액이다.

난치병어린이지원 모연금 후원에는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4군데의 사찰이 동참해왔다.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용주사 225만원, 동화사 100만원, 통도사 300만원, 여주 신륵사 170만원 등을 후원해온 것이다. 직지사와 선운사도 조만간 모연금 전달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날 전달받은 모금액과 서울조계사 및 전국 사찰에서 동참한 현장모금액, 5월 한 달간 지속된 온라인 모금액을 합하여 오는 6월경 난치병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할 계획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을 난치병 환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재단측은 "지난 2월 경 병원법당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았다"며 "6월 중 선정회의를 개최해 치료비 지원이 시급한 난치병 환아 35여명을 선정하고, 생활환경 및 치료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현진 기자**

생명나눔, 걷기 행사 성황리에 성료


5월 17일 열린 생명나눔 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 남산순환로를 걷고 있다.

제7회 '생명존중 나눔걷기 축제'가 5월 17일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주최하고 안전행정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3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부광동고등학교와 광동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비의 헌혈을 진행한 후 자발적으로 헌혈증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증하기도 했다. 학생 대표들은 각각 163매, 301매를 기증하며 형편이 어려운 혈액질환 환자들을 돕는데 써달라고 당부했다.

만해광장에 설치된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살예방 부스에는 참가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이는 179명. 참가자들은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준비한 도형심리학, 우울증 자가진단 체험관과 자비명상에서 마련한 명상 홍보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건강 체크존, 페이스페인팅, 두더지게임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가족, 연인 등 다양한 그룹의 참가자들은 만해광장에서 출발해 남산순환로 4km를 걸으며 걷기명상, 지압코스, 포옹코스 등의 테마구간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했다.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인 아웃사이더와 팝핀현준은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키는 생명나눔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명나눔실천본부 명예의 전당 헌정식도 열렸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100명 이상 추천하여 헌액된 주인공은 법륜 스님(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총무), 성현 스님(대한불교삼론종 종회의원), 동국대학교 참사람봉사단으로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생명나눔실천본부 4월 선정환자로, 골육종 투병 중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노진규 선수의 지원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노 선수의 부친은 500만원을 전해 받으며,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완쾌되어 좋은 소식 전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청솔복지관,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약


청솔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전제품을 후원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월도) 부설 경기동부하나센터는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성남월드휴먼브리지(대표 최순식)와 5월 22일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관장실에서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봉사활동, 경기동부권역 신규전입자 물품지원사업, 행사 및 프로그램 협력사업,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경기동부권역에 신규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물품 지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올해 경기동부권역으로 신규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가전제품(쿠쿠압력밥솥)이 지원된다.

전기밥솥을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후원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도와주시는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강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한약지원


강북장애인복지관은 한의원과 연계, 장애인에게 한약을 전달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에서는 참사랑한의원과 연계해 5월 13일 장애인에게 개별맞춤진료를 통한 한약을 지원했다.

참사랑한의원은 2011년 1월 복지관과 협약을 맺은 후 매년 건강관리가 필요한 20명의 장애인을 선정, 개별맞춤진료를 실시해 보약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상하반기 15명씩 총 30명으로 증원하기도 했다.

이번에 무료진료와 한약을 지원받은 김 모(76세) 어르신은 "벌써 아픈 곳이 다 나은 것 같다"며 "일일이 손도 잡아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약"이라고 말하며 감사를 전했다.

윤지열 참사랑한의원 원장은 "올해는 30분한테만 한약지원을 하지만 내년에는 40명, 내후년에는 50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장애인분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매번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정성껏 달인 보약을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며 화답했다. **배현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이 시대 부처님상 함께 모색합시다”

화쟁아카데미 · 시민행성

조성택 교수(고려대)

1강 ‘샤키야무니 붓다 등장의 역사적 배경’

2강 역사적 붓다의 재구성
3강 붓다 출현 그리고 ‘불교’의 문명사적 의의: 귀환과 출가
4강 근대 유럽이 바라본 ‘붓다’: 부처님은 ‘영국신사인’가 ‘맑시스트’인가?
5강 신앙으로서의 부처님: 부처님은 ‘경쟁’중
6강 우리 시대의 ‘붓다’ 그리고 ‘부처님’

세계사적 관점에서 불교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고착된 전통문화로, 한편으로 무분별하게 수용된 문헌학적 텍스트로 굳어진 불교는 본래 지니고 있던 소통력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박제의 종교가 되고 말았다. 이에 조성택 교수가 종로구 사간동 ‘화쟁아카데미’에서 5월 22일 불교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이는 불교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불교적 사유를 통해 오늘날 문명의 폐해를 지적하고 비판해 나아가고자 기획됐다. 본지는 ‘부처님’을 주제로 하는 6주간의 강좌를 연속적으로 실어본다. **정리=정혜숙 기자**



조성택 교수는 … 1957년 부산에서 출생했다.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으며, U.C 버클리에서 인도 초기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비교종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간 〈불교평론〉,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철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불이상(학술 부문),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지식은 20세기 전후의 유럽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372년 소수림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20세기 이전에는 경전이라는 말이 불교를 대신했을 뿐이다.

사실 불교의 근원지라고 하는 인도에서 13세기 이후 불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역사적 존재인지 다양한 신들처럼 종교적 차원에서 믿었는지 확인된 바 없었다. 그러다가 아쇼카왕의 비문이 해독되면서 부처님은 역사적 존재로 부각됐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와 남방불교의 다양한 모습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을 불교라는 명칭으로 통칭하기에 이른다.

현재 우리 불교는 서양적 부디즘과 전통불교가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관점이 얼마나 괜찮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부처님 등장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문명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기원전 3천년전 경으로 올라가 보자. 당시 유목민었던 카스피해 사람들이 남하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유럽, 중동, 인도로 나뉘어 이동했는데, 인도로 남하한 이들을 인도아리안이라 한다. 이들은 베다라는 텍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신에 대한 찬미를 담고 있다.

이들이 인도에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가 기원전 2천년 경이었고 여기에는 당시 인더스 문명이 자리잡고 있었다. 인더스 문명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제사에 필요한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좌선을 하는 형태의 조각들이 발견되는 등 상당히 우수한 문화가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아리안의 남하로 인더스문명과 충돌하게 되고 여기에서 인도아리안이 승리하니 그때가 기원전 1천 500년 경이다. 그리고 이들이 형성한 바라문교가 1천년간 지속되었고 힌두이즘으로 발전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인간과 사회 자연이 동일한 선상에서 기원했다고 믿었다. 말의 목을 쳐 제사를 지냈으며 신의 몸에서 모든 자연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으며 사회적 계급도 신의 몸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신의 얼굴에서 바라문이 등장하고 두 팔과 가슴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크샤트리아, 생산활동을 하는 배에서 바이샤가, 발에서 수드라 계급이 나온다고 믿었다. 이는 인간의 계급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함부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바라문교는 인간의 계급도 신의 몸에서 나왔다고 믿음 이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불교 탄생게 ‘천상천하유아독존’ 운명은 스스로 결정함을 의미”

이렇게 1천년간 지속되던 브라만 제도가 철학적 사색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파니샤드 철학이다. 우파니샤드는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범아일여사상에 이르게 된다. 당시 브라마니즘에 반기를 들었던 젊은이들은 스승을 찾아 집을 떠났고 무릎을 맞대고 앉아 가르침을 비밀스럽게 전해준다는 ‘우파니샤드’의 의미처럼 이 가르침은 숲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출가는 집을 떠난다는 것이었고 이는 생산을 하지 않는 전문수행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출가 사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철기시대의 돌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철기의 도입으로 농업생산량이 증가했고 잉여생산물이 생겼다. 이에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문화가 형성되면서 자신이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 살던 문화가 깨지고 이주의 개념이 생긴다. 결국 잉여생산물로 인해 노동을 하지 않고 걸식을 통해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전문 수행자의 출현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들이 주로 택했던 수행 방식은 명상과 고행이었다.

부처님도 이런 분위기에서 출가를 하신 분이다.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공유하고자 하는 최초의 스승이었다.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이 찾아오는 이들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부처님은 대중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법을 하셨다. 그리고 모두가 수행을 하면 자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가를 제도화한 최초의 종교가 불교이기도 하다.

서양인들이 최고의 고전으로 삼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귀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주 생활이 정착된 이후 인간의 최대 고민은 귀환이다. 농사일을 한 수확물을 집에 가져가 재화를 쌓아놓는 등 자신의 욕망을 은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집을 나가라고 했다. 이는 주류문화인 정주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반격이었으며 비주류인 출가문화가 문명 전체를 긴장하게 만든 발언이기도 하다.

우리는 불교를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합리적으로 따지면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이 많다. 부처님의 탄생게를 예로 들어보자.’ ‘천상천하유아독존 삼계개고아당안지(天上天下唯我獨尊 三界皆苦我當安之)’ 이는 부처님 탄생 당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부처님 열반 5백년 후에 만들어졌다. 신화이고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탄생게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은 나의 미래는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인문주의적 발상이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운명을 신들 즉 하늘이 관장한다고 믿는 브라만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다. 자신이 모르는 통제할 수 없는 초월적 절대적 힘에 의해 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교라 할 수 없다.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관상을 보아준 아시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분은 인류를 구제하는 부처님이 되거나 인류가 못내 기다리던 전륜성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출가를 할 건데 그때 내가 없는 것을 한탄한다.” 이렇게 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한 부처님을 우리들은 위대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왜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출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이는 당시 인도 사회가 재가와 출가라는 이분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불교로부터 정치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음에 분명하다. 결국 이런 설정 자체가 불교가 초세속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로서의 종교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물론 대승불교에서 이런 점이 극복된 듯 했지만 동아시아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불교는 유교문화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으며 결국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종교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사문유관은 문제의식의 보편성을 말한다. 설마 부처님이 그 나이가 될 동안 누구의 죽음도 보지 못했을까? 이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가 출가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으로 사문유관은 이해되어야 한다.

과거에서 불교의 정치참여 예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불교 안에 있다. 눈만 열린다면 정치 사회 이론 등에서 여지가 많다. 수행명상은 말할 것도 없이 말이다.

지금 우리는 20세기초 서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투영된 부처님의 상을 공유하고 있다. 명석하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 ‘붓다’ 말이다.

또 초기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니다. 하지만 신도 인간도 아닌 깨친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다. 기독교는 예수가 곧 사랑의 화신이라는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는 각각의 정의가 다 다르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처님의 상에 대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시대 부처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강의

1 빙의환자는 천도재나 구병시식을 해도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퇴마 후 퇴마한 영가와 조상천도재를 해야 합니다.
2 이십여년간 연구하고 퇴마해 온 경험과 비법으로 오로지 제행스님만이 할 수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3 상담에서 퇴마까지 실제로 사용한 강의로 배우면 누구나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제행스님 직접강의 및 퇴마, 사주, 작명, 예약상담과 출장퇴마 합니다.
책 구입 : 농협 552-01-047918 비룡정사 (정가 13,000원)

● 개 강 : **6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4회 과정)**
◇참가비 : 200만원 (정원 5명 선착순. 통화 후 접수)
특전(1) : 수강생 전원에게 1회씩 무료출장 퇴마해 줌으로 해서 배운 되로 하면 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겠습니다.
특전(2) :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퇴마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 지방 참가자를 위한 2일 단기집중 강의 과정 신설
◇개 강 : **6월 2일 월요일부터 2일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개인지도 수시모집 : 퇴마 심리상담. 사주(기문둔갑). 작명)

장 소 :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3-6번지 아크로타워 (주차가능)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전 화 : 011-772-4606 제행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염불선은 불교 수행의 근본사상

청화사상연구회, 5월 22일 세미나 열고 염불선 전통 집중 조명

조준호 "초기불교선 염불이 선정"
최동순 "청화 스님 천태사상 반영"
박경준 "선과 염불 회통해야 발전"


조준호 연구원


최동순 연구원


박경준 교수

서산 대사도 '염불이 곧 참선이요 참선이 곧 염불' 이라고 하며 염불수행을 권장했다. 역대 선사들은 선과 염불을 함께 닦을 것을 권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부터 선불교 중심의 한국불교에서 염불은 노인이나 하근기 중생의 타력신앙으로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염불만 해도 성불한다' 며 염불선을 주창한 청화 스님은 근대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청화 스님의 염불선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청화사상학술세미나가 청화사상연구회 주최로 5월 23일 동국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의 '초기와 부파불교에 나타난 염불과 선' , 최동순 불교학술원 연구원의 '청화 스님의 천태교관 이해' ,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대지도론〉에 나타난 대승의 염불과 선' 등이 각각 발표됐다.

먼저 조준호 연구원은 "초기불교나 이후의 부파불교에서 염불과 선정은 별개의 행법으로 출발하거나 전개하지 않았다" 며 "초기불교나 부파불교는 선정 속에 염불이 있고, 염불 속에 선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처음부터 양자는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고 '염불의 선' 인 염불선이 행해졌다" 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이는 염불선의 청화선사 또한 부단히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전적을 비롯한 수많은 경론에서 염불선의 근거와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며 "특히 부파불교 오정심관(五停心觀) 중 염불관(念佛觀)이 선정수행에 위치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대승의 주류 부파인 중관이나 유식에서도 이는 변함이 없다" 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초기불교나 부파불교, 대승불교에서는 붓다를 진리체(眞理體)로 보며 그 자체로 실상이기에 염불선은 '실상염불선' 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간화선 중심의 한국불교에서 예외적으로 청화선사에 의해 강조된 염불선은 불교의 근본선이며 이는 시대적 지역적 그리고 종파적 한계를 뛰어넘은 면모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최동순 불교학술원 연구원은 "청화 스님은 상하근기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수행을 위해 염불선을 주창하고 여기에 천태종교의와 실천론 역시 비중있게 수용하였다" 며 "특히 유심정토론과 본시성불론, 그리고 일심삼관의 관심법 수용이 뚜렷하다" 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청화 스님은 화두참선을 전문수행자의 몫으로 여겼으며, 이는 대중불교운동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스님은 천태종 원돈교판을 참조해 차제행을 수용했다" 고 예를 들었다.

최 연구원은 "스님은 우리 몸에 두루 법신이 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천태종, 특히 사명 지례의 사상과 연관돼며 임종 이후 다른 세상에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염불 중 견불한다는 유심정토사상으로 이어진다" 며 "청화 스님의 지향인 원통불법과 그 실천인 실상염불은 천태종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대중불교 구현이 목표였다" 고 말했다.

박경준 교수는 "한국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선과 염불은 가장 일반적인 수행 전통을 형성해왔다" 며 "청화 스님은 은사인 금타 스님의 〈보리방편문〉 가르침에 의거해 선과 염불의 전통을 하나로 회통하고자 했다" 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수행법을 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바로 염불선이라며 현대 불교계가 이러한 수행법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개청 15주년 기념식에 이어 단체 헌혈에 나선 문화재청 직원들의 모습. 문화재청은 각 국별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문화재청 개청 15주년… 자정 · 결의 다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문화재청이 개청 발족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문화재 관리 및 보수 부실에 관련한 자정 · 결의 다짐과 분위기 쇄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개청 15주년 기념식과 자정 결의 다짐 △직원 헌혈 봉사 △각 국별 봉사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티벳 불교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이종복 박사,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강조



후기 대승불교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티벳불교. 막연하게 생각했던 티벳불교의 전통을 상세히 설명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5월 22일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이종복 美스턱턴대 교수〈사진〉를 초청해 '종파로 보는 티베트불교' 를 주제로 5월 열린논단을 개최했다.

이날 이종복 교수는 "티벳 불교는 인도 불교의 전기 전파 시기인 600년에서 850년의 1기와 850년부터 100년간 파편의 시대로 불리는 2기, 950년부터 1250년까지 인도불교의 후기 전파 및 신역이 진행된 부흥기, 이후 1450년까지 황금기로 나눌 수 있다" 며 "후기 까담빠의 형성을 시작으로 까규빠, 사까빠, 조낭빠, 신까담빠 등이 형성됐다" 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각 종파는 엄격한 계율, 밀교 요가 전승 등에 차이가 있음을 들며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노덕현 기자

"연기 사상, 시대와 지역마다 달리 변화했다"

〈불교학연구〉 38집, '연기사상의 성립과 전개' 눈길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최근 펴낸 〈불교학연구〉 38집 주제인 '연기사상의 성립과 전개' 는 연기에 대한 총체적인 조명과 연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학술집에서는 원과 스님의 '고따마 붓다의 정각과 12연기' 를 시작으로 박창환 금강대 교수의 '구사론주 세친(바수반두) 연기관의 연속과 불연속' , 남수영 동국대 박사의 '용수와 길장의 연기설과 중도설' , 차상엽 금강대 박사의 '연기와 공성 그리고 여래장에 대한 티벳 주석가들의 상이한 이해' 등 붓다 재세 시부터 이후 불교사 발전에 따른 교학적 이해와 관점의 변화, 발전, 흐름을 담았다.

먼저 원과 스님은 '고따마 붓다의 정각과 12연기' 에서 12연기가 대표성을 갖지만 그 보완을 4성제가 하고 있음을 〈城喩經(Nagaropamasurtra)〉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원과 스님은 "붓다의 정각은 두 단계로 이줘지는데 첫째는 여리작의하는 동안 연기법에 대해 여실하게 현관하는 단계, 둘째는 그 현관한 것을 4성제의 틀에 적용시켜 새로운 다르마로서 여실지견하는 단계" 라고 설명했다.

붓다의 정각을 개인적 해탈체험에 제한하지 않고 중생구제와 관련된 진리의 발견으로 간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남수영 박사는 '용수와 길장의 연기설과 중도설' 에서 인도 중관파와 삼론종의 연기설과 중도설에 대하여 각각의 대표적 학자인 용수와 길장을 중심으로 살폈다.

남수영 박사는 "중관파의 비유비무 중도와 삼론학의 비공비유 중도는 표현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그 근본사상은 같으며 시대상황에 따라 표현 형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이라며 "용수는 연기인 사물들을 불일불이(不一不異)라고 설하지만, 길장처럼 불이(不二)를 더 강조하지는 않으며, 연기인 사물들이 상즉(相卽)이라고 설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용수와 길장의 차별성이 발견된다" 고 설명했다.

'연기와 공성 그리고 여래장에 대한 티벳 주석가들의 상이한 이해' 를 발표한 금강대 차상엽 교수는 "티벳불교 초기 전파시대 티벳인들은 공성을 유식의 교의로 '타공' 으로, 또 연기를 바탕으로 '자공' 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자공' 과 '타공' 에 대한 이해 차이가 둔황에서 출토된 초기 티벳사본의 학설강요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차 교수는 "여래장 자체가 공(空)이 아니라, 번뇌가 바로 공" 이라며 "이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반야경 이래의 정의와 상호연결된 개념" 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또 "인도와 티벳에서는 연기와 공성, 그리고 여래장에 대한 이해가 각 시대에 따라서, 각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 결론지었다.

노덕현 기자

대 · 소승 '일심' 연관관계 고찰

금강대(총장 정병조) 불교문화연구소는 5월 27~28일 이틀간에 걸쳐 '경량부(sautrantika)와 유가행파(yogacara), 그리고 설일체유부(sarvastivada)' 를 주제로 '제18회 저명학자 초청강연회 및 강독회' 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는 권오민 교수(경상대학교 철학과)를 사회로 27일에는 경량부와 유가행파와의 친연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 혹은 선입견과는 달리, 불교연구의 현주소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을 진행한다.

또 28일에는 그동안 검토되거나 연구되지 않았던 경량부의 '일심(一心)' 과 함께 유식학파의 '알라야식' 의 관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권탄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경량부의 '일심' 에 관한 연구는 '알라야식' 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거나 적어도 이 사상이 '알라야식' 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것" 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041)731-3026

노덕현 기자

영암 월출산에 고려 초 삼층 석탑 · 석등 발견



전남 영암 월출산 사자봉 부근에서 고려시대 초기로 추정되는 삼층 석탑과 귀부형 석등〈사진〉이 발견됐다. 5월 20일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영암문화원과 합동조사팀을 꾸려 지난해부터 월출산에 존재하는 비지정 문화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높이 6m, 기단 넓이 3m의 거대한 삼층 석탑을 발견했다. 발견된 위치는 천황봉 동남쪽 1300m(해발 550m) 능선 330㎡가량의 평탄한 곳으로 무위사 삼층석탑(946년) 및 용암사지 삼층석탑(1006년)과 그 양식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삼층 석탑은 무위사 석탑 등과 달리 매우 크고 웅장하며 평탄하게 흘러내리는 산등성이에 하나의 봉우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공원사무소는 설명했다.

김승희 소장은 "삼층 석탑이 허약한 국토의 지세를 다스리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비보탑(裨補塔)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고 추정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6월 30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7월 1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6월 9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육당의 지리산 여정을 다시 돌아 보다

종걸 스님 비롯 불자들, 육당 최남선 〈심춘순례〉 재발간


종걸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과 심춘순례 회원들의 2013년 10월 송광사 순례 모습

3 · 1운동의 시발점이 된 기미독립선언의 기초자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에 의해 친일파로 낙인을 찍혔던 육당 최남선의 진면목이 새롭게 밝혀졌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석전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 중 육당 최남선이 지은 〈심춘순례(尋春巡禮)〉 원본을 발견해 〈심춘순례(尋春巡禮)〉 독서 모임인 심춘독회(尋春讀會) 회원들과 함께 자료집으로 펴냈다.

〈심춘순례〉는 육당 최남선이 조선불교초대교정을 지낸 석전 박한영 스님(1870-1890)을 모시고 1925년 3월 28일부터 50여 일간 호남과 지리산 일대를 여행하면서 '한도인(閒道人)' 이란 필명으로 시대일보에 순례기를 연재해 1년 후 전반부의 기록을



모아 펴낸 책이다.

이 책의 속표지에는 '이 작은 글을 석전 노사에게 드리나이다' 라고 씌여 있다.

이들은 8개월 간 매주 1회 독회를 하며 육당의 여정을

석전 박한영 스님에게 봉헌한 책
미발표 자료 찾기 과제로 남아

따라 답사하면서 선운사, 백양사, 송광사 등 1920년대 호남지역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200여장의 사진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했다. 특히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어려운 한문 원전과 한시, 불교용어등 읽기가 어려운 원본을 쉽게 풀어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심춘순례〉는 육당이 직접 걸어다니며 모악산과 변산을 비롯해 백암산, 내장산, 조계산, 무등산을 횡단하며 우리 산하와 문화, 삶의 모습을 그림을 보듯 생생하게 표현하고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우리의 민속신앙과 옛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표현하고 있다.

종걸 스님은 "석전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이 책을 접하게 됐으며 이번에는 아쉽게도 50일의 일정 가운데 전반부인 28일간만 있어 미발표된 후반부를 찾는 일은 숙제로 남겨졌다" 며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을 여행하며 쓴 글이어서 더욱 관심이 갔다"고 말했다.

심춘독회 회원들은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을 비롯해 JTV전주방송 손성국 PD, 김승대 전북도 문화재위원, 김진돈 전 라금석문연구회 회장, 서홍식 한국서도협회 회장, 이문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관, 이종호 신아출판사 상무 등으로 구성됐다.

심춘독회는 향후 육당 최남선이 미발표한 자료를 수집해 추가 자료집으로 엮을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팽목항 법당에서 기도정진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맞은 5월 15~16일 진도 팽목항에서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의 귀환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법만 스님을 비롯해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 미소사 주지 종범 스님, 도솔암 진용 스님, 군산 관음사 도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선운사, 관음사 불자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진용 스님의 집전으로 천수경과 금강경 봉독에 이어 관세음 정근을 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귀환을 염원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공업중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의 탓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다"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팽목항 법당에는 희생자와 실종자의 가족들만을 위한 법당이 별도로 마련돼 조계종 호남 5개본사에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13~14일 대흥사, 15~16일 선운사, 17~18일 백양사가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다.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은 "희생자 가족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이다" 며 "하안거 결제로 인해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쳐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많은 스님들이 기도에 동참해주시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스님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계 5 · 18추모행사 다채롭게 진행

5 · 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기 위한 불교계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사)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는 지난 5월 18일 5 · 18국립묘지에서 '5 · 18민중항쟁 희생자 영령을 위한 영산대재' 를 공식기념식에 이어 진행했다.

이날 전통불교영산회는 30여 회원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시련, 대령, 관욕, 식당작법, 영산작법, 시식,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월인 스님은 인사말에서 "매년 5 · 18희생자를 위한 영산대재를 봉행하지만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의 마음을 더 보탰다"며, "국가권력과 관리의 잘못으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 도 5월 17일 5 · 18구묘역(최초 희생자들이 암매장된 묘역)에서 참배객들을 위한 주먹밥 나누기 행사와 제7회 작은음악회 및 해원굿 행사를 개최했다.

주먹밥 나누기는 1980년 5 · 18당시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싸우는 시민군에게 주먹밥 식사를 나눠줬던 의미를 담아 이날 묘역을 찾은 참배객에게 나눠주는 행사이다.

이어 진행된 작은음악회에는 박양희 씨의 진행으로 노래(주하주, 오영묵, 김영학, 전영규, 강숙향, 주권기)를 비롯해 스쿨밴드, 소리꾼(이병채, 황연수, 김영희), 시낭송, 소설가 공선옥, 푸른연극마을, 씻김굿, 한겨레평화의나무합창단 등이 출연해 5 · 18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도 작은음악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구묘역에서 천도기도를 봉행했다. 지역단은 매월 1회씩 구묘역을 찾아 천도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도 23일 광주원각사에서 '5.18민중항쟁 제34주년 추모법회' 를 봉행했다. '생태적 대안사회의 모색, 공동체운동' 이라는 주제로 유정길 법사(에코붓다 대표)의 초청발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행사에는 행법스님, 오재일 5.18기념재단이사장의 추모사와 박양희, 원곡사합창단의 초모노래, 김희용 목사의 추모시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5 · 18국립묘지에서 열린 영산대재 모습.

제 17회 6 · 25 호국영령 합동추모재

6월 1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리산 견불사(주지 보덕)는 제17회 6 · 25 호국영령 합동추모재를 개최한다.

견불사 호국영령 추모문화제는 1997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다. 행사는 추모의식과 역사교육을 겸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견불사는 "지역행사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각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 이라며 "호국영령들의 가신 뜻을 되세기고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전후세대들의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논산 대정요양병원과 산 · 학 협약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5월 23일 정병조 총장, 서문성 산학협력단장, 장민호 교학지원처장외 관계자 3명이 논산 대정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산 · 학 협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강대 학생들의 사회복지 실습처 제공 및 교직원과 학생의 진료지원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요양병원 구성원의 직원교육, 자문, 학술행사, 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등 두 기관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금강대 정병조 총장은 인사말에서 "금강대 학생들이 최근 국 · 내외에 많은 교육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학생들의 의료서비스가 취약하였으나, 금번의 협약체결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봉사의 장을 마련하여 매우 감사하다" 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평화통일 토론회 및 발원정진

5월 23~24일 월정사서 평화발원문 봉정, 각계 서한 발표도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성지인 오대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토론의 장이 열렸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단장 진관)은 5월 23~24일 평창 월정사에서 '통일 한국의 정체성- 불교에 평화통일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통일 이후의 국가정체성을 내다보고 바람직한 통일과정 전개와 주변 열강과의 합리적 관계 유지, 정부와 국민의 준비와 그 자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첫날 토론회에서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바람직한 통일국가 완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반을 둔 남북연합체제 수립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및 미국과 중국 간에 체결해 단일 민족경제 수립을 통해 북한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어 "서독의 통일에서부터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을 배레하고 제한없는 민간교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우리 사회는 가장 먼저 종북몰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사회세력으로 이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북 연세대 명예교수는 "통일은 물류에서 시작되며 이를 계기로 일어나는 정보이동과 인간이동의 확대는 북쪽의 세습집단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의 입지를 다진 햇볕정책의 오류를 절대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북 명예교수는 "절대빈곤은 오히려 이들 세습집단의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인도적 지원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삶과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이어 둘째날에는 '한반도 평화발원 정진' 으로 오대산 적멸보궁 108배 정진,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주 선묵 혜자 스님의 한반도 평화 발원문 봉정, 각계에 보내는 서한 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광주박물관 솟대만들기 전통문화공방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5월 17일과 24일 총 2회에 걸쳐 솟대에 담겨있는 조상의 정신을 되새기고 잊혀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자 '전통공방, 미니솟대 만들기' 를 개최했다.

이번 솟대만들기 공방엔 60여 명이 가족 단위로 참석했다.

솟대는 삼한시대의 소도 유풍으로서 원래 긴 장대 끝에 오리 모양을 깎아 올려놓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간(神竿) 역할을 하여 화재, 가뭄, 질병 등 재앙을 막아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세우던 전통적인 조형물이다.

광주박물관 관계자는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조상들의 정신적인 지주의 하나였던 솟대를 만들어봄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최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 불심으로 가꾼다

부산 원오사 '꿈나무공부방' 개소식



원오사가 5월 20일 반송 2동에 꿈나무 공부방을 개소했다. 앞으로 꿈나무 공부방은 지역아동 ·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주는 보금자리가 될 것을 약속했다.

부산 반송 원오사(주지 정관)가 지역아동 ·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주는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6년 동안 아이들 공부방을 운영해오던 원오사가 5월 20일 반송 2동에 꿈나무 공부방을 개소했다. 청소년 포교를 겸해 만들어진 꿈나무 공부방은 학습공간은 물론 탁구장, 다도실, 청소년 명상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목종스님, 최동호 명정장학재단 이사 등 30여명의 내빈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정관 스님은 "아이들에게 큰 꿈을 이루라 하지 않는다. 그저 공양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이 쌀 한 톨의 노고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바른 사람이 되길 원한다.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주지 정관 스님은 6년 전 은사스님인 원오사 회주 명정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 선원장)의 "도심 속에서 포교에 힘쓰라"는 가르침을 받들어 포교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해운대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배덕광)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인 '방과후든솔아카데미' 에 참여중인 저소득가정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후 방과후 공부할 곳이 없어 난감해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3일 밤낮의 고민 끝에 학생 15명을 사찰로 불렀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수학, 영어 등 다양한 자원봉사 선생님을 섭외해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학습지도 및 교육비 지원
청소년 인성교육도

그러나 스님의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해 떠난 아이들과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생겨났고, 결국 학생 6명만이 남았다. 하지만 정관스님은 포기할 수 없었다. 좀 더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틈이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로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 '인성' 과 '학습' 에 대한 중요성을 당부하며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4개월 정도 지나자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원오사 신도들 역시 어두웠던 아이들이 눈에 띄게 밝고 희망차게 변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관스님과 신도들의 따뜻한 애정이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맺은 커다란 결실이었다.

이후 원오사는 지난 2011년 12월 재단법인 '꿈나무 가꾸기 명정장학재단(이사장 정관)' 을 마련했다. 매년 3~4명의 중학교 신입생들을 선발해 졸업 때까지 지원한다. 이곳은 여러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함께 체계적인 학습과 인성교육을 이끌고 있는 장학재단이며 학생들의 교육비도 지원해준다.

현재 원오사의 꿈나무 공부방에는 10명의 든솔아카데미 중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주지 정관스님의 인성교육과 수학, 영어, 과학 등 주요 학습이 진행되고, 학생들은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난 후부터 밤 10시 반까지 스님 및 선생님들과 함께 원오사에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꿈나무공부방 개소로 최대 29명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학생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꿈나무 공부방에 참여하고 있는 운송중학교 이동훈(16)군은 "정관 스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 며 근면함을 당부하신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원오사 공부방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더욱 더 뿌듯하다"고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민추본, '도담도담' 후원 통일쌀 경작

5월 25일 부산서 모내기 행사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가 부산 마하사(주지 진효), 구미 도리사(주지 묘장)와 함께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을 위한 '통일쌀 경작사업' 을 진행했다. 민추본은 5월 25일 부산 강서구 부산 마하사 통일쌀 경작지에서 모내기 행사를 열고 통일쌀 경작의 시작을 알렸다.

민추본은 "통일쌀 경작사업은 사찰 소유의 땅에서 지역 농민 등과 함께 수확한 쌀을 북녘 동포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부산 마하사와 구미 도리사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수확된 쌀 수매 이익의 일부분을 민추본에서 진행하는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도담도담' 에 후원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부산 마하사 통일쌀 모내기 행사는 부산 마하사와 민추본, 그리고 (사)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상임대표 이정이, 이하 부산겨레하나)가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마하사 주지 진효 스님(민추본 사무총장), 부산겨레하나 김재하 공동대표(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부산여성회 장선화 부대표 등이 참석해 모내기 행사에 동참했다.

부산 마하사-구미 도리사
쌀 수입금 北 영양식 지원

한편,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은 영양결핍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북녘의 아이들을 위해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민추본과 (재)아름다운 동행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연중 다양한 모금캠페인으로 후원금을 모아 연내에 북녘 어린이들에게 구충제와 수액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02)720-053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진실된 마음모아 기도 정진

보리선수 부산약사선원… 약사여래불 가피대법회

티베트 밀교 수행법을 전파하는 보리선수 부산약사선원(주지 법생)이 현대인의 심신 치유를 위한 '제4회 약사여래불가피대법회' 를 5월 21일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봉행했다.

보리선수 부산약사선원은 "지금까지 많은 분이 약사여래불가피대법회에 오셔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느끼셔서 올해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대법회를 진행하게 됐다" 고 전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주지 법생 스님의 설법 이전에 보리선수 약사선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됐으며 약사선원에서 기도정진하고 있는 수행자들의 체험담이 이어졌다.

주지 법생 스님은 "이곳까지 귀한 걸음을 옮기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신도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것은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처님의 가피를 발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가피대법회에는 50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했으며 법생 스님의 참가자들에 대한 축원이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보리선수 부산약사선원은 5월 21일 벡스코서 현대인의 심신치유를 위한 '약사여래불 가피대법회' 를 열었다.

고통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해피스님 니까야 '마음특강' 6주 진행


해피 스님 부산 법계정사 특강 장면

한국테라와다불교 해피법당(선원장 뿐냐디빠) 해피스님(뿐냐디빠)이 6주 동안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근본경전인 니까야를 바탕으로 '마음특강' 을 진행한다. 이에 해피 스님은 5월 21일 부산 법계정사에서 '마음특강' 의 첫 시작을 알렸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명확한 길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 좀 더 정확하고 고차원적인 내용으로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강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수업에 참가한 김법영(54)씨는 "불교 공부를 한지 8년이 넘어간다. 니까야는 아무래도 한문 번역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불교 교리이므로 명쾌하고 왜곡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해피스님의 강의를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피스님의 니까야 마음 특강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 남산 대원정사 보리원에서 매주 목요일에 △대구에서는 참여불교 대구경북 재가연대에서 매주 화요일에 △부산에서는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저녁 7시 반 총 두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별도의 수업료는 없으며 교재는 해피스님이 직접 제작한 무료교재가 사용된다. (02)374-4745

김나영 객원기자

제4회 효사랑 글짓기 · 그림 공모전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6월 1일~30일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6월 1일~30일 한 달간 부산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제4회 효(孝)사랑 글짓기 · 그림 공모전' 을 실시한다.

공모대상과 주제는 △초등부 1~3학년(그림)-부모님과의 행복했던 시간 △초등부 4~6학년(포스터)-과거와 현대사회의 효 △중 · 고등부(글짓기)-내가 바라는 효, 내가 생각하는 노인학대(중 택1) 등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반영된 작품이면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부산시장상, 부산일보사장상, 국제신문사장상, KBS사장상, KNN사장상,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 노인보호전문기관장상이 초 · 중 · 고등부 각 한 부문씩 수여된다. 자세한 안내 및 공모방법은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bs1389.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1)468-8850


효사랑 글짓기 지난해 행사 장면

정혜숙 기자

마하연 투어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만났네

미얀마 양곤 5일 879,000원 (모든 경비 일체 포함)

은둔의 나라 라오스 순례 5일 1,290,000원 (모든 경비 일체 포함)

대만 불광사 공승제 5일 1,190,000 8월 16일 (조기마감 임박)

출발 가능한 순례상품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950,000	6월 28일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황룡	6일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1,440,000	7월 8일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440,000	7월 2일, 7월 9일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6월 27일

여름방학 출발 순례상품

미얀마 양곤/바간/헤호	5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요금문의
은둔의 나라 라오스	5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9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금빛 휘광을 두른 제주 일출 제일 명소



성산일출봉은 제주는 물론 세계의 큰 유산이 됐다. 그 중턱에 자리한 사찰이 바로 동암사다. 드넓은 잔디밭에 좌대를 튼 동암사는 성산일출봉을 찾는 불자들이 참배하기엔 더욱 안성맞춤이다.

제주의 사찰을 찾아서 - ② 성산일출봉 동암사

"동으로 일출봉이 우뚝 솟아 천하 절경을 만들었고, 서쪽으로는 말미오름을 안산으로 삼았도다. 그 가운데 성지가 있으니 그 이름이 일출봉 동암사이다. 좌우에는 바다 건너 우도(牛島)의 십경(十景)은 수리(數里)에 끊었고, 남으로 기울어진 섭지코지는 신양(新陽)의 동리를 몇 번이나 둘렀으니 규봉의 허리가 돌을 기대 얹고 태평양의 넓은 바다가 구름을 흔들도다."

〈일출봉 동암사 대웅전 상량문 중에서〉

성산일출봉 정상에 섰다. 짭조름한 바다바람과 제주 해녀들의 숨비 소리가 온몸을 휘감는다. 애달프게 느껴진다. 외지인들에게 늘 손짓하던 신비의 섬,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리던 미지의 세계는 소처럼 온순하게 반겨준다. 그 아래로 펼쳐진 한가로이 늘어선 고기잡이 배,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들, 그리고 봉긋하게 솟아오른 우리네 어머니를 닮은 오름들, 그리고 상업화 관광에 그 아름다움이 훼손 돼버린 섭지코지 등 그 모두를 감싸안은 성산일출봉은 제주의 아니 이제는 세계의 큰 유산이 됐다. 제주 영주십경(瀛州十景) 중 최고봉인 성산일출봉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 거대한 분화구가 초원을 이루고 있다. 분지 둘레에는 한라산 아흔아홉골의 기암괴석 같은 99개의 작은 봉우리들이 빙 둘러섰다. 마치 좌불 정좌해 선정에 든 선승처럼 기개가 느껴진다. 매년 연말 열리는 '성산일출제'에는 도민을 비롯해 수많은 관광객이 일출봉으로 모여든다. 그 중턱에 자리한 사찰이 바로 '일출봉 동암사(주지 진철 스님)'다.

뾰족히 솟은 성산일출봉의 기암괴석이 동암사를 외호하는 신장처럼 가람을 수호하는 형국이다. 드넓은 잔디밭에 좌대를 튼 동암사는 성산일출봉을 찾는 불자들이 참배하기엔 더욱 안성맞춤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 기슭에 처음 절이 창건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4월에 건립된 일광사(日光寺)였다. 이후 동화사, 일출사, 경봉사 그리고 동암사 등 몇 차례 개명돼 오늘에 이른다. 창건 배경을 보면 이 마을에 살던 김기옥 씨가 절터를 마련하고, 창건주인 기산옥(법명 자선화) 씨가 남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신도들의 후원으로 첫 불사가 이뤄졌다.

성산일출봉 기암들 신장처럼 가람 수호
1934년 일제강점기 창건…수차례 개명
지역 토속 문화와 결합된 자취 곳곳에

조선총독부 관보기록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일출사는 1937년 5월 1일자로 '조선사찰 대본산 위봉사 성산포 포교당'으로 처음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후 1943년에는 '조계종 대본산 백양사 성산포교당'으로 변경, 등록됐다. 창건 당시 초대 최진수 스님이 주지를 맡은 후 몇 차례 스님들이 성산읍 지역 포교에 앞장서 왔다. 법당 건물은 창건 당시에는 초가에서 함석지붕으로 여러 차례 중창됐다. 이후 1967년 부임한 영봉 스님이 대웅전을 중건했고, 1970년 11월에는 경봉사서 동암사로 사명을 등록했다. 현 가람은 지난 1989년 부임한 진철 스님이 1999년부터 불사를 착공, 2002년 4월 도량을 새롭게 정비해 낙성식을 거행했다.

이처럼 동암사가 일출봉에 자리잡은 연유는 바다에 터전을 삼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의 애달픈 삶의 애환과 밀접하다.

제주지역은 도서지역의 특성상 한라산 산신과 해안으로 둘러싸여 용왕기도가 성행했다. 용왕대신에게 자신의 삶과 안전을 기원했고, 바다로 고기잡이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손이 닳도록 빌었다. 섬 지역 특성상 거친 땅, 거친 파도를 이겨내야 했던 제주민초들에게 석가모니부처님 이후 도래하는 미래세 부처님인 '미륵사상'은 절대적 의지처가 됐다.

용왕대신을 향한 발원 또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험한 세상에서 희망을 위한 하나의 뗏목이었다. 그래서일까. 동암사 신도들 가운데는 해녀들이 많았다. 매년 열반재일 기간에 용왕기도를 하며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하지만 이는 타 지방의 방생법회와 의미가 좀 다르다. 제주 민초들은 2월 초하루면 영등신이 제주바다를 찾아, 새로운 씨앗을 뿌려주고 떠난다고 믿었다. 동암사의 방생법회는 해산물의 씨앗을 바다에 뿌리는 믿음에 근간을 두고 있다.

성산일출봉=제주불교 이병철 기자



미륵부처님을 모신 동암사 전경

주지 진철 스님 인터뷰
"제주 지역 토착문화와 연계된 템플스테이 추진"



"동암사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많이 간직한 사찰입니다. 그래서 참배객들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문화는 물론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도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진철 스님은 야심찬 각오를 피력했다.

스님은 이어 "동암사를 찾는 해외관광객중 중국인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미륵불로 추앙받는 포대화상을 조성하는 한편 성산일출봉이 지난 2007년 세계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2012년에는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만월해수관세음보살상과 석가모니불을 칠보개금해 새로 봉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스님은 "제주굿에 상징성과 의미를 불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사라져가는 제주의 무속과 습합된 제주지역 불교만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며 "우도 · 섭지코지 올레길 주변의 당문화와 연계된 템플스테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기자

여행수첩

〈주변 가볼만한 곳〉

▲**우도**=종달리 해안가서 바라보면 마치 소 한 마리가 누워 있는 형상을 한 섬이 보인다. 종달리에서 약 2.8㎞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 속의 섬 우도(牛島)다. 소의 허리처럼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섬에서 가장 높은 132m의 우도봉에 오르면 아기자기한 우도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영화 〈화엄경〉이 여기서 촬영됐다.

▲**섭지코지**=섭지코지가 시작되는 지점인 신양해수욕장에서부터 바다로 뻗어나간 길이가 약 2㎞에 이른다. 풍광이 빼어나 제주도서 영화나 드라마 배경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곳이다. 영화 〈단적비연수〉 〈이재수의 난〉을 비롯해 드라마 〈올인〉 등이 섭지코지서 촬영됐다.

〈맛집〉

▲**성산포 '문어라면'**=문어라면은 영화배우 이병헌 씨도 그 맛에 반했다고 할 정도다. 064-782-2671

▲**해오름식당**=전복죽과 갈치요리가 이 집의 대표적인 메뉴다. 064-782-2256

〈숙소〉

▲동암사 신도들이 운영하는 쏠레민박(064-784-1688), 푸르미르펜션(064-784-1472)이 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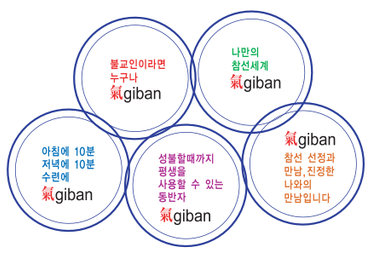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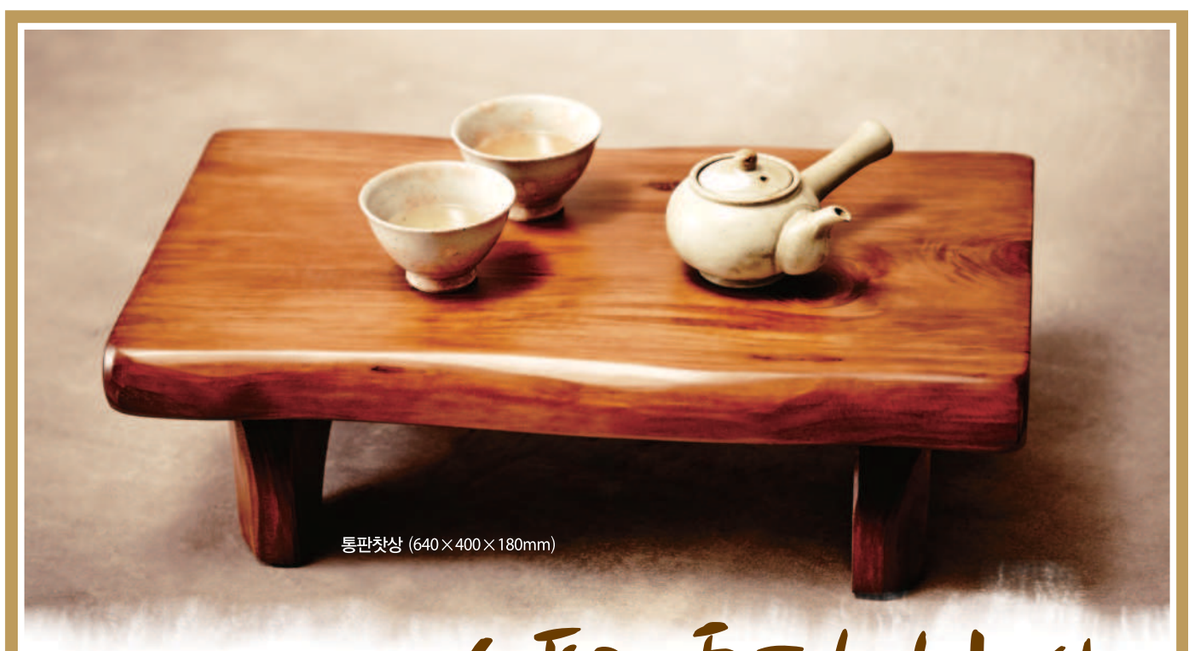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겨움을 담은
수풀림 통판찻상

100% 국내제작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찻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입금계좌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정가 150,000원~~ 할인가 90,000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숯침대(주)
www.supullimbed.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

탑의 진화

⑪ 앙코르의 유적(1)

우주의 모형 석조 건축물로 조성

'앙코르' 라는 말은 범어로 도시를 뜻하는 '나가라(Nagara)에서 노코르(Nokor)-옹코르(Ongkor) - 앙코르(Angkor)로 음운 변화한 것이다. 이처럼 도시라는 의미의 앙코르는 약 천이백년전에 크메르인에 의하여 수백 개의 사원과 탑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긴 세월동안 역사에서 사라져 밀림 속에 방치되었다가 근세에 알려져 앙코르 왓, 프놈바게임, 앙코르 톰, 바이욘, 바푸온, 코끼리 테라스, 문둥왕 테라스 등 수십 개의 유적이 현재 복원되었거나 복원중에 있다.

앙코르의 유적은 8세기부터 14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으나, 건설 주체자의 신앙 형태에 따라 다양한 사상으로 표출되었다. 왕들의 개인적 신앙에 따라 브라만 사상에 입각한 사원, 왕궁, 무덤 등의 용도로 조성되었으며, 때로는 불교 신앙에 입각하여 사찰과 불탑의 용도로 조성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선대왕이 브라만교 사원으로 조성한 것을 후대왕은 불교사원으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또 다시 힌두교 사원으로 사용한 예도 있다.

세계7대불가사의 중의 하나로까지 표현되는 '앙코르 왓' 을 비롯한 위대하고 거룩한 앙코르 의 많은 유적을 바르게 이해하기위해서는 앙코르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간략한 앙코르의 역사를 살펴보자.

802년에 자야바르만 2세는 앙코르 왕국을 건설하고, 877년 인드라바르만 1세는 자신과 부모를 위한 사원과 브라만 신화의 상징적 치수의 의미를 가진 저수지 등 3대 건축업을 완성한다. 889년 야소바르만 1세는 인드라타타카 저수지의 인공섬에 롤레이를 건립하고, 1011년에는 철권통치로 절대 왕권 시기를 시작한 수리야바르만 1세에 의하여 앙코르 톰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033년에는 더욱 강력한 중앙통치를 실시한 수리야바르만 2세에 의하여 앙코르 와트 건립이 시작 되었다. 1181년에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자야바르만 7세가 즉위하여 마침내 앙코르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여 앙코르 톰을 구축하고, 바이욘 사원을 건립한다. 또한 그는 지극한 효성을 발휘하여, 어머니를 위한 따 프롬, 아버지를 위한 쁘레아칸 사원을 조성하지만 그 이후 앙코르는 퇴락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자야바르만 8세는 힌두교를 신봉하여 집권하면서 앙코르 톰 일대와 따 프롬 등의 모든 불상을 훼손하고 불교관련 부조를 파괴한다. 자야바르만 8세의 악업에 대한 과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1431년 앙코르 왕국은 아유타야 왕국에 의해 멸망하며, 수십만에 달하던 앙코르인들이 1년 만에 역사 속에서 모두 사라져 훼불에 대한 과보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한편 앙코르 왕국의 왕들 중에는 자야(승리), 인드라(전쟁신)등의 단어 뒤에 '바르만' 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데 이는 '보호를 받는 사람!' 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바르만들은 앙코르에서 자신의 신앙적 표현의 건축물을 경쟁하듯 조성하였다.

1) 앙코르 왓(Angkor Wat) 〈사진1〉

'도시의 절' 이라는 의미의 앙코르 왓은 수리바르만 2세에 의하여 37년 동안 약 2만 5천명이 동원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건설되어 '비슈누' 신에게 헌정되었다. 이 사원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해가 지는 서쪽에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고대 인도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불교에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즉 사후세계의 극락은 서쪽에 있다는 아미타 사상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앙코르 왓은 수리바르만 2세의 사후세계를 위한 영묘적 사원임을 짐작케 한다. 또한 중국의 불탑사상을 알아볼 때 자세히 거론되겠지만 '황제가 곧 부처님' 이라는 '황즉불' 사상이나 '왕즉불' 사상처럼 황제나 왕의 유골을 모신 영묘를 탑으로 표현한 예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바르만들은 사후에 힌두교의 여러 신과 동일시되는 관습에 따라 왕궁이나 무덤 등이 탑으로 표현되고 인식 될 수 있었다.

앙코르 왓의 전체적인 구조는 힌두교와 불교의 우주관을 모두 아우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고해의 바다를 상징하는 길이 3.6km의 직사각형 해자에 둘려 싸여 있는 중앙의 높은 탑은 우주 중심인 메루(Meru)산, 즉 수미산이며 주위에 있는 4개의 탑은 주변의 봉우리들을 상징한다. 외벽은 세상 끝에 둘러쳐진 산을 의미하고 있다.

1200년 전 크메르인이 조성
브라만, 불교 등 다양한 사상 반영
세계 7대불가사의 중의 하나

자야바르만 8세 불교배척 후
1431년 앙코르왕국 멸망하고
1년만에 수십만 앙코르인들 사라져

'앙코르 왓' 은 '도시의 절' 이란 뜻
37년 건설에 2만5천명 동원
서쪽 향하는 건 '서방정토' 와 상통

해자를 건너기 위해서는 나가(Naga)난간을 따라 250m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나가는 물에 사는 용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극락세계에 가려면 반드시 '반야용선' 이라는 용이 이끄는 배를 타야지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사찰에서 부처님을 모신 전각에는 황룡, 청룡 등 여러 용을 조성한 것이다. 앙코르 왓의 구조에서도 해자안의 중심건물이 극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를 조각하고 반야교가 있는 이유인 것이다.

이처럼 앙코르 와트는 석조 건축물로 만들어진 지상에 있는 우주의 모형이다. 따라서 앙코르와트가 지니는 신앙적 의미는 3층 중앙 탑들이 있는 곳은 천상계, 2층은 인간계, 그리고 1층은 축생계를 의미한다. 각 층은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1층 회랑에는 아름답고 정교하고 다양한 조각들이 부조되어 있다. 1층 회랑의 조각은 2m 높이에 길이는 약 600m에 달한다.

부조의 내용은 비슈누의 찬양과 수리야바르만 2세의 전쟁의 당위성을 표현함으로써 본인과 비슈누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방에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모두 여덟 가지의 주제를 표현하였다.

동쪽 출입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에 '우유의 바다 젓기' 와 '악마에 대한 비슈누의 승리' 주 출입구인 서쪽 중앙 문을 기준으로 '랑카의 전투 장면' 과 '쿠륵세트라의 전투장면' , 남쪽의 '천국과 지옥' , '역사적 행렬도' , 북쪽의 '신들과 악마의 전투' , '악마 왕 바나에 대한 크리슈나의 승리' , 가 그것이다.

지면의 한계로 동쪽의 '우유의 바다 젓기' 한 가지 예만 들어 알아보기로 한다. '우유의 바다 젓기' 는 비슈누 신에 대한 칭송의 일화이다. 비슈누 신은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신앙하는 신으로 라마와 크리쉬나,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믿는다.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타푸루나(Bhagavata-Purana)〉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옛날에 신들과 악마는 배다른 이복형제였다. 악마가 형이고 신들이 동생이었다. 그들에게도 알 수 없는 죽음의 세계는 두려움의 존재였다. 죽음을 두려워 한 신들은 메루산에 살고 있는 창조주 브라흐마를 찾아가 죽음을 극복할 도움을 청했다. 브라흐마 신은 "너희들은 비슈누 신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 하니 신들은 비슈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비슈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신들은 가서 우유의 바다를 휘저어 거기서 나온 불사의 감로수를 마시도록 하라! 그것을 마신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비슈누신이 말했던 우유의 바다를 휘젓기 위해서는 매우 큰 막대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우유의 바다가 너무 커서 그러한 막대기를 쉽게 구할 수 없었다. 비슈누는 그들에게 만다라 산을 옮겨다 뒤집어 바다를 휘저으라고 충고했다. …(중략)…

결국 독수리인 가루다에 의해 산은 무사히 우유의 바다로 옮겨졌다. 옮겨진 산을 가지고 우유의 바다를 젓기 위해서는 매우 긴 끈이 필요했다.〈사진2〉 그러자 비슈누신은 커다란 뱀인 바수키에게 그 산을 둘러싸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산을 둘러싼 뱀은 곧 바다에 빠져 버렸다. 그러자 비슈누 신은 자신이 직접 거북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 산을 등위에 올려놓고 신들과 신들의 이복형인 악마들로 하여금 바다를 휘젓도록 하였다. 천년이나 휘저은 끝에 우유의 바다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맨처음 흘러나온 것은 불사의 감로수가 아니라 바다의 불순물이 모여진 죽음의 독약이었다. 이 독약은 결국 파괴의 신인 시바가 스스로 마심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러나 시바도 그것을 마시면 죽기 때문에 그는 삼키지 않고 목에 그대로 저장해 놓았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시바의 목부분은 파랗게 물들어 있다. 계속 바다를 휘저은 신들과 악마들은 끈질기게 기다렸다.

마침내 아름다운 암소 수라비가 나타났다. 수라비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가 되었다. 다음에는 취기로 가득찬 술의 여신 비루니가 나타났다. 악마들은 그녀를 손에 넣으려 했으나 그녀는 신들을 더 좋아했다. 신들을 향한 제사의식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략)…

신들의 의사인 단완타리가 나타날 때 들고 있던 병에는 신과 악마가 수천년 동안 그렇게 갈망하던 불사의 감로수가 들어 있었다. 신과 악마들은 공평하게 나누자는 약속을 망각한 채 그들은 싸움을 벌였고 마침내 악마들이 불사의 감로수를 차지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들이 그것을 마신다면 온 세상에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비슈누신은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 모히니로 변화시켜 싸우고 있는 악마들에게 가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다.〈사진3〉

악마들은 아름다운 모히니의 모습에 넘어가 그 제안을 승락했다. 모히니는 신들과 악마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신들부터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악마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속아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악마들은 곧 그녀가 자신들에게도 불사의 감로수를 나누어 주리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그때 악마들 중의 하나인 라후가 신들 사이에 끼여 있었다. 그가 자기 차례가 되어 감로수를 마시려 할 때 태양의 신인 수랴와 달의 신인 소마가 재빨리 비슈누신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비슈누는 자신의 무기인 원반으로 그의 목을 베어 버렸다. 그러나 라후는 불사의 감로수를 삼키지는 않았으나 입으로 마셨기에 얼굴부분은 죽지 않았다. 그는 해와 달을 용서할 수 없었다. 라후는 해와 달을 삼켜 버리려고 계속 쫓아 다녔다. 해를 삼키자 너무 뜨거워서, 달을 삼키자 너무 차가워서 곧 뱉어버렸지만 라후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일식, 월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도인들은 말한다. 악마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신들 모두가 불사의 감로수를 마신 후였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들은 힘이 약해도 악마에게 이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은 창조된 존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어 다른 생명체들을 지배하면서 그들로부터 숭배와 공물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49m에 달하는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다음 호에는 앙코르의 불교유적에 있는 불탑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 1〉 '도시의 절' 이라는 의미의 앙코르 왓은 수리바르만 2세에 의하여 37년 동안 약 2만 5천명이 동원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건설되어 '비슈누' 신에게 헌정되었다.



〈사진 2〉 앙코르왓 부조, 신들이 우유바다를 젓기 위해 긴 끈으로 수미산을 끌고 있다.



〈사진 3〉 비슈누가 신과 악마를 지휘하고 있는 모습



글 · 우인보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적하수오 된 장' '적하수오 고추장'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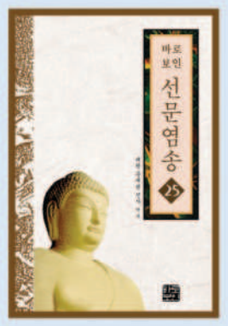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6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5권 출간!
운문, 장경, 경청선사, 부 상좌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한국의 구법승

11. 신라 밀교의 대표적인 승려 명랑 스님

사천왕사 창건… 법맥 고려까지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랑 스님은 호국불교의 선구자로 꼽힌다. 2014연등회 연등축제 당시 이런 스님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명랑법사와 사천왕사 연등.

당나라 4년 유학 후 귀국

밀교 진언으로 당군 물리쳐

사천왕사 '풀입 설화' 남아

금광사 건립에서 도력 보여

밀교종파 신인종 개창 · 보급

광학 · 대연 등 고려까지 법맥

명랑 스님은 신라 문무왕대에 활약한 밀교승려이다. 우리나라에 밀교가 들어와 자리잡는 데 명랑 스님의 공헌이 컸다. 아울러 그는 밀교 특유의 문두루비법을 써서 국난에 처한 신라를 구하기도 하였다. 신인종을 창시하여 독자적인 밀교 계보를 만들었는데, 고려조에 이르러서도 명랑 스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이었다.

〈삼국유사〉에서는 '금광사(金光寺) 본기' 라고 출처를 대며 명랑 스님의 출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명랑 스님은 신라 출신으로 자는 국육(國育)이며, 사간(沙干) 재량(才良)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남간부인(南澗夫人)이고, 자장 율사의 외조카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 그 어머니가 푸른빛 나는 구슬을 입에 삼키는 꿈을 꾸고서 태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스님은 선덕여왕 원년인 632년에 법을 구하러 당나라에 갔다가 4년 후 돌아왔는데 이때는 용왕과의 인연을 담은 설화가 전해진다.

명랑 스님이 신라로 귀국할 때인 635년의 일이다. 명랑 스님은 귀국길에 서해용왕의 청에 따라 용궁에 들어갔다.

"대사께서 지금 당나라에서 불법을 받아 신라로 가시느라 황망하시겠지만 부디 저희를 위해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용왕의 뜻이 그러하니 내 세존의 말씀을 드려드리리다."

이에 비법을 전하니 용왕이 황금 천량을 시주하였다고 한다. 명랑 스님은 보시 받은 물품을 가지고 도력으로써 몰래 땅 밑으로 와서 자기 집 우물 밑에서 솟아나왔다. 이어 자기 집을 희사해서 절을 만들고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장식했는데 광채가 빼어나게 빛났다. 이 때문에 절 이름을 '금광사' 라 했다고 전해진다. 금광사는 경주시 탑정동의 식혜곡 북쪽 기슭이라는 주장과, 나정과 남간사 터 사이라는 주장이 있다.

명랑 스님이 새로 금강사를 세우고 낙성회를 열었는데, 신라의 고승들은 모두들 모였지만 오직 혜공 스님 만은 오지 않았다. 이에 스님들이 혜공 스님을 나무랐다.

대중들을 달랜 명랑 스님이 향을 피우더니 정성껏 기도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혜공 스님이 도착했다. 이 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혜공 스님의 옷은 젖지 않았으며 신발에도 진흙이 묻어 있지 않았다. 모두가 명랑 스님이 도력으로써 그렇게 한 것라고 여겼다.

명랑 스님이 본격적으로 활약한 때는 나당전쟁 때였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제30대 문무왕 때 당나라가 백제 멸망 후에 설치한 웅진도독부를 신라가 공격한다는 핑계로 50만 대군을 보내 신라를 공격하려 하였다.

668년에 당나라 장수 이적이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그 남은 군사를 백제에 머물게 하고 장차 신라를 쳐 멸망시키려고 했다.

신라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군사를 내어 이를 막았다. 당나라 고종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 설방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장차 신라를 치려했다. 문무왕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명랑 법사를 청해 비법을 써서 이를 물리치게 했다.

당의 고종이 인문을 불러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병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하였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해하려 하니 무슨 이유이냐?" 고 질타했다. 인문은 아니라고 말 하였으나, 결국 감옥에 갇혔다.

당 고종은 곧 군사 50만 명을 훈련시키고 설방을 장수로 하여 신라를 치게 하였다. 이 때 의상 대사가 유학을 하러 당에 들어왔다가 인문을 찾아 나아가 보니 인문이 그 사실을 말하였다. 의상 대사가 곧 돌아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폐하, 지금 당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설방을 선두로 하여 군사 50만을 보냈다 하옵니다."

선덕왕은 매우 놀라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대책을 강구했다. 그때 각간 김천존이 왕에게 대책을 올렸다.

"폐하, 근자에 명랑 법사가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수하고 돌아왔으니 청하여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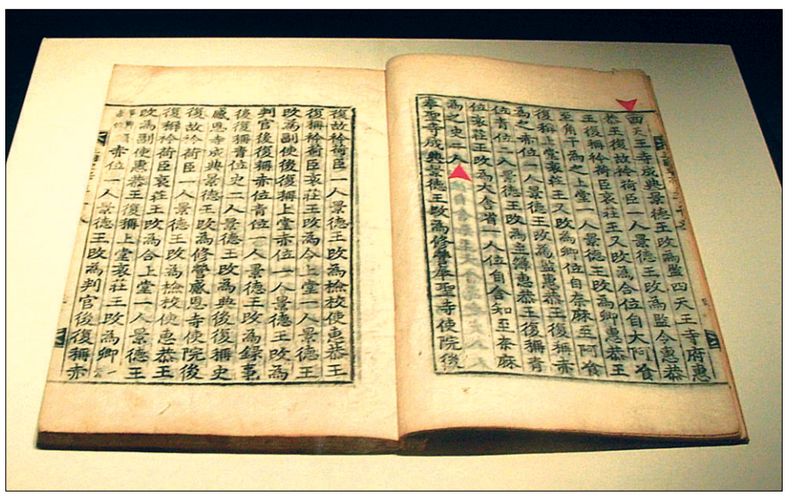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서 법사를 청하여 국난에 대비토록 하시오."

이에 명랑 스님이 조정의 부름을 받고 급히 입궐하게 되었다.

"소승, 비록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오나, 감히 저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낭산의 남쪽에 신유림이 있는데, 그 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열면 가할까 합니다. 이로써 부처님의 힘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자 하나이다."



사천왕사지에 남은 당간지주와 선덕여왕릉으로 올라가는 길 초입 모습. 도솔천 아래 자리하겠다는 선덕여왕의 말이 남아있듯 사천왕사가 자리한 남산은 신라사람들에게 도솔천으로 여겨졌다.



명랑스님의 사천왕사지 건립에 관한 내용은 삼국유사를 비롯한 곳곳에 남아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4년에 개최한 사천왕사지특별전에서 선보인 〈삼국사기〉 '직관지'

명랑 스님은 낭산에 절을 짓고 부처님의 힘을 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코앞에 닥치자 절을 완성시킬 시간이 모자랐다. 명랑 스님은 이에 관리 채백(彩帛)으로 하여금 절을 임시로 만들게 했다. 바로 낭산(狼山)의 남쪽 신유림(神遊林)에 였다. 스님은 채백으로 풀로써 오방신상을 만들어 가람 형상을 구축했다.

그 때 마침 당나라 군사들이 수군으로 바다를 건너 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명랑 스님은 임시로 비단과 풀로 절의 모습을 갖춘 뒤 12명의 스님들과 더불어 문두루비법(불교의 교파 중 밀교에서 행하는 비법으로 불단을 설치하고 다라니 등을 외우면 국가적인 재난을 물리치고 국가를 수호하여 사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함)을 사용하였다. 유가종은 밀교의 하나이며 문두루도 밀교에서 행하는 비법이다.

그러자 당과 신라 군사들이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센 바람과 커다란 파도가 크게 일어나 당나라 배가 모두 가라앉았다고 한다. 3년 뒤인 671년에도, 당나라에서 다시 조헌(趙憲)이 장수가 되어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이 비법을 베풀었다. 효과는 전과 마찬가지였다.

문무왕 19년인 679년 명랑 스님은 5년 만에 절을 다시 완성하고 사천왕사라고 불렀다. 이 사천왕사는 아직까지도 단석이 남아있다. 이 절 바로 위에 선덕여왕의 묘가 있다. 자신이 도솔천아래 묻힐 것이라 예언한 바 있는 바로 그 묘이다.

스님은 이어 밀교종파인 신인종(神印宗)을 개창했는데 그 법맥은 안혜(安惠) · 낭융(朗融) · 광학(廣學) · 대연(大緣) 등으로 이어졌다.

스님의 법맥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진다. 고려 태조 당시 해적이 침범하자 안혜와 낭융 스님의 후예인 광학 · 대연 스님이 진언으로 해적을 물리쳤다고 전해진다. 인도의 고승 용수 보살에 이르기 까지를 9조로 삼았으며 고려 태조가 이들을 위해 현성사를 세워 종파의 근간으로 삼았다고 한다. 명랑이 개창하여 안함, 혜통, 융천사 등의 대표적인 승려가 속한 신인종은 광학과 대연 대인 고려시대까지도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非暗非明의 자리가 '진짜'

새말귀(新話頭) ③

본래 그 자리가 밝은 것인데 밝은 것이 어떻게 보이나요? 뵈. 봤던 예사로 봐. 밝다는 이런 인식조차도 없어. 원래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밝은 것이 보여. 또 어두운 것이 보인다 말이지.

그러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이 자리가 진짜라 말이여. 앉을 때는 그걸 봐야 돼. 그걸 한 번 보고 싶다. 이거 보입니다. 앉았어. 캄캄한 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것을 이것을 한 번 보리라 하면 나타나는 거여. 처음에는 이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흑백으로 나타나. 그 다음에는 빛깔이 나타나. 광명도 보이고 빛깔도 나타나. 예수교 열심히 믿는 사람들, 불교도 열심히 믿는 사람은 부처님 나타납니다. 그 부처님이 어쨌든지 역시 환상이거든요. 다 지가 만든 것이거든요. 예수가 나타나면 지가 만든 예수 아니에요? 꼭 한 가지입니다.

그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것이 환하게 나타나. 산하대지가 환하게 봬. 어떨 땐 달도 뵈고 해도 뵈고 별도 봬. 그러나 그건 과정으로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 법이여.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릴 필요는 없어. 왜 그러느냐. 우선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어리도 하나 환상이거든. 그러면 부처님이 나타났다 말이여. 그것도 환상 아닌가. 우리가 환상을 구하는 것은 아니거든. 진상을 구하는 것이지.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여. 비암비명, 이것도 그대로 넘어가는 거라. 비암비명, 마지막 과정으로서 좋은 과정이에요. 거부할 필요 없어. 나중에는 그대로 넘어가. 그대로 넘어가도 비암비명을 내가 그대로 알아서 써. 그래서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을 써.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을 써.

이런 화두를 솔직한 말로 한 반 년만 더 가져 보세요. 처음에 알아. 이치상으로 알아. "내 손이 핸들을 가졌다. 내 손가락이 주판을 놓는다. 잘 놓아야 되겠다. 잘 놓아야 되겠다는 요 생각 하나 뿐이여. 잘 놓아야 되겠다 하는 이건 성품이 없는 거다. 잘 놓아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하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이다" 이러한 생각을 미리 가져 놓고 잘 놓아야 되겠다는 것은 간단한 거여.

나중에 생각만 "잘 해야 되겠다" 하면 벌써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걸 끌고 다닌다는 이걸 자꾸 재인식하는 거라. 그러하지 않아요? 그리 되는 거여.

처음에는 잘 안돼. 싱거워. 또 안다 하더라도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데, 글을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꾸 "내가 자체성이 없는 손을 가지고서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주판을 잘 놓아야 되겠다. 밭을 잘 갈아야 되겠다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러하면 "옳지 요것은 무정물이다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허공성이다. 그러나 이렇게 잘 놓아야 하겠다는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다" 이것이 굳혀질 것 아니에요? 한 반 년만 가져 보세요. 딱 굳혀질 겁니다. 딱 굳혀지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 그 자체가 내 몸이라는 걸 느끼게 될 ' 겁니다. 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수밖에는 도리가 없어. 도리가 없어.

> 몸뚱어리도 하나의 환상
> 부처님의 출현도 환상
> 환상 아닌 진상 구해야
>
> 새말귀는 시간 따로 필요 없다
> 눈 뜨면 "몸뚱이가 깼다"
> 식사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 '자체성 없는 나'를 보면
> 하루 종일이 '화두'

이래 되면 집에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하면서 쌀을 씻으면서. 이건 자체성이 없다. 내가 쌀을 씻는다 쌀을 잘 씻어야 되겠다. 불 잘 때야 되겠다, 밥해야 되겠다. 전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아가, 진짜 내가, 참 내가, 지혜가 없는, 아는 것이 없는 이 손발을 움직여서 밥도 짓고 밭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회사도 나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을 사실대로 알자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여기 사실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요걸(몸) 나라고 봤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내지. 내 관리물이니까 나라고 할 것 아니에요? 나지만 자체성이 없는 거라. 이걸 내라고 해서 엉뚱한 모습에 딱 들어앉았단 말이지. 들어앉았지만 이 모습은 자꾸 변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변하는 거라. 그런 걸 믿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 어른들도 화두를 내 놓은 거라. 화두를 딱 줘서 다른 생각을 안 하도록,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해서 화두를 전념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라 말이여.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것이 안돼. 시간이 없어. 하지만, 새말귀를 할려면 시간이 필요 없어. 눈 딱 뜨면 내, 깼다. 내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가 깼다. 벌써 내다 하면 고런 뜻이 다 들어가. 내다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뜻하는 것이거든. 변소 가더라도 아, 내가 변소 간다. 내가 세수한다. 세수 잘 해야 되겠다. 밥 잘 먹어야 되겠다. 하루 종일 화두에요. 새말귀는.

물론 스님네들이 하는 화두는... 하루 종일 하는 거라. 잠잘 때만 놓았다 뿐이지. 어떤 사람은 잠잘 때도 생각을 해. 잠잘 때도 생각을 한다면 하루 종일 화두거든요. 중생도 내다. 내 일 잘해야 되겠다. 하루 종일 화두에요. 그럼 어쩌다 꿈에도 내다 이래져. 꿈에도 이래져. 하루 종일 화두를 가지는 것은 스님네와 일반 중생과의 그 입처가 다를지언정 하루 종일 화두를 가지는 것은 매일반이라 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할 수 있는 팔자를 못 타고 났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방편만 조금 고치면 우리도 화두를 가질 수 있다 말이여. 도리어 이 화두가 어떠한 면으로 봐서는 더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화두를 가지는 것이 이전 화두나 지금 화두나 빠르고 늦는 것이 있겠습니까만, 실에 있어서는 같은 도리이겠지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받들어 지공하는 모두가 '공양'

③ 광수공양(廣修供養)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一拜)
以諸最勝華 樂 塗香傘蓋衣服香
燈燭皆如妙高聚 我悉供養諸如來
我以廣大勝解心 深信一切三世佛
悉以普賢行願力 普遍供養諸如來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광수공양은 널리 여러 사람에게 공양한다는 뜻. 공양은 지공하여 영양되는 것을 지어 바친다는 것. 결국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생명은 먹어야 유지되는 것이다. 안 먹으면 안 된다. 만일에 이 먹는 본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가사의한 꿈을 가진 허무 맹랑한 사람이다.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또 아주 중대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일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요(堯) 임금, 순(舜) 임금 같은 이가 제왕(帝王)의 자리를 자기 아들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릴만한 사람에게 물려줄 때 제위(帝位) 계승의 표로서 솥(鼎)을 전수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 솥으로 만백성을, 모든 인민을 잘 먹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임금 자리를 물려 줄 때 솥을 주었다. 우리 불교계의 일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나 스승에게서 법(法)을 받을 때, 전발(傳鉢)했다. 의발(衣鉢)을 받았다, 바루를 받았다 하는 것인데 바루는 밥 먹는 그릇이다. 밥 먹는 그릇을 받았다니, 불교 역시 먹는다는 일을 얼마나 중요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먹는다는 일을 우리는 중요시 해야되고 또한 우리가 받아먹는 일도 그렇거니와 남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들어 바친다는 일도 퍽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짐승이나 벌레가 먹는 것과 사람이 먹는다는 일은 다르다. 사람이 먹는다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 차도(茶道)에서는 불을 피워 물을 익혀 먹는다고 한다. 사람은 물을 익혀 먹는 것이 다르다.

물을 익혀 먹는다는 말 속에는 밥이며, 국이며 음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사람은 문화생활(文化生活)을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음식을 또 반드시 그릇에 담아 먹는다. 소나 개 따위 가축에게는 쇠죽통이며 개밥그릇이 없는 바 아니지만 이것 역시 사람이 마련해주는 것이지 어느 짐승이고 스스로 밥 그릇을 만들어 먹는 일이란 없다. 그러므로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그릇을 만들어 음식을 여기 담아 먹는다는 일로 상징된다. '바루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루가 이 그릇이므로 인간 문화의 대통(大統)을 이어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인간사회의 문화생활하는 법을 전수 받았다는 말이다.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밥 그릇을 물려받았으며 또 공양하는데도 이 그릇에 담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대접을 하여 지공해 올린다는 것이다. 공양을 받는 것과 지공해 올리는 일은 이런 점으로 보아 매우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아주 좋은 음악을 공양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음성 공양이라고 하여 좋은 풍악을, 음악을 연주하여 바친다. 향을, 일산(日傘)과 아름다운 옷을, 소향(燒香), 도향(塗香)과 같은 향을 공양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옷을 입는 것이므로 의복을 지어 드린다. 뜨거운 햇살을 가리도록 일산(日傘=옛날의 큰 파라솔)을 갖다 바친다.

> 시자 · 수자 · 공양물
> 즉 삼륜은 청정해야 하며
> 정성껏 성의를 다해야 한다.
> 봉사 역시 공양을 의미
> 공양 통해 평안에 이른다.

"그리고 등을 모아 수미산(須彌山)과 같이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한다."

광명 공양이라고 하여 어두운 밤에 등촉(燈燭)을 밝히어 공양한다. 석가가 나신 성탄일엔 관등제(觀燈齊), 관등불사(觀燈佛事)를 하는데 부처님은 세상의 등불이시다 하는 뜻으로 그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넓고 큰 마음으로 삼세불(三世佛)께 드린다." 어진 행원(行願)의 힘으로 여러 부처님께 두루 두루 공양은 손이 크게, 흠뻑 많이 장만해서 바쳐야 되지 적게 조금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저 수미산 덩이처럼 크게 해서 바치라는 것이다. 남에게 반지럽게 보이는 것은 대접이랄 수 없으므로 마음을 크게 풍족스럽게 가져 아주 풍엄하게 공양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담는 그릇은 좋은 것으로 골라 정하게, 깨끗히 다루어야 한다. 흔히들 공양하는 것을 보면 음식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신통치를 않다.

장은 더들먹스럽게 담구면 구린내가 나고 잡스런 군맛이 생겨 영 못쓰게 된다. 이런 장으로 만든 음식으로 공양을 한다면, 이건 공양이 아니라 남에게 모욕을 주는 결과가 된다. 싫증이 나게 하는 것이 공양이 아니라, 환희심으로 음식을 달게 먹도록 해야 된다.

우리 절의 식당에서 공양을 지어 올리는 사람을 공양주라, 또는 시주(施主)하는 사람을 시자(施者)라고 하며 공양을 받는 사람을 수자(受者)라고 한다. 시자와 수자와 공양물, 이 세 가지는 깨끗해야 된다. 이를 삼륜(三輪)이 청정하다고 한다. 공양물이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 물건 자체를 두고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를 간수하고 다루는데 있어서 정성껏 진선 진미하게 만들어진 물건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양을 하더라도 반지럽게 마지못하여 내는 것처럼 하는 것과 마음껏 성의를 다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넓고 큰 환희심으로써, 보현보살의 넓고 어진 행원의 힘으로써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체의 여래 앞에 낱낱이 다 공양해 드려야 된다.

우리는 외출하여 길을 가다가 문득 살펴본다. 지나가던 사람이 길가에 선 나무를 괜히 뚝 분질러 버리거나, 심어 놓은 묘목을 심퉁스럽게 모가지를 딱 떼어 버리는 것을 본다. 이것은 공양이 아니다. 남이야 보건 말건 우리나라를 위하여 나무를 심고, 좋은 일을 하고, 길 가다 다리가 무너졌거나 길이 망가졌으면 이런 것을 고쳐 놓고, 길 한가운데 큰 돌이 나와 있으면 이것을 치우고 이러는 것이 모두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오 공양이란 것이다. 봉사한다는 것이 받들어 지공하는 것이 모두 공양하는 것이 된다. 바라건대 우리는 이와같은 생활을 함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편안하고 즐거운 그 지경에 이르러 이를 누리고자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 수 내 용

❶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8〉

‘萬戶千門’ 일시에 열리니…

만공(滿空)선사께 답하는 편지

장마가 막 걷히어 창문을 반쯤 열어젖히니,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 소리와 함께 반가운 서신이 날아왔습니다.

어떤 스님이 설봉(雪峰, 설봉의존. 822~908)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제일구(第一句, 궁극의 진리)입니까?” 하니, 설봉이 양구(良久, 침묵)하시니, 어긋났도다(錯). 또 어떤 스님이 장생(長生, 長生 未然)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하니 장생이 “창천창천(蒼天蒼天, 아이고 아이고).” 이라 하시니, 어긋났도다(錯).

이것을 두고 열제거사(悅齋居士)가 평하기를 “설봉스님의 양구(良久)는 제이구(第二句)이고, 장생의 창천창천(蒼天蒼天)은 제삼구(第三句)에 떨어졌다.” 라고 하였는데, 문득 어떤 스님이 나에게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양구(良久) 후에 “창천창천(蒼天蒼天).” 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때 마침 옆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스님(한암)께서는 어긋난 것을 가지고 더욱 어긋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將錯就錯).” 라고 말한다면, 나는 곧바로 “그대는 어디서 이런 소식을 알았느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옛 조사의 언구(言句)가 천하에 가득하다.” 라고 말하면, 나는 곧바로 “옛 조사 스님들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 답할 것입니다.

“옛 사람들의 일은 그만 두고 도인(道人, 한암)의 가풍은 어떠한지 말해 보라.” 고 한다면, 나는 주장자로 탁자를 한 차례 치고 나서 “수많은 문들이 일시에 열리니 우두산의 푸른 빛이 허공에 꽂혔다(萬戶千門一作開, 牛頭山色揷天碧)라고 할 것입니다. “쯧쯧(_)!”

이 편지는 한암선사가 맹산 우두암에 있을 때 만공스님에게 보낸 답서이다.

만공선사가 선승들에게 ‘무엇이 제일구(第一句)인지 한마디 일러 보라’ 는 서신을 보냈다. 한암선사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당말 송대 선승들의 송(頌)과 착어(着語)를 인용한 다음 자신의 착어와 송을 붙이고 있다.

제일구(第一句)란 곧 제일의(第一義)와 같은 말이고 성제제일의(聖諦第一義)와도 같은 말이다. 즉 선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한마디를 제일구(第一句)라고 하는데, 이에 반하여 제이구(第二句)나 제삼구는 2등, 3등과 같은 말이다. 즉 핵심을 찌르는 답이 못 된다는 뜻이다.

제일구에 대하여 설봉(雪峰) 스님은 양구(良久, 침묵)를 했고, 장생(長生) 스님은 “창천창천(蒼天蒼天, 아이고 아이고)” 이라고 했는데, 언어도단(言語道斷)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 보라고 하니 설봉은 ‘양구(良久, 침묵)’ 를 했고, 장생스님은 ‘아이고 아이고(蒼天蒼天)’ 라고 통곡한 것이다.

선어에 ‘개구즉착(開口卽錯; 입을 열면 곧바로 어긋남),’ ‘언전불급(言詮不及; 말이 닿지 못함)’ 이라는 말이 있다. 언어문자로 표현한다면 선의 핵심(제일구)은 그 언어의 개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사면가운데 한쪽 면만 표현하는데 그친다. 즉 제이, 제삼에 불과하게 된다[落在二三頭].

여기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모두 ‘착(錯; 어긋났다)’ 이라고 했는데, 즉 제일구의 소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인데, 이렇게 비평하는 것은 착어(着語)를 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다

“어떤 것이 ‘제일구’ 입니까?”
설봉은 양구
장생은 창천창천
한암 스님은 양구한 후 창천창천

도인의 가풍 묻는다면
“우두산색이 푸른 허공 찌른다”

편지원본 없고 〈경허법어〉에 수록

한암선사는 누가 나에게 ‘옛 선승들이 한 말은 그만 나열하고 한암스님 당신의 가풍을 말해 보라’ 고 한다면 주장자로 탁자를 한 차례 치고 나서 ‘만호(萬戶) 천문(千門)이 일시에 열리니 우두산색이 푸른 허공을 찌른다(萬戶千門一作開, 牛頭山色揷天碧)’ 라고 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돈각(頓覺)의 경지, 본래면목을 깨달은 당당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일구에 대한 한암선사의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간은 초암자(草庵子)라고 하는 이가 필사한 [경허법어] 끝에 ‘第一句答’ 이라는 큰 제목 하(下)에 ‘맹산 우두암 방한암 답(孟山 牛頭庵 方漢岩 答)’ 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한암선사가 맹산 우두암에 있을 때에 보낸 것이므로 1911년(36세)~1917년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사찰은 세상과 함께 호흡해야죠 그래서 요즘 매일 ‘팽목항’ 갑니다”

금강 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혹자는 한국불교가 정체 상황에 있다고 말한다. 신도수는 늘지 않고, 내부 결속력도 낮은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불교의 0.8%만이 포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이 설문조사에서 기독교는 21.5%, 가톨릭은 4.7%가 전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하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그래서인지 불교계에서는 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과 종책개발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다양한 포교관련 세미나를 빈번하게 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눈에 띄는 성공사례가 있으니 바로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 해남 미황사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이 됐지만 10여 년 전만해도 미황사는 많은 이들에게 낯선 절이었다.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진 지금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6시간, 부산 · 대구에서도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라 여간해서는 찾아갈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런데도 해마다 미황사를 찾는 사람이 10만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이유는 달마산의 기암괴석을 병풍처럼 뒤에 두르고 장엄한 바다를 앞에 둔 경치 때문만은 아니다.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이라는 이름에 혹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참선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 , 괘불재와 음악회, 해맞이 · 해넘이, 어르신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이다.

전국의 여러 사찰들이 미황사처럼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굳이 먼 곳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황사의 성공 노하우를 묻자, 주지 금강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

“땅끝마을 작은 절 하나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 준 것이라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차 한잔 대접한 것 뿐입니다. 또 미황사의 모든 행사에 지역민들을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이 행사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골몰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성공요인이 아닐까요?”

폐허나 다름없던 미황사를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로 만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스님에게 들었다.

포교현장 누비던 ‘지게 스님’

전남 해남서 태어난 스님은 보이스카우트, 하이킹, 간부수련회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육조단경〉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참선을 배우기 위해 대흥사 지운 스님을 찾았다. 금강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지운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참선을 배우며 학교를 다녔다.

졸업 후 출가를 결심한 스님은 곧바로 해인사로 향했다. 해인사 참배를 하던 중 백련암 마당에서 前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1920~2001)을 만났다.

“무엇하러 왔느냐”는 혜암 스님의 질문에 금강 스님은 “행자 생활하러 왔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혜암 스님은 “너 잘 왔다. 이번 생에 태어났다 생각지 말고 공부하다 죽어라”는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다.

“당시 혜암 스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계율과도 같았습니다. 큰 울림으로 다가왔지요.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세속적 삶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와도 같았어요.”

그렇게 해인사서 행자생활 하던 금강 스님은 1988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금강 스님의 미황사 생활은 1989년에 시작됐다. 한때 12암자를 거느리고 400여 스님이 기거한 거찰이던 이 절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접한 금강 스님은 은사인 지운 스님도 미황사로 모셨다. 출가 이후 은사 스님을 제대로 시봉한 적이 없었다는 죄송함이 그 이유였다.

749년(신라 경덕왕 8년) 의조화상(義照和尙)이 창건한 미황사는 1000년이 넘도록 명맥을 유지하다 1887년 이후 쇠퇴의 길을 걸었다.

승가대 시절부터 불교 대사회적 역할 고민
서옹 스님의 무차대회 기획… 선풍 일으켜

한문학당, 참사랑 결사 등 소프트웨어 인기
미황사 템플스테이 참가기록 전남 사찰 최고
음악회 · 괘불재 등 행사 주인공은 지역주민

금강 스님이 처음 미황사에 들어왔을 때는 대웅전과 응진전만 있었다. 절간에 응당 있어야 할 천왕문이며 일주문조차 없었다. 그때부터 금강 스님은 지게를 지고 돌을 나르며 무너진 축대를 쌓고 마당을 넓히고 나무를 정리하는 등 도량을 가꿨다. 이때 동네 주민들은 금강 스님을 ‘지게 스님’ 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중 스님은 “시골에 있지만 말고 공부하자”는 출가 도반들의 말에 1991년 중앙승가대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때 스님은 승가대신문 기자와 학생회장, 전국불교운동연합 부의장, 범종단개혁 추진위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여기에 정토구현전국승가회라는 불교계 진보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불교와 사회의 만남을 체험했다. 8 · 15 특별기획 ‘친일불교 청산’ 에 대한 스님의 기사는 교계 안팎의 큰 호응을 받았다.

“1987년 민주항쟁과 광주 5 · 18 7주기 행사 등을 접하면서, 현대에 맞는 승가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승가대 재학시절 포교연구부에서는 늘 ‘포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한편 토론도 쉬지 않고 계속 했지요.”

그래서 스님은 승가대 학생회장을 맡기 전까지 주말에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광주 원각사 학생회, 중원불교대, 국립의료원, 능인선원 등 각종 법회를 맡아 포교현장을 누볐다.

1994년 종단개혁으로 종단 집행부가 자리 잡을 무렵에는 고산 · 혜정 스님을 모시고 포살을 하고, 선방에서 화두도 들었다. 다시 미황사에 돌아와서는 지게 대신 포크레인을 운전하며 불사에 전념했다. 그러다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1912~2003)의 부름을 받고 무차대회를 열어 선의 대중화에 일조했다.

“서옹 스님을 모신 3년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수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역경을 극복할 힘을 주어야 한다’ ‘정신적 지도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 다그치던 스님의 가르침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백양사에서의 ‘참사람 수행결사’ 는 시작됐고, 금강 스님은 일반인과 IMF 실직자들을 위한 단기 수행프로그램을 열어 뭇 삶의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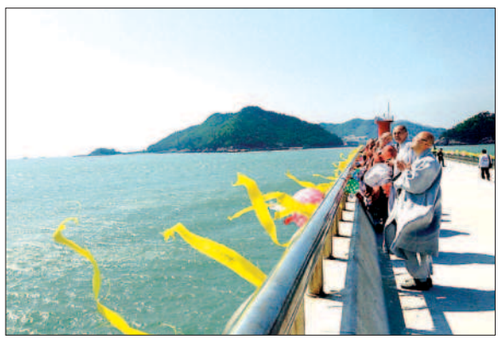
미황사에 연간 10만명 다녀가는 이유

금강 스님이 본격적으로 미황사 살림을 맡은 것은 2000년 초반부터다. 1992년부터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시작한 미황사 前 주지 현공 스님이 2001년 금강 스님에게 주지 자리를 물려줬다. 현공 스님은 불사에만 전념해 대응보전과 명부전, 삼성각, 만하당, 부도암 등 전각 일곱 채와 세심당(수련원) · 향적당을 비롯한 요사채 아홉 채를 복원했고, 부속건물 여섯 채를 신축했다. 그 사이 금강 스님은 전통 강원 시스템을 응용한 초등학생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참선수련회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를 개발해 멀고 낯설었던 미황사를 친숙하고 아름다운 절로 바꿔놓았다.

미황사의 연간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5000여 명에 달한다. 가을에 열리는 괘불재에는 1500~2000명이 다녀간다. 2000년 여름부터 방학동안 열고 있는 어린이 한문학당은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2000년 여름부터 방학동안 열고 있는 어린이 한문학당은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금강 스님은 세월호 참사 다음날부터 매일 진도를 오가며 피해자 가족을 상담하고 예불을 올리고 있다.



법사 방필석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귀(貴)하고 소중한 자녀의 이름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 갑오년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신생아 작명

개명·아호·상호

역학개인지도

세상 만물이 난조(暖燥) 및 한습(寒濕)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 지듯이 인간도 자연의 조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신생아는 춥다, 덥다 표현이 어려우니 환경이 안 맞으면 우는 것이 곧 언어이다.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맞는 환경은 부모는 좋지만 부모와 체질이 다른 아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방필석 대내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5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7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9-8259, 02)738-5577 www.8259.co.kr 국내외 우편발송
작명보시금 20만원 우리은행 : 306-07-194422 /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견지동) 등용문빌딩 201호(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 필 석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日이요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금강 스님은 …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17세(1982)에 대흥사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세에 해인사서 행자생활을 했으며, 그 해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8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중앙승가대에 입학(1991)해 〈승가대신문〉 편집장과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전국불교운동연합 부의장과 범종단개혁추진회 공동대표를 맡아 종단 개혁(1994)을 도왔다. 백양사 서옹 스님을 모시고 참사랑운동과 무차선회(1998)를 기획해 한국의 선을 일반화하고 세계화 하는데 일조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미황사 주지를 맡아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참선수행-참사람의 향기, 괘불재 등 다양한 수행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세상과 호흡하는 산중사찰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인기 비결에 대해 묻자 금강 스님은 "학창시절 보이스카우트 등 캠프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익숙해진 것 같다"며 "미황사에는 숲과 맑은 공기, 그리고 오래된 법당이 있다.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많다. 그 것을 살려서 한문학당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붙어 2002년 월드컵 기간부터 템플스테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황사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그 먼 곳까지 누가 간다고 그런 일을 벌이느냐"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2008년 미황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5118명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남 지역 13개 사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서 깊은 대찰인 백양사(3002명), 화엄사(2506명), 대흥사(2393)명, 송광사(2114명)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미황사를 찾았다.

미황사가 연간 10만 명이 다녀가는 사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손을 내밀고 환영하는 전통 덕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가지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 잠시 쉴 자리도 찾기 어려운 낯선 공간이 된다. 하지만 미황사에선 방문객이 오면 누구나 기꺼이 안내자를 자청한다. 금강 스님은 누구든 차별 없이 자신의 방에서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스님과 차를 마시고 돌아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미황사에 가면 주지 스님이 공짜로 차를 주고 인생 상담도 해준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미황사를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 금강 스님이 하루에 마시는 차가 80~150잔은 족히 될 정도다.

사람이 점점 늘어날수록 바쁘고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나의 생활에 맞추면 됩니다. 내 일상생활에 맞추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평소 제가 예불할 때 예불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참선할 때 참선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10년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라고 답했다.

미황사는 지역주민을 사찰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친화전략을 활용했다. 산사음악회, 괘불재 등 사찰 행사에 지역민을 대거 참여시켜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매년 10월 열리는 괘불재에서 지역민들이 1년 농사의 수확물을 불전에 바치는 '만물공양' 도 이 행사의 핵심이다. 햅쌀, 콩, 깨 한되, 매듭공예, 떡, 박사학위 논문, 학교에서 받은 상장 등 각자 소중한 것을 공양물로 내놓는다.

산사음악회에서는 사하촌 주민들로 이뤄진 주부풍물패, 어르신 소리꾼 등이 '해남 들노래'와 남도 판소리, 청산도 바닷노래를 비롯한 지역의 전통문화를 선보인다. 덕분에 제1회 산사음악회 때부터 음향설비와 조명을 맡아온 해남의 한 전파사 대표는 이 지역 최고의 음향전문가가 됐고, 소리꾼 할아버지는 다른 곳에서도 초청 받을 만큼 유명인사가 됐다고 한다.

사찰이 지역민과 단절되거나 지역민을 들러리로 만들게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게 금강 스님의 지론이다.

"사실 도움은 제가 더 많이 받습니다. 부처님오신날 궂은 일 마다 않고 해주고, 마을 들머리에서 미황사에 이르는 길의 잡풀을 제거해주는 분들이 바로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절에 번다한 일이 있을 때마다 두 팔 걷어붙이고 제 일처럼 뒷일 봐주는 분들은 언제나 그 분들입니다. 그러니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동업중생인 셈이지요."

항상 대중의 고통 해소 발원

금강 스님은 세월호 참사 다음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날부터 매일 진도를 오가고 있다. 오전에는 미황사 일을 보고 오후에는 진도로 건너가 피해자 가족을 상담하고 예불을 올린다.

"진도 앞바다에 가면 유가족들의 자식 잃은 아픔과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부모들이 기운 차릴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싶어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려는 진도 스님들과 대흥사 · 송광사 · 화엄사 · 백양사 스님들이 팽목항과 체육관 옆에 임시 법당을 차렸다.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도 달려와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죽과 떡을 나눠주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다.

스님은 생명과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돈과 책임 소재를 중시하는 풍조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며, 이러한 세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강 스님은 "대립과 경쟁, 갈등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산중 스님들 못지않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황사가 지금 이 순간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미황사가 국민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수행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발원할 뿐입니다"고 말했다.

이렇듯 스님은 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민, 무한한 애정을 갖고 어떻게 하면 대중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금강 스님의 가장 친한 도반인 법인 스님(前 조계종 교육부장, 해남 일지암 암주)은 금강 스님의 책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에서 금강 스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한다. 금강 스님은 이벤트에 강하고, 기획력이 뛰어나고, 일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드러난 일을 유심히 보라.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보인다. 금강 스님이 10년 넘게 미황사와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것들은 모두 그의 깊은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법일기

"직업을 선업으로 가꾸자"

업(業)이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의 생활 수단인 직업(職業)을 보면 업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알 수 있다.

사람은 대부분 살아가는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한다. 백짓장 같은 마음이 직업을 가지면서 서서히 그 업에 빠져들어 간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 같고, 공무원은 공무원 같고, 우리 같은 스님들은 스님 같아진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본마음이다. 다시 태어나도 그 직업을 가질 것이 아닌데도 그 직업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상에는 수만 종의 직업이 있다. 우리는 편의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가족의 생계를 맡기고,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요 통과의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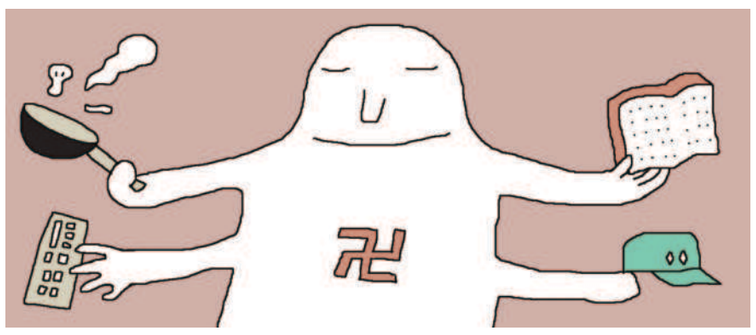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특히 자신들의 직업을 스스로 천시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할 때 그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부처님 시대 처럼 사농공상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 직업이 있다. 그만큼 우리 불자들도 직업에 관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보통 악업을 쌓는 동기는 직업에서 나온다. 직업상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짐승을 잡아야 하고, 그 고기를 팔아야 하고, 그것을 요리해야 한다. 직업상 이자를 높이 받아야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잡아들여야 하고, 싸울 수도 있다.

사람들이 건전하게 직업을 갖고 청재(淸財)를 얻기 위해 귀수불심(鬼手佛心) 넉자를 지녔으면 한다. 귀수불심이란 곧 귀신의 손과 부처님의 마음을 말한다. 일하는 솜씨는 귀신과 같아서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류가 돼야 하지만, 그 마음만은 언제나 불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손과 마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면 돈을 번다는 행위는 선업(善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십 년을 군승으로 살고 군종실장까지 지냈지만, 결국 초심으로 돌아와 용인 시골에 선원을 짓고 수행을 하고 있다. 전역 후에는 절대로 공직을 더 이상 맡지 않기로 결심했다. 은사 스님의 엄명으로 군포교에 나섰지만 스님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선지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바로 초심이었다. 불자들에게 초심은 바로 불심이다.

현대의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달되고 있다. 이런 기술의 변화는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더라도 인간은 변해서는 아니 된다. 인간의 마음은 불심으로 채워져야 완전한 것이다. 노벨은 원래 산업에 이용하라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지만 살인마들은 총과 대포에 이용해 인명을 살상했다. 현대 첨단 과학기술 중에는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지만 파멸시키는 것들도 많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군 포교 일선에서 군승들이 사표로 삼는 스님들, 승장들, 이를테면 휴정, 유정, 처영, 영규 스님 같은 분들은 직위를 받은 바 없다. 일반 백성들이야 왜군 머리 하나만 베어 바쳐도 현감이고 군수고 여러 자리가 보장됐지만, 스님들은 왜란 이후 일사분란하게 수행처로 돌아갔다.

현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그 업을 놓지 못하고 산다. 퇴직하면 그것을 딱 잊고,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대사 한 것으로 평생 대사님으로 불리고, 한번 국회의원하면 평생 의원님으로 불리는 세상이다. 이런 행태 속에서는 불심은 결코 자라지 못한다. 업을 스스로 끌고 다니는 것이다.

지금 현재에도 여러 직장에서 생업에 매진하는 이들이 귀수불심, 이 넉자를 가슴에 새기길 기원한다.



자광 스님
(前 군종교구장 · 용인 반야선원 주지)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日 불교계, 아베 정부 '헌법 해석 변경' 반대

일본 불교계가 아베 신조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아사이신문〉는 5월 21일(현지시간) "일본 불교계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본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주장하며,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고, "아베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 에 대한 불교계의 반대 기류는 타이넨 미야기(Tainen Miyagi, 쇼고인사 · 교토) 스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타이넨 미야기 스님은 1,500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큐주 노와(Kyujo no Wa)' 라는 9대 종교 협의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5월 14일까지 일본 전역에서 '헌법 해석 변경' 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베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은 일본의 평화 헌법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쟁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일본 종교계의 우려가 크다"고 전한 타이넨 미야기 스님은 "우리의 집단 자위권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은 그동안 계속 돼온 헌법 제9조에 따른 정부 견해(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역사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사이신문〉에 따르면 타이넨 미야기 스님의 반 아베 정부의 행보에는 '큐주 노와' 외에도 코세이 카이(Kosei Kai) 스님이 이끄는 '일본 신종교연맹' 와 전통 불교의 여러 종파들로 구성된 전(全)일본불교회는 물론, 천주교계와 개신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57개 종교단체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의 또 다른 불교단체인 '일본불교회' 는 아베 총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전쟁범 위패를 소장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 것' 을 총리와 그 내각 구성원들에게 요구했다. 청원서에는 "총리와 내각 구성원은 어디까지나 공직자"라며 "정교분리의 정신에 근거해, 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불교계의 입장이 담겨졌다.



일본 불교계가 아베 신조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사진은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 스님들.

타아넨 미야기 스님, "아베 정부, 일본의 평화 헌법 훼손"

타 종교단체, 인간 존중에 주목 … '반대 운동' 에 속속 동참

〈아사이신문〉은 " '집단적 자위권' 을 강화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불교계가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데 주목하고, "아시아 평화를 바라는 불교계의 뜻이 다른 종교계의 호응을 얻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강조하고 "9대 종교 협의체인 '큐주 노 와(Kyujo no Wa)' 의 '평화 기원 범종교 행사' 가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사이신문〉은 "아베 정부가 아시아 동맹국의 군사 원조를 적극 수용하고,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은 자칫 아시아 평화를 해치는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타이넨 미야기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불교계를 비롯해 일본의 종교계는 '인간 생명 존중' 이라는 종교 공통의 신념을 공유하고, 전쟁이나 폭력을 용인하게 될 '헌법 해석 변경' 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 는 내용의 '안보에 대한 법적 근거 재건 자문 위원회 보고서' 에 힘입어 '헌법 해석 변경' 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대국민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만든, 미국 초안 헌법 제9조의 현재의 해석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가 특정 상황에서 다른 국가를 방어할 권리는 UN 헌장 51조에 의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 골프선수 US오픈 출전 위해 출가

일주일간 삭발하고 스님 체험… "편안한 자신감 얻어"

머리를 삭발하고 눈썹까지 민 골프 선수가 이번 주 유러피언투어에 출전한다. 지난해 아시안투어 상금 랭킹 1위인 태국의 키라덱 아피바랏(Kiradech Aphibarnrat)은 다음 달 생애 처음으로 출전하는 US오픈을 경건하게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간 스님 체험을 하며 지냈다.

올해 24세인 키라덱은 방콕에서 80㎞ 떨어진 차총사오 지역의 왓 베라초티 타마람 사원을 원찰로 삼아 '프레친 부리(Prachin Buri)' 라는 법명을 받아 머리를 삭발하고 눈썹까지 밀고 체험에 열중했다.

이 기간 그는 태국 승려의 일상에 맞춰 매일 새벽 4시30분에 일어나고, 불경을 외우고, 맨발로 수 킬로미터를 걸어 음식을 구하면서 탁발을 했고,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수행에 정진했다.

키라덱는 "태국 문화에서는 21~25세에 이르면 일생에 이처럼 한 번은 해야만 하는 것이 의례다. 이는 부모에 대한 존경의 의식이다. 내겐 좋은 경험이었다. 내 자신에게 보다 진중해졌다. 더 성숙해진 느낌이다. 올 초반 성적이 부진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떨쳐냈고 편안한 자신감까지 얻었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자식들의 이런 수행이 나중에 부모들이 죽음을 맞았을 때 정토로 이끈다고 여긴다.

키라덱은 현재 세계 랭킹 83위지만 다가오는 메이저 대회에서 6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메이뱅크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유러피언투어에 출전 자격도 가진 키라덱은 이번 주 열리는 메이저 대회 BMW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수행을 모두 마치고 영국 웬트워스로 향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 골프선수 키라덱 아피바랏(사진 왼쪽)은 US오픈을 경건하게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간 스님 체험을 하며 지냈다(사진 오른쪽)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입니다"

유엔 베삭데이 행사… 자승 스님 봉축 메시지 발표

동남아시아 지역은 부처님오신날을 베삭 데이(Vesak day)' 로 부른다. '베삭' 은 보름달을 의미하는 말로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지역에서 5월(음력 4월) 15일을 '부처님오신날' 로 기념한 데서 유래됐다.

남방불교의 전승에 따르면 이날 부처님이 태어났고 깨달으에 이르렀으며 열반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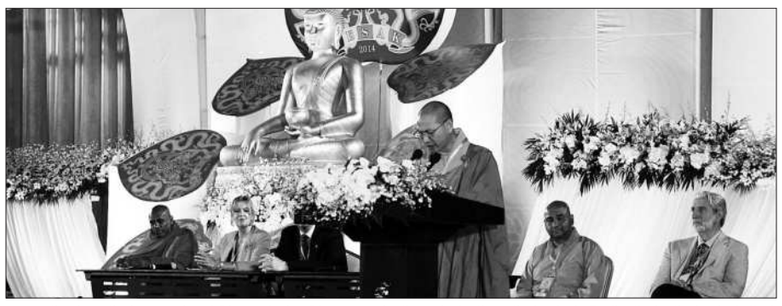
이날 남방불교 불자들은 부처님이 태어난 날(Birth, 탄생) 뿐 아니라 깨달은 날(Nirvana, 성도), 열반한 날(Parinnirvana, 반열반)을 함께 기념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유엔(UN)에서도 베삭 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매년 개최한다. '유엔 베삭 데이' 는 지난 1999년 유엔 총회의 결의안에 의거하여 2001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최초의 행사가 실시됐으며, 2004년부터는 매년 태국에서 유엔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행사가 열린다.

올해 유엔 베삭 데이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닌빈주 바이딘 사원과 태국 아유타야 마하출라롱콘대학교에서 개최됐다.

한국불교계에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진월 스님과 포교부장 송묵스님, 사회국장 덕운 스님이 참석했다.

기념행사에서 진월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봉축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진월 스님이 5월 8~12일 베트남과 태국에서 열린 유엔 베삭 데이 기념행사에서 자승 스님의 봉축 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 제공= 조계종 사회부

자승 스님은 진월 스님이 대독한 봉축사에서 "부처님은 이웃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이웃을 평화롭게 해야 함을 깨우치게 했다"며 "아픔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행복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 어떤 큰 아픔도 이겨내도록 이웃의 손을 함께 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베삭데이는 '유엔 천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불교적 전망'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95개국 1500여명의 대표단과 2만여 명의 현지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호주에 '불교 복합시설' 생긴다

세계 10대 건축회사 우즈 베이곳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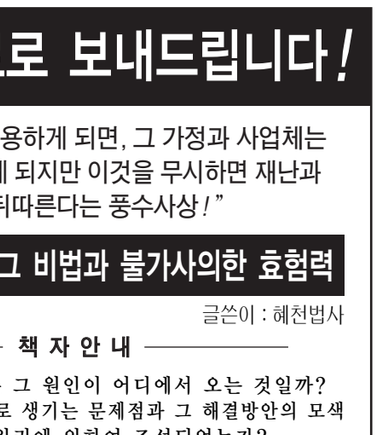
세계 10대 건축 회사로 손꼽히는 우즈 베이곳(Woods Bagot)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울런공(Wollongong) 시의 외곽에 불교 철학을 담은 '복합시설' 을 짓는다.

1,8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복합시설' 은 남반구에서 가장 큰 불교사원으로 꼽히는 난티엔사(南天寺)와 울런공 시의 문화연구센터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와 '문화공간' 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울런공 시와 난티엔 사원의 협의에 따라 들어설 복합시설은 4,600 평방미터에 걸쳐 건설되는데, 향우 울런공 시의 '문화 · 연구센터' 의 대사회적 역할을 키우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우즈 베이곳의 디자이너 조지아 싱글톤(Georgia Singleton) 씨는 "복합시설 인근에는 지역 거점 대학인 울런공대학이 있는데, 특히 이곳의 재학생들이 복합시설을 이용하며 새로운 커뮤니티, 즉 인드라망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즈 베이곳 수석 디자이너인 앨런 더피(Alan J Duffy) 씨는 "복합시설을 구성하게 될 문화, 색상, 교량 등은 모두 불교 철학의 원리에 기반해 디자인 될 것"이라며 "현재 녹색 공간을 강조하는 한편, 기하학적인 인테리어와 빛의 굴절 등으로 표현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우즈 베이곳이 지난해 울런공대학 내 건축한 6,000 평방미터 규모의 학생회관 전경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세계불교법왕청 결집대회’ 5월 13일 상해서 봉행

합동 금강계단으로 법계품수 및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도 열려

(사)세계불교법왕청(추진위원장 목탁)은 5월 9일서 1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과 보타낙가산 관음도량을 순례하고 고불 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합동 금강계단으로 통일법계를 품수하고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을 봉행하는 ‘세계불교법왕청 결집대회’를 열었다.



세계불교법왕청 결집대회에 앞서 보제선사 참배.

이번 행사는 세계불교법왕청의 출범을 부처님께 고하여 증명하고 통일 품계를 확립해 법왕청 조직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세계불교 통합을 기치로 추진되는 (사)세계불교법왕청(대승정 목탁 스님)이 2년여 간 준비해 온 ‘세계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를 공식화해 세상에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장 관음도량을 참배하는 고불순례 일정을 마친 법왕청 일행은 5월 13일 상해 당조호텔 연회장서 본 행사인 결집대회를 진행했다. 청운스님, 대연 스님의 사회와 진성 스님의 집전으로 시작된 의식은 동참자 전원에 대한 소개와 대붕 스님의 법왕청 추진 경과 보고, 목탁 스님의 인사말씀 등으로 열렸다.

법왕청 내 통일 품계의 시발점이 되는 합동 금강계단서 대종사에 22명, 종사 1명, 중덕 1명 등 총 24명의 승가가 법계를 품수했으며, 법왕청 내 재가 국제포교사 17명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법계 품수 및 포교사 임명 의식에 이어 동참 일행은 마정수기를 통해 법왕청의 성공을 부처님께 서원했으며, 법왕청 정부 각료에 대한 임명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에 앞서 (사)세계불교법왕청은 2014년 4월 말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 불교지도들과 법왕청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6월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중국, 네팔, 미얀마, 태국 등을 방문하여 법왕청 논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세계불교법왕청은 5월 말까지 한국 각료 임명을 완료하고 구성된 추대위원와 각 불교국가의 지도자들과 공동 논의하여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 분을 추대하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고 2015년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하여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불교 최고의 어른한 분을 세계불교 법왕에 모시는 즉위식을 진행 할 예정이다.

세계불교법왕청 합동 금강계단
대종사 22명, 종사 1명, 종덕 1명, 국제 포교지도사 17명 임명


각 정부부처 임명장 수여


법계 품계 및 마정수기

(사)세계불교법왕청 정부각료

세계불교법왕청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사서실장 대연
추진위원회 실무수석 부위원장 혜정
원로원 사무총장 정오

원로위원단 지암, 향운, 성각, 심오, 정오, 구달, 대경, 박혜정, 성범

예경의전 원장 혜승
호법원 대풍 **감사원** 법장
경호실장 진성 **의전실장** 도암
비구니 자문단 법성, 보성, 지산
사업 제2국장 상운

외교부 도명 **포교부** 청운 **국제포교** 지암 **사회부** 혜선
교육부 해월 **문화부** 법상 **조직부** 대붕 **법무부** 보현
행사집행 지우 **경제부** 현담 **관광부** 도안 **문화사업단** 송현
과학부 돈조 **행정부** 고산 **무임소** 혜관 **불학연구소** 진관

(사)세계불교법왕청은 대법원에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로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이사장 목탁)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세계불교법왕청.com으로 도메인 등록되어 있다.

(사)세계불교법왕청 성지순례 (5월 9일 ~ 12일)

승가 25명, 재가 30명으로 구성된 법왕청 성지순례 일행은 결집대회 행사에 앞서 불교성지인 구화산 지장도량의 육신보전, 천태산, 백세궁과 보타낙가산과 관음도량 보제선원을 참배하고 세계불교법왕청의 원만 진행을 서원했다.


◀지장보살 99M 상


▶남해관음상


목탁 스님 인사말씀 (추진위원장)

세계불교법왕청은 세계불교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지도자들의 법석입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날로 쇠락하는 불교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품으로 하나로 모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간절한 과제입니다.

오늘 모이신 큰스님들은 사분오열된 한국불교를 정화해 이끌어갈 막중한 사명을 띤 큰 스님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의 기치아래 갈라진 한국불교의 위상을 바로잡고 정화하는 큰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합동 금강계단 법계품수

대종사 : 진성, 혜선, 현담, 최혜정, 박혜정, 심오, 법현, 혜승, 대봉, 도명, 송현, 돈조, 남륜, 도암, 정오, 법상, 대풍, 성군, 진관, 대경, 지우, 성각, 청운(이상 22명).
종사 : 대연 **중덕** : 묘덕스님



재가 국제포교사 17명 임명장 수여

김향분, 김미정, 조명숙, 박옥희, 이은송, 김의관, 정문실, 김미점, 김미숙, 오아름, 이종설, 김두호, 안광렬, 박정숙, 이정순, 송행임, 이영자




◀품수 증서

▼각료 임명장





“형상 너머의 세계 화폭으로”

정산 스님 · 김명규 2인전 ‘무념을 위한 상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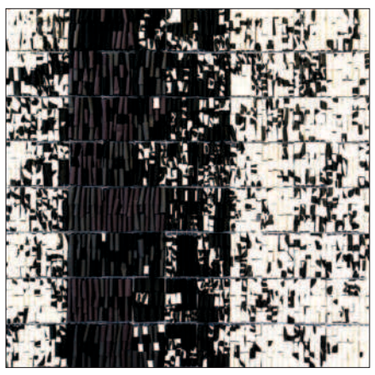
정산 스님 · 김명규 작가가 함께 펼치는 ‘무념을 위한 상념’ 전이 6월 2일까지 스페이스 선+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정산 스님의 ‘불립문자’ 시리즈 · 김명규 작가의 ‘하늘’ ‘공간’ 등의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김명규 작가는 “이번 나의 작품은 무한 세계를 동경하며 구체화시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작품속의 섬들은 먹의 번짐으로 이루고 그 세계는 중력을 잃어버린 영역으로 표현했으며 하늘은 이온이 사라져버렸고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색은 없어져 모든 형태의 진실은 하나의 기억으로 또는 변형된 어떤 것으로 재조립 됐다”고 설명한다.

이 땅 위의 형상은 유한한 형태에, 이 세계는 잠깐의 환영에 불과 하다고 말하는 김명규 작가. 그래서 그는 현실을 재현해 그림으로 그리는 일은 꿈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의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 완전한 이미지를 다시 탄생시킬 일도 먼일은 아니기에 초조하지 않다.

정산 스님은 신작 ‘불립문자(不立文字)’ 시리즈를 통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소통에 관한 해석’을 시각화한다. 요컨대 소통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말(혹은 문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통의 상징인 문자(文字)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산 스님은 “한지에 먹으로 붓글씨를 쓴 다음, 그 종이를 여러 번 자르고, 다시 그 작은 조각들로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는 우리가 글자에 의존에 소통하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과 교감을 이루려면 글자의 형식적인 면 그 너머의 원성(原性)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정산 스님의 ‘불립문자’


김명규 작가의 ‘One day on dream’

명나라 희귀 목판화 ‘수성노인도’ 공개

고판화 박물관 ‘아시아 도교판화의 세계’ 전

동양의 신화와 전설이 살아 숨 쉬는 한중일, 티베트의 도교 판화 100여점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10월 12일까지 ‘영원 불멸의 길-아시아 도교 판화의 세계’ 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고판화 박물관은 세계적인 희귀 목판화인 ‘수성노인도’(명나라) 등을 공개해 주목된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각국에서 도교 문화가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필적할 만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 고서인 한국의 〈옥추보경〉이나 중국의 회본 〈신선전〉, 일본의 〈열선전전〉등이 소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명 융경 임신년(1572) 작품인 대형 ‘수성노인도’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화로 고판화박물관이 올 해 발굴 수집해 공개하는 작품이다. 청 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육필 도교 제신 대형 년화도 공개한다.


명나라 목판화 ‘수성노인도’

이밖에도 유불선 삼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교판화국제학술대회, 아시아 전통판화 장인들의 시연회 등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033)761-7885 **정혜숙 기자**

불국토 꿈꾸던 신라인 숨결 모았다

국박, 통일신라실 개편 상설전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선사고대관 통일신라실을 새롭게 단장 일반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사진은 5월 19일 언론 공개회 장면.

8세기경 조성되었다는 철불은 그 온화한 미소가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오랜 시간 깊이 들여다볼수록 자비와 광명의 물결이 가슴의 평온함으로 밀려들어 벅찬 감동을 만든다. 그것은 불국토의 절정에 다다른 한 시대의 문화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깨달음의 순간을 재현하는 듯 경이롭기만 하다. 前 보원사 철불을 비롯한 사리호, 익산 미륵사지 출토 향로 등 통일신라의 화려했던 불교문화가 되살아났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5월 20일부터 선사고대관 통일신라실을 새롭게 단장, 상설전시로 일반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통일신라실은 불국토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이상과 화려한 귀족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 중에서도 보원사 철불은 2013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특별전에 출품되어 호평 받은 바 있으며, 석굴암 본존불과 함께 통일신라 불교 조각품을 대표하는 중요 유물이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5월 19일 언론 공개회를 갖고 중요 유물을 설명하고 이번 전시의 특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원사 철불은 여초의 작품이라는 설도 많았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연구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조각임이 증명되었다. 이 작품은 철불로서는 드물게 완벽한 비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양식사적으로는 석굴암 본존불을 따라가고 있기에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배치해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전시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철불 배치는 통일신라 불국토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표현, 일주문을 통과해 사찰로 들어가는 길을 연상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장 입구를 사천왕, 보원사 철불, 경주 출토 팔부중상 순으로 배치 일주문에서부터 사찰 안을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통일신라실 절반의 공간을 확보해 전시하는 보원사 철불은 2013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렸던 ‘황금의 나라, 신라’ 전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 향로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서 호평 받았던 ‘보원사 철불’ 등 통일신라 중하대 역사 한눈에

또한 통일신라시대 중하대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불교를 토대로 왕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정당성을 과시하며 적극적인 대외교류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간 통일신라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특히, 전시 후반부는 통일신라의 중앙과 지방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안압지나 왕경 출토 유물을 통해 당시 수준 높은 귀족의 문화와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다. 또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와 황해도 평산 출토품 등 통일신라시대 지방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 고급문화를 누렸던 지방 사회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시간적으로 신라 중대와 하대를, 공간적으로 중앙 귀족 문화와 지방 사회 문화를 비교하는 점에서 그간의 통일신라 전시와는 다른 기획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 경주 인용사터 출토 광명대(촛대), 미륵사터 출토 향로, 군위 인각사 출토 도자기, 창녕 말흘리 출토 향로 등 최근 발굴되어 학계에서 중요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새로운 유물들이 전시됐다. 은으로 만든 작은 그릇 바깥에 쌍조문(雙鳥文)을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사리호는 이번에 보존처리를 거쳐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유물이다. 이런 새로운 자료는 박물관을 찾는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에는 유물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을 관람객이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확대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유물 돋보기를 설치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관람객이 쉽고 편하게 유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입체적 전시와 함께 다양한 디자인과 색채적 요소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고졸한 미소의 불상 감상하세요”

춘천박물관 테마전… ‘부처와 나한의 미소’

국립춘천박물관이 테마전 ‘부처와 나한의 미소’ 전을 올연말까지 개최한다. 미소를 띤 친숙한 불교 조각상은 전시 관람객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전해줄 것이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아픔과 고통에 잠겨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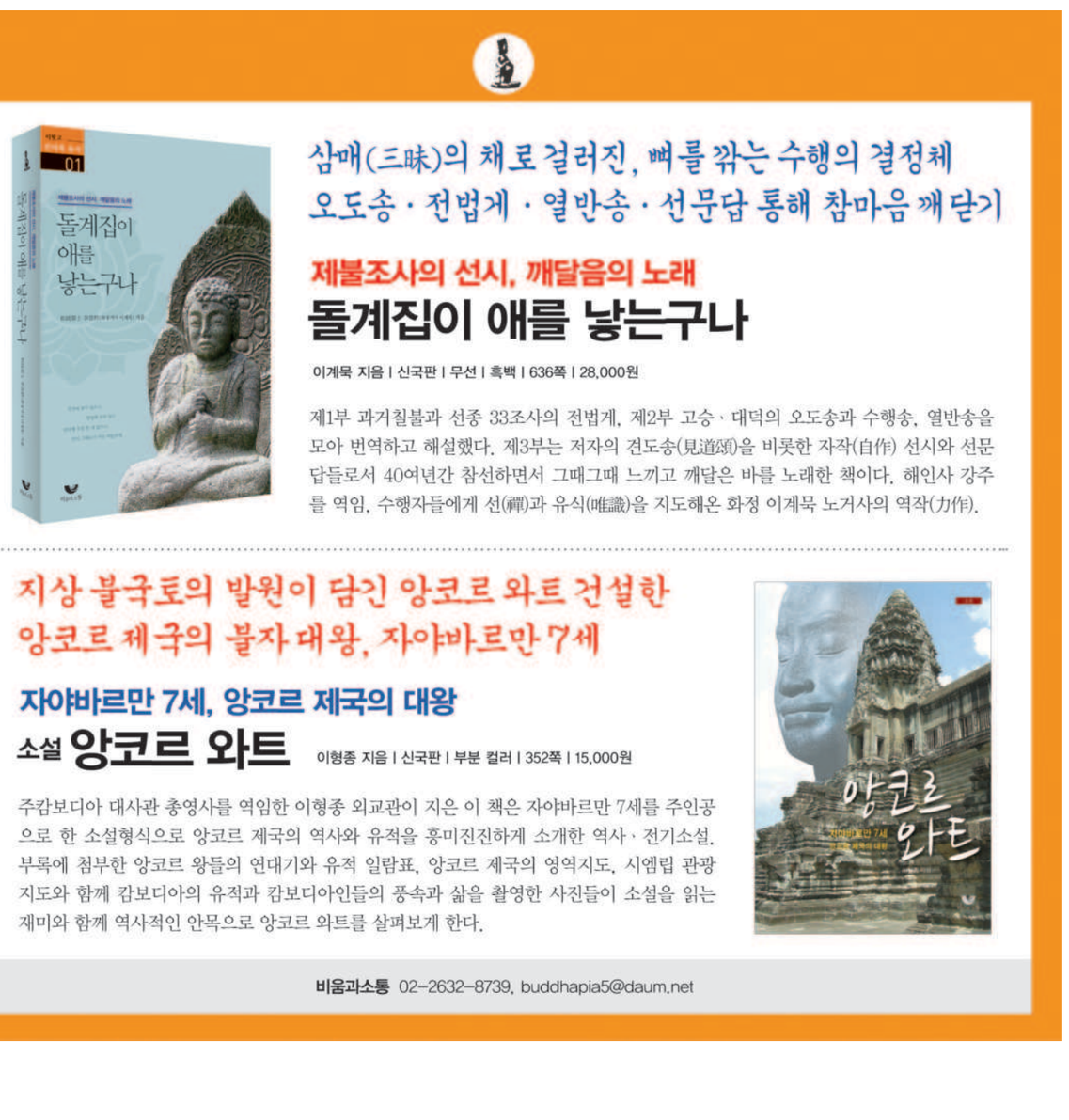
수명을 무한히 늘려주며, 그 명호를 부르면 극락세계로 인도해준다는 아미타불.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시대 석상으로 조성된 아미타불이 선보인다. 또한 영월 창령사 절터에서 발굴된 나한들의 꾸밈없이 담담한 표정과 미소에서는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영월 창령사 절터에서 발굴된 나한상

양 입가를 살짝 눌러놓은 듯한 예스럽고 소박한 미소를 미학적으로 ‘고졸(古拙)한 미소(Archaic Smile)’라 부른다. 삼국시대 이래로 이러한 미소는 고려, 조선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엄숙한 얼굴 위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새겨 놓은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학으로 마음을 달래던 한국인의 심성이 반영되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세윤 작가의 ‘소나무’ 사진도 전시된다. 소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불교 조각상들의 편안한 미소가 관람객들에게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033)260-1523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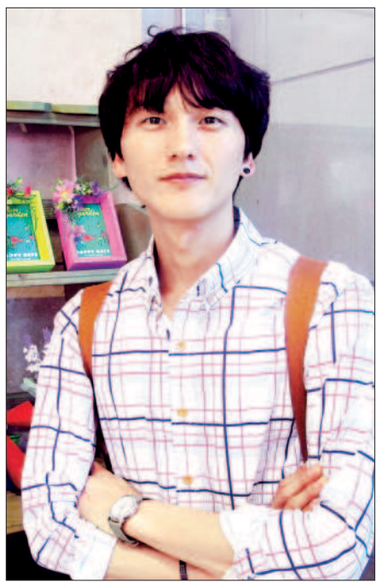




문화人

“길 위에서 배운 깨달음 ‘오리무중’ 으로 풀어냈죠”

카투니스트 김동범(공주영상대 겸임교수)


인기 카투니스트 김동범 씨는 최근 불교 카툰 신문 ‘만만한 뉴스’에 합류하면서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부처가 되고 싶은 오리가 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님이 되었지만 종횡무진 사바세계의 소용돌이 속을 헤쳐 가는 일은 만만치 않음에 분명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오리무중’이다. 좌충우돌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오리무중은 불교의 깨달음을 재미있고 친근감 있게 전해주며 네티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인기 카투니스트 김동범 씨(37, 공주영상대 · 부천대 겸임교수)는 최근 불교 카툰 신문 ‘만만한 뉴스(발행인 지찬)’에 합류하면서 불교를 소재로 한 카툰을 그리기 시작했다. 만만한 뉴스에서 같이 활동하는 작가들 모임인 ‘만만브라더스’와 함께 6월 1일까지 일산 동국대병원서 환우들을 위한 나눔전시를 열고 있는 김 작가는 불교를 알면 알수록 새롭고 즐겁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신자여서 어렸을 적 방학 때는 암자에서 열흘 씩 살만큼 절 생활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딱히 교리를 따로 공부한 적도 없었고 신행생활을 정해놓고 하지 않았기에 불자라고 말하기도 애매했죠. 그러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찬 스님께서 만만한 뉴스 합류를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불교를 알면 알수록 제 가치관과도 잘 맞고 또 ‘오리무중’이라는 주인공을 설정하고부터는 그림도 술술 풀려나가니 너무 즐겁습니다.”

김 작가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불교적 소재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그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네팔, 미얀마, 태국 등 불교국가를 여행하며 길 위에서 세상을 배웠다. 특히, 네팔은 몇 차례 방문하면서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아〉라는 책을 펴냈을 만큼 그에게는 뜻 깊은 여행지가 됐다.

“서른살에 처음 네팔을 갔어요. 카투니스트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던 때였죠. 히말라야 곳곳을 다녔고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도 가봤어요. 룸비니의 한없는 고요함과 평온함에 도취되어 하루종일 그곳에서 그림 작업만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경험은 네팔 오지마을 사람들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에요. 네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가난해요. 그런데 모두가 활짝 웃고 있어요. 결국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만한 뉴스’에 합류하며
불교 소재 작품 선보여
세월호 희생자 추모 그림도

이렇게 52일간의 네팔 여행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되묻게 되었고, 두 세 개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진정 필요한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다. 또 네팔의 5살 소녀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하면 임실군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캐리커쳐 이발관’ 프로그램 진행, ‘시청앞 광장 세월호 희생자 추모 그림 그리기’ 등 물질과 재능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대학 다닐 때는 소외이웃을 위한 빨래 · 목욕 봉사 등을 했지만 생활에 쫓기다 보니 잊고 살게 되었죠. 네팔 여행 이후에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자 캐리커처 그려주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소외이웃은 물론 여행지에서 만난 분들의 캐리커처도 그려줘요. 또 이번 세월호 참사 때는 300여 희생자들이 제주도에 도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료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려 시청광장에 걸기도 했죠.”

이밖에도 김 작가는 꼭 이루고 싶은 나눔이 있다. 바로 네팔 학교에 칠판을 기부하는 일이다. “돌을 칠판 대신 사용하고 있는 네팔 학교들을 봤어요. 돌 표면이 매끄럽지 못해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거 같은 칠판이죠. 그걸 보고 칠판을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지만 방법을 구하다 보면 길이 생길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교 관련 서적을 보면서 조금씩 불교의 세계에 입문하고 있다는 김동범 작가. 그러나 그는 이미 그가 인식하기도 전에 내재된 불성을 찾는 길을 가고 있었는 듯 보인다. 구도의 길에 놓인 지구별 여행자 김동범 작가, 그래서 그의 작품은 밝고 강한 빛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시민들과 함께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시청앞 광장 추모 걸개 그림.



만만한 뉴스에 게재한 ‘오리달마’

근원 밝히는 데 일념을 갖는다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㉒ 논산 관촉사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재미있는 조성연기 설화로 유명하다.

땅에서 솟아 난 돌로 만든 불상

논산 관촉사(灌燭寺)는 ‘은진미륵’이라 불리는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 218호)으로 유명하다. 관촉사의 창건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미륵보살입상이 건립된 것은 대개 968년(고려 광종 19) 무렵으로 보고 있다. 이마의 백호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묵기(默記)에 광종 19년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1743년(영조19)에 제작된 〈관촉사사적비명〉에는 970년(고려 광종 21)에 시작 해 1006년(고려 목종 9)까지 37년 동안 조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묵기의 기록이 더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진다.

이 석조미륵입상은 그 조성 방법과 관련한 연기설화가 유명하다. 즉 한 여인이 반야산에서 고사리를 꺾는데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인은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 아기는 없고 커다란 바위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정에서 혜명(慧明) 스님에게 불상을 조성하게 했다. 혜명 스님은 사람을 시켜 미륵불상을 조성했는데 문제는 그 불상을 세우는 것이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혜명이 어느 날 아래 마을(사제촌)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는 것을 보았다. 가만히 보니 아이들은 돌로 불상을 만들고 그것을 세우는데 흙을 펴다 언덕을 만들고 돌을 굴려 세우는 것이 아닌가? 순간 혜명은 미륵불상을 세울 묘한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로써 불상 조성을 완성했다.

이러한 조성 연기 설화와 더불어 석조미륵보살입상의 신통력으로 북쪽의 오랑캐를 물리친 이야기나 나라에 변괴가 생기기 전에 땀을 흘리고 금빛을 발했다는 설화 등이 전한다.

시로 전승된 기인한 조성연기

〈신증동국여지승람〉제18권 충청도 은진현 불우조에 “돌미륵[石彌勒]이 있는데, 높이가 54척이나 된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고려 광종(光宗) 때에 반야산 기슭에 큰 돌이 솟아 오른 것을 승려 혜명(慧明)이 쪼아서 불상을 이루었다 한다”는 내용과 함께 목은 이색(牧隱 李穡)의 시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목은집(牧隱集)〉 제24권에 전하는 이색의 시가 관촉사와 관련된 가장 노래된 기록이다.

마읍지동백여리(馬邑之東百餘里)
시진현중관족사(市津縣中灌足寺)
유대석상미륵존(有大石像彌勒尊)
아출아출용종지(我出我出湧從地)
외연설색림대야(巍然雪色臨大野)
농부예도충단시(農夫刈稻充檀施)
시시류한경군신(時時流汗警君臣)
용화수 아래에 중생이 가득 모였을 제
이미 그 반열에 자취를 나란히 했었으니
더구나 지금 글을 지어 널리 초대한다면
성심껏 보시하기를 누가 다시 아끼리오.
근원을 밝히는 데 다만 일념을 갖는다면
삼세가 한 치의 마음 사이에 분명해지리.
남으로 바라보니 운산이 그 몇 천 겹 인고
내 지금 허리 다리 뻣뻣한 게 한스러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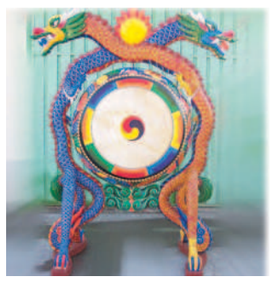
이색의 시는 그대로 ‘은진미륵’의 역사를 설명하는 듯하다. 전해 오는 이야기가 종교적으로 매우 감동적으로 민초들의 가슴을 적셨기에 이색과 같은 선비도 그 이야기를 오롯이 시의 제재로 삼은 것이다. 이 시에서 절 이름이 ‘관촉사’가 아니라 ‘관족사’인 것으로 보아 이색의 시대에는 그렇게 불리기도 했던 모양이다.

이색은 이 시의 제목 자리에 시를 지은 배경을 길게 설명해 두었다. 즉 ‘임술년에 있을 관족사(灌足寺) 미륵 석상(彌勒石像)의 용화회(龍華會)를 주선해 온 한 스님이 나에게 연화문(緣化文)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미 그 글을 지어 주고, 인하여 옛날에 내가 자당(慈堂)을 모시고 진포(鎭浦)에서 배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 절의 법회(法會)에 참여하게 되었던 일과 계묘년 겨울에 향(香)을 내려 법회를 열게 했던 일이 모두 꿈결처럼 기억이 나므로, 단가(短歌)를 지어서 그 사실을 기록하는 바이다.’

이로 볼 때 고려 말기의 관촉사는 미륵신앙을 상당히 깊이 신봉하는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색과 같은 큰 선비가 직접 모연문[연화문]을 지어 법회를 홍보했으니 말이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4 ~ 5/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불광출판사
4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지안	용화
5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6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향적	조계종출판사
7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순묘	담앤북스
8	불교의 모든 것	곽철환	행성비
9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원학	김영사
10	자기에게 돌아오라	춘식	침묵의향기



다도, 차 앞에서 자신의 불성 보는 것

선과 다도

정성본, 김명희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5천원



'다선일여(茶禪一如)', '선다일여(禪多一如)', '끽다거(喫茶去)' 라는 말은 선과 차는 하나라는 것, 그리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닌 경지에서 차를 마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선 수행과 차 마시는 일을 어떻게 둘이 아닌 하나의 경지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은 그 동안의 '다도' 에 관한 정의를 한 차원 높여 참된 '다도' 의 의미를 짚어준다.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도는 하나의 문화생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차를 마시는 격식 혹은 풍류로서의 다도는 많이 소개된 반면, 그 정신적인 면은 크게 다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걱정하며 선과 차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 아래 선불교적인 관점에서 다도의 의미를 되짚어 준다.

선(禪)이란 번뇌 망념의 중생심을 탈피하여 각자의 청정한 본래심을 자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매사의 일을 지혜롭고 창조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는 선에서 제시한 도(道)이다. 이에 육조혜능 스님은 '마음으로 깨닫는 지혜 작용이 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도 역시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다도는 청정한 다실에서 선지식이나 도반들이 함께 대화하며 지혜와 인격을 나누면서 주객이 화합하고, 공경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살도를 행하는 일이다.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일, 즉 시절인연과 함께 하는 지금 여기의 자기 본분사를 지혜와 인격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선과 다도의 문화생활인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의 다도란 '도'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차 앞에서 스스로의 무한한 가능성인 불성을 자각하여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펼쳐나가는 일이라고 책은 강조한다.

책은 다도에 쓰이는 다양한 선구(禪句)를 풀이함으로써 선사상을 보여준다. 또한 익숙한 선문답이나 추사 김정희의 선다시(禪多詩)에 나타나는 선어들을 경전 등 여러 문헌을 참조해 구절들을 풀이하고 있어 어렵다고 생각되는 선사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특히 1부 끝에는 '수처작주(隨處作主),'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진여, 여래, 무아 등 다도에 많이 쓰이는 선어들의 뜻풀이를 수록하여 평소 다도를 즐기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다도 역시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다도는 청정한 다실에서 선지식이나 도반들이 함께 대화하며 지혜와 인격을 나누면서 주객이 화합하고, 공경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살도를 행하는 일이다.

선불교적 관점에서 '다도' 짚어
자기 본분사 지혜와 인격으로
나누는 것이 '선' 과 '다도'

2부에서는 선불교적인 관점에서 다도를 생활화 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도를 통해 자기 수행 및 자기 치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좌선과 명상과 같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선과 다도' 의 또 다른 묘미는 다실의 구체적인 사물에서 선의 의미를 찾는다는 데 있다. "(다도에서) 기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청정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저자는 다구를 비롯하여 다실의 분위기를 꾸미는 다화, 다실에 걸어두는 묵적 등에 깃든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물들이 제각각 선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다실을 살펴봄으로써 독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게 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단순히 도구로만 인식되던 사물들과 새롭게 관계 맺으며 창조적인 삶을 전개해 나 갈 수 있다.

요즈음 각박한 삶에 지친 개인을 위로하기 위해 수많은 '힐링' 요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의 삶 속에 깊이 다가가지 못한 채 일시적인 해결만 줄 뿐이어서 오히려 갈증을 나아내고 있다. 바로 이 때, 〈선과 다도〉가제시하는 다도생활의 힐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각의 종교인 선불교에서는 스스로 선을 생활화하여 타인의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친다. 다도는 바로 이러한 선불교에서 선 생활의 한 부분으로 시작된 것이다. 책에 따르면 한 잔의 차와 마주하여 주객과 자타, 범성과 미추 등의 상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날 것을 조언하는 다도는 자유로운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얻게 하여 근본적인 자아힐링을 가능하게 해준다.

오랫동안 선과 다도를 연구해 온 두 저자가 내놓은 〈선과 다도〉는 값비싼 다도구와 옷차림 등 격식과 외형적인 것이 다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다도를 이해하고 진정한 다도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어 다도에 관한 좋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두려움 없는 사자처럼' 살아가려면

늘 기쁜 마을 편지

지현 지음 | 성보문화재연구원 펴냄 | 1만8백원



"숲 속의 짐승 중에 사자를 겁내지 않는 것이 없으니 오직 사자만이 자유로이 활보한다. 저 지혜로운 사람이 몸은 작으나 그릇이 크나니 겉모양만 보고서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큰 몸에 살은 많이 쪘으나 지혜가 없으면 무엇에 쓰랴. 저 비구 지혜 있어 훌륭하니 그가 바로 천상의 사나이라. 탐욕을 떠나 결박을 끊고 열반을 얻어 윤회하지 않나니 그는 저 마지막 육신으로 모든 악마를 항복시켰느니라. 〈잡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외모를 핑계로 타인을 업신여기는 제자들에게 설법하신 게송이다. 책은 저자인 지현 스님의 지상 설법으로, 대중이 삶을 여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불조의 말씀을 골라 싣고 그에 대한 의미와 부연 설명을 붙인 것이다.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면 명산, 물이 깊지 않아도 용이 살면 명천, 절이 높지 않아도 진정한 수행자가 살면 큰 절, 사람이 잘 생기지 않았어도 지혜와 덕이 있으면 대인이라고 합니다."며 "누구든지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으로 큰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게송의 구절처럼 탐욕을 떠나면,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어집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면 타인의 시선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성형수술 하지 않고도 세상이라는 숲 속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겁먹지 않는 사자처럼" 이라고 서두의 부처님 말씀을 풀어준다. 부처님 말씀이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지만 책은 그 중에서도 대중이 아무에게도 겁먹지 않는 사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할 이야기들을 가려 뽑았다. 스님은 〈숫타니파타〉에서부터 각종 대승경전 뿐만 아니라 선승들의 어록에 이르기까지, 스님 자신에게 등불이 되었던 불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 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가지곤 한다. 그 의문은 '삶과 죽음' 이라는 명제에 대한 본질적 궁금증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실천적 궁금증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매우 철학적이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마치 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삶에 대한 수수께끼를 부처님의 법을 통해 하나씩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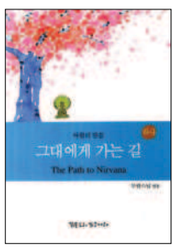
책 속에 인용된 불조의 말씀들은 먼저 깨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깨달음' 이란 한 마디의 말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분명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올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마음인 것이다. 지현 스님은 율사로서 도덕적 실천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다. 올바른 가르침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출세간 구분 없이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고 또한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참다운 수행자로서의 자세' 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또 다른 수행자라고 얘기하는 저자는 "참다운 수행자가 많은 세상이 바로 '늘 기쁜 마을' 인 것이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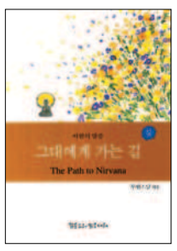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길잡이 소가 길을 잘 잡아야"

그대에게 가는 길–하나, 둘

무원 스님 엮음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각 권 1만원





"소 떼가 강물을 건너갈 때 길잡이 소가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뒤따르는 소들이 물에 빠지나니 이는 길잡이 소가 길을 잘못 선택한 때문이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대중에게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나니 지도자가 법답지 못하면 아래 사람들도 모두 법답지 못하게 된다."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이 〈아함경〉의 구절들을 간추려 대중이 알기 쉽게 엮었다. 위는 〈증일아함경〉 중에 있는 말씀으로, 임금인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의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법문이다.

이와 같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등 각 사안별로 대중들에게 필요한 법문을 쉬운 설명을 곁들여 들려준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이다.

무원 스님은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스님의 오랜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계층 간 민족 간의 다양성과 융합의 방안 등 일선에서의 이야기들도 책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저자는 "이제 세상은 다양한 요구로 사람들을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며 "사찰과 스님들의 역할에도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함의 말씀을 간추린 이 책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고 출간의 취지와 의미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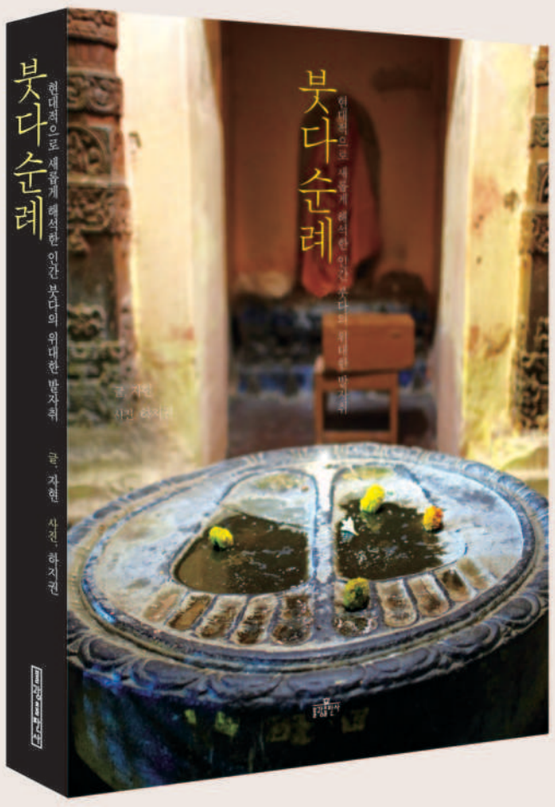
책의 본문은 1권 불교적 주제와 2권 비불교적 주제로 나눴으며, 귀의 · 가족 · 집착 · 마음 · 생활 · 슬기 · 업보 · 자비를 1권(하나)에서 다루고 있으며, 인생 · 인연 · 욕망 · 간호 · 정치 · 경제 · 환경 · 다문화다종교 · 노사 · 인권을 2권에서 다루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사안에서 사회적인 대안으로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성세대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우리의 불교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다문화시대에 부합되도록 다문화다종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이 다른 도서들과 비교되는 점이다. 책 〈그대에게 가는 길〉은 초심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아함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붓다 순례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인간 붓다의 위대한 발자취

철학, 역사, 문화를
종횡무진 오가며
신화에 가려진 인간 붓다의
참모습을 만나다

2012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 세계』의 저자이자
불교TV 〈숨겨진 사찰의 미(美)〉의 명강사 자현 스님이
명쾌한 언어로 흥미롭게 풀어낸 '우리가 몰랐던 붓다와 불교 이야기'



이 책에 담겨 있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붓다와 불교 이야기

- 붓다는 4월 8일에 탄신하신 게 아니다.
- 마야부인은 7일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 녹야원의 첫 설법 장소는 잘못된 것이다.
- '자등명 법등명'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 붓다의 탑은 살아 계셨을 때도 유행했다.
- 사라쌍수는 그물 침대를 매기 위한 것이다.
- 붓다의 열반일은 2월 15일이 아니다.

불교 전문 사진작가
하지권의
인도 성지 순례 사진
100여 장 수록!



글_자현 | 사진_하지권 | 352쪽 | 올컬러 | 18,000원

자현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교무국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울산 영평선원 원장, 월정사 부산포교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된 『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 세계』, 2012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불교미술사상사론』 등을 썼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유학에 혹한 대학생, 진짜 불교 만나다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지음
동아시아 펴냄
1만5천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책의 첫 출발은 바로 이런 연유서 시작됐다. 이런 고민을 염두에 두고 불교와 관련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간다. 도쿄대 불교학과에 유학 중인 저자는 불교에 관한 문헌학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이 불교의 진짜 속살이고 덧칠된 것인지 가려내는 작업을 시도한다.

책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서부터 서역과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는 2,500년 동안의 거대한 문화사적 흐름을 초심자 수준의 눈높이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즉 인도에서 기원해 중국, 우리나라 및 티베트로 전해진 불교의 전개 과정과 경전 성립과정서 중요한 역사적 대목의 발자취를 하나씩 되짚는다. 동시에 이 책에는 저자가 도쿄대서 불교학을 공부하기까지의 사연을 우연과 필연이 뒤섞인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엮어낸 개인적 구도기도 소개돼 있다.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 스님으로 출가한 사촌형과의 인연, 도쿄대 유학 자금 마련을 위해 서른이 넘어 다시 수능을 보고 대학에 입학한 사연,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겪은 재미있는, 그러나 차마 웃지 못할 일화도 함께 전한다.

불교는 발상지인 인도뿐 아니라 서역과 중앙아시아, 티베트, 중국 등 역사적으로 광대한 시공간을 무대로 끊임없는 문화적, 지역적 변용을 거치면서 우리가 아는 불교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불교의 전래 과정을 추적해 가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서 이 책은 우리가 익히 아는 〈티베트 사자의 서〉에 대한 미신과 오해를 산스크리트어-티베트어 원전 지식에 근거해 바로잡는다. 또한 서양 불교학 연구에 중요한 기초가 됐던 19세기말~20세기초 유럽인으로 구성된 둔황 탐험대의 불교 고사본 발굴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전한다.

특히 만화 영화인 은하철도 999의 창작 모티브를 〈화엄경〉서 찾는 대목에서는 저자의 독특함이 돋보인다. 문수보살의 인도로 구도 여정을 떠난 선재동자가 53인의 선지식을 만나 보살도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화엄경〉 스토리가 은하철도 999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상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거기에다 〈화엄경〉 성립과정을 끈기 있게 추적해 들어가면서 주인공 선재동자가 펼치는 구법 여정을 통해 그가 실현하려 했던 보살의 이상에 대해서도 살

개인적 에피소드 중심의 구도기
불교 전개과정 중 주요 발자취 짚어
〈용수보살전〉 내용 새로 각색해 소개

펴본다. 또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한국 불교의 전개과정과 다양한 양상들을 소개하는 것 외에도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와 중앙아시아로 떠났던 구법 여행기, 그리고 손오공이 신라 왕자 출신이라는 '손오공 신라 왕자설' 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꼼꼼히 짚어본다.

이외에도 '불교' 하면 떠올리는 공(空)이라는 번역어의 정착과 중국인의 불교 이해에 크게 기여한 파란 눈의 역경승 쿠마라지바 삼장법사, 일체법의 공성(空性)을 선언한 〈반야경〉, 그리고 이 경전이 선언한 공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철학적으로 확립해 제 2의 붓다로 추앙받은 대사상가 나가르주나(용수)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들려준다.

책의 마지막에는, 쿠마라지바가 번역해 전해준 〈용수보살전〉의 내용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각색해 소개한다. 특히 주인공 나가르주나가 육체의 애욕에 눈이 멀어 궁궐의 왕녀들을 탐하다 함께 간 친구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 그리고 이 사건으로 깨달음을 얻어 승단에 귀의하는 대목에서는 나가르주나의 인간적 고뇌와 함께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로 마치 현대에 환생한 나가르주나의 모습을 대하는 것 같은 스릴과 박진감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이 책은 불교의 총체적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우리가 평소 알던 불교가 어떤 맥락에서 나타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붓다는 겸험에 근거한 현실주의자" … 현대과학의 눈으로 본 붓다

해커붓다

김병훈 지음 | 반디출판사 펴냄 | 1만4천원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인간을 비롯한 중생이 끝없이 윤회하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500년 전의 이 사건이 바로 불교의 시작이다.

윤회는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이다. 윤회를 실현하는 우주의 존재법칙이 있고, 이 법칙을 깨고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붓다의 깨달음에 따르면 중생은 살면서 축적한 업(業 · 카르마)의 정보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다시 태어나서 죽는 무의미한 삶을 무한 반복한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우주의 존재법칙이다.

그리고 해탈은 이런 존재법칙을 깨고 벗어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붓다는 팔정도를 닦아 일체 욕망을 버림으로써 업의 정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해탈에 이른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부처님 열반 후 2500년이 지나면서 그의 본래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채 불교는 점차 어렵고 복잡해졌다. 온갖 형이상학적 사상이 유입되면서 남방(소승)불교, 대승불교, 티베트불교, 선종(禪宗) 등 시대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과 내용으로 달라졌다. 이에 대해 일본의 불교학자 마스타니 후미오가 "불교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다.

이 책은 붓다의 육성에 바탕을 둔 초기 불교로 돌아가는 것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초기경전에 담긴 붓다의 본래 가르침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게 안내한다. 선문답 같이 난해하기만 한 가르침과 달리, 21세기답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고, '윤회' 는 어떤 것이며 '해탈' 을 어떻게 이루는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저자는 윤회란 번뇌에서부터 괴로움에 이르는 12연기라는 생명체 무한재생프로그램에 따라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과정서 각 생명체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전생에 쌓은 '업' 에 의해서라고 한다. 해탈은 12연기나 업같은 정보를 완전히 리셋해 윤회의 사슬을 끊는 일종의 '해킹' 인 셈이며, 저자가 책의 제목에 '해커붓다'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라고 한다.

붓다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버리고 출가했다. 사람이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지, 이런 운명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다. 붓다는 자신의 수많은 전생을, 중생의 죽고 태어남을, 모든 번뇌가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을 맑은 눈으로 보고 알았다. 이것이 우주 존재법칙, 그리고 그 존재법칙서 벗어나는 '해탈' 의 발견이다. 뇌과학과 심리학의 틀을 적용하면 혼란스런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정보와 정보처리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윤회를 설명하는 12연기의 의식 또는 존재, 그리고 업(業)이 곧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상-괴로움-무아' 와 공(空)으로 이어지는 가르침도 명쾌하게 드러난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빅뱅으로 우연히 생겨난 '우주' 에서 중생의 거듭되는 '윤회' 가 있고, 블랙홀에 빨려든 물체가 소멸해도 우주 만물의 근원인 '정보' 는 사라지지 않는다. 스티븐 호킹의 우주론과 붓다의 윤회론은 닮은 점이 있다. '정보' 를 매개로 두 이론의 접목한다면 이제껏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을 해결할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주

중생은 축적된 업을 통해 재 탄생
해탈은 존재법칙 벗어나는 해킹
불교, 발생과 소멸 탐구하는 과학

과학은 사람을 탐구하지 않았고, 윤회론 역시 우주를 관심에 두지 않았다. 정보를 탐구하는 현대과학의 틀 안에서 우주와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싹튼다면, 붓다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저자는 말한다. 부처님은 재가신도들에게 행복의 첫째 요소로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들었다. "가난한 것과 빚을 지는 것은 세상에서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출가를 권하지도 않았다. 땀 흘려 일해서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키우는 재가신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했다. 그는 정당하게 얻은 재물로 자신과 부모, 처자 그리고 하인과 일꾼들,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했다.

부처님은 또 계급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답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하인과 일꾼들에게 역량에 따라 일을 배당하고, 음식과 급료를 주며, 병들면 치료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때맞춰 쉬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세속을 멀리하기는커녕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되는 대목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20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불교에 관심 갖게 된 저자가 현대적 언어로 붓다의 말씀을 소개하는 글들이 돋보인다. **김주일 기자**

일러스트와 함께 떠나는 산사로의 여정

스님, 계십니까

권중서 글, 김시훈 그림 | 지식노마드 펴냄
1만 8500원



사찰과 암자 25곳을 소개하는 책 〈스님, 계십니까〉를 여는 첫 장의 제목이 "그래도 사랑뿐이다"라니, 그것도 절에 얽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다. 북으로 간 시인 백석을 평생 기다리며 살아 온 김영한 보살이 1천억원대의 요정 대원각을 염주 하나와 맞바꿔 탄생하게 된 '서울 성북동 길상사', 대담한 성적 묘사가 조각된 환성사 대웅전의 수미단 등이 원효와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 등과 더불어 1장에 소개돼 있다. 왜 사랑 이야기로 사찰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을까?

시험공부 하듯 문화 유적 안내판을 외우는 것 말고, 깊은 공부가 필요한 어려운 화두에 매달리는 방식 말고, 그저 일상사 때문에 힘들고 머리 복잡할 때 문득 찾아가서 나만의 방식으로 느끼고 감상하고 생각해보길 권하는 저자의 뜻을 책을 읽다 보면 느낄 수 있다. 너무도 흔하지만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사랑이란 주제로 책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절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절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공부 하듯 절을 찾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말이다.

주목 받는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김시훈의 일러스트를 100개 넘게 곁들인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사진은 정확하지만 차갑다. 그에 비해 일러스트는 따뜻하고 보는 이의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상상의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준다. 글 작가와 뜻이 통하였는지, 일러스트레이터 역시 자신의 시선과 느낌에 따라 자유롭게 그렸다. 때로는 부처님은 한 컷도 없이 절 한 켠에서 태평하게 졸고 있는 개가 주인공으로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꼭지도 있다.

저자는 참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기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자연이 있고, 의미가 깊은 25곳의 사찰과 암자와 옛 절터를 골랐다. 늘 사람에 치이며 살지만 외로운 도시 사람들에게, 인적 없는 산중에서 오히려 더 진정한 사람의 내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난 문화재가 없이 흔적만 남아 있는 옛 절터라도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가 있다면 포함시켰다.

김주일 기자

명상은 아이의 통찰력 키우는데 효과적

엄마의 명상으로 아이가 달라진다

카렌 밀러 글 | 김은희 번역 | 티움 펴냄
1만 3700원



이 책의 저자는 아이 키우는 일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미리 준비하거나 연습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직 현재의 즉각성만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렇게 매순간 아이에게 집중해야하는 일이기에 엄마들이 어렵고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힘들고 어렵기만한 육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그냥 가르치듯 뻔한 이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가슴으로 느끼게끔 저자의 체험을 들려준다. 저자의 딸이 두 돌 가까이 됐을 때 일이다. 아이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헤드뱅잉' 을 하곤 했다. 딸과의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면 아이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저자 자신도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나이 때에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한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아직도 헤드뱅잉을 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자신이 고집 부리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또 머리를 짜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 들 것이다. 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아이가 쓰는 방법보다 더 미묘하다. 자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딱딱한 바닥을 머리로 망치질하는 아이보다 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저자의 육아 과정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똑같이 경험한 일들이다. 그래서 누구나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명상하는 사람답게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끝내지 않고 그 것에 깊은 통찰을 더한다. 따라서 독자는 저자의 이야기에 동화돼 '그래 그래' '맞아 맞아' 하며 따라 가다보면 어느덧 힐링이 되고 자신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책은 30개의 장이 총 5부로 나뉘어 있다. 1부는 도입부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미리 말한다. 2부는 한순간에 폭풍처럼 밀려온 육아의 부담감으로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3부와 4부는 아이가 있기에 자신이 엄마일 수 있음을 터득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5부에서는 자신이 엄마임을 깨닫는 순간 육아는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붓다의 물리학
8. 특징물질

“몸을 무상으로 볼 때 몸에 대한 집착 사라져”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물질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가진 물질(사바와루빠)과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지 못한 물질(아사바와루빠)로 나눌 수 있다. 사대는 각자 자신의 고유한 본성과 특징을 가진 물질이다. 경안성, 유연성 그리고 적응성과 같은 물성들은 고유한 본성은 없지만 물질의 성질들을 가진 물질이다. 〈담마상가니〉(596)에 28가지 물성의 종류들의 리스트에 그들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가진 물질들 뿐 아니라 물질의 성질들과 물질의 특징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거기에는 물질의 특징인 네 가지 다른 물성들, 즉 특징물성(들락카나루빠)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고유한 본성을 가진 물질(사바와루빠)에 공통된 이들 네 가지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일어남 또는 발생(우빠짜야) /지속됨 또는 발전(산따띠)/ 쇠퇴함 또는 성숙(자라따) /사라짐 또는 무너짐(무상, 아니짜따)

물성들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고 다양한 그룹(깔라빠)으로 일어난다. 물질 그룹들은 생기고 사라지지만 마음과 같이 빠르게 사라지지 않는다. 물질은 마음이 연이어 생기고 사라지는 열일곱 마음찰라 동안 유지된다. 물질이 일어난 후 나타나는 순간 즉 지속됨 또는 발전하는 순간이 있다. 쇠퇴함(자라따루빠)은 사라짐에 가까운 순간을 나타내는 특징이며, 사라짐(아니짜따루빠)은 사라져 버리는 순간을 나타내는 특징이다.

우리는 우리 몸의 물질들이 사라지고 계속 반복해서 새 물질이 생성되고 다시 사라지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업, 마음, 온도 그리고 영양분은 물질들을 계속 생산하여 이렇게 우리 몸의 기능이 계속 될 수 있다. 이들 물질들은 짧은 순간에 생기고, 유지되고, 쇠퇴하여 사라진다.

〈앗타살리니〉 (2, 2권, 1부, 2장, 327)와 〈청정도론〉 (14장, 66, 67)에서도 일반적이고 관습적 관점에서 생의 첫 순간에 물질의 발생, 최초 일어남과 재생에서 최초 일어남 이후에 ‘연속성’, 다시 말하자면 연이어 물질그룹들의 일어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이 물질의 특징들은 다른 방법들로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물질이 일어나서 쇠퇴하여 사라지기전에 유지된다고 하거나 또는 관습적 관점에서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르친다.

일어남, 지속됨, 쇠퇴함, 사라짐으로 표시되는 물질의 특징들을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물질의 특징들을 관습적인 관점에서 가르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 능력에 적합하도록 가르친다.

〈앗타살리니〉 (2, 2권, 1부, 2장, 327)에 더 넓은 관점에서 관습적 용어를 써 생의 최초 순간의 물질의 발생과 연속된 물질의 발생으로 물질의 지속됨이 설명되어 있다. 우리의 일생동안 물질의 생성의 연속성이 있다. 지속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① **“지속됨은 계속적인 발생하는 특징과 중단 없이 연결하고 묶는 기능을 가지며, 중단 없는 연속으로 드러나며 중단 없이 묶인 물질을 가까운 원인으로 가진다”**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속됨의 정의는 영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몸은 단지 사라지는 물질을 새로 만들어진 물질이 연속적으로 교체되는 것에 기인할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청정도론〉 (14장, 68)에 쇠퇴함 또는 성숙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② **“쇠퇴(늙음)는 숙성해지는(익어가는) 물질의 특징을 가진다. 그 기능은 종국으로 향해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묵은 벼처럼 개별적인 본성을 잃지는 않았지만 싱싱함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나며, 가까운 원인은 숙성해지는(익어가는) 물질이다. 이것은 부러지거나 해서 치아 등에 변화가 명백히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성숙함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청정도론〉의 주석에 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벼가 오래되면 거칠어지지만 그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벼이다. **“성숙함이란 그것이 현존하는 순간들 동안에 일어나므로, 그래서 자연현상의 법칙담마는 그것의 특유한 본성을 결코 빠트리지 않고 일어난다.”**

이와 같이 여기 주석에서 일반적이며 관습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않아도 쇠퇴함을 하나의 물질의 네 가지 특징들의 하나로서 사라짐에 근접한 순간으로 말하고 있다. 색과 같은 물질이 일어난 후에 유지되는 순간이 있고, 쇠퇴하고 그리고 사라진다. 유지되고 쇠퇴하는 것은 동일한 물질이며, 그것은 그 특유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

〈앗타살리니〉에 〈담마상가니〉에서 사용된 노쇠, 하얗게 셈, 주름, 수명의 줄어듬, 능력의 난숙과 같은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다.

③ **“… ‘노쇠’ 란 단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아, 손톱 등이 부러진 상태에 대한 이유가 되는 작용을 나타낸다. 하얗게 셈은 머리와 몸의 털이 백발이 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작용을 나타낸다. ‘주름’ 은 육체를 시들게 하는 피부의 주름짐 상태에 대한 이유가 되는 작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들 세 용어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쇠퇴함의 작용을 보여준다.…”**

‘수명의 축소와 능력의 만기’ 라는 용어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들은 쇠퇴함의 결과로 생기는 본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적혀 있다.

④ **“…쇠퇴기에 도달한 사람의 수명은 줄어들기에 쇠퇴란 수사적 표현으로 축소라고 불린다. 게다가 시력 등과 같은 능력들은 젊었을 때는 아무리 미묘한 것이라도 각 오감의 인식대상을 쉽게 포착할 수 있지만, 쇠퇴기에 접어든 자는 그것들이 수명이 다하여 장애가 있고 뚜렷하지 않아 아무리 큰 각 오감의 인식대상을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치아의 쇠퇴, 피부의 주름 그리고 머리의 백발을 알게 될 때 쇠퇴는 분명해 진다. 그러나 일어난 각각의 물질은 곧 쇠퇴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무상(아니짜따)에 관해 〈청정도론〉(14장, 69)에 그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생멸현상에 집착하거나
> 마음과 물질 혼동하면
> 지혜의 계발 · 깨달음과 거리 멀어
>
> 본성 물질과 본성없는 물질
> 정확히 구분 못하면 바른 수행 못해

⑤ **“물질의 무상은 완전히 무너지는 특징을 가진다. 그것의 기능은 물체를 해체시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무너짐과 사라짐으로 나타난다. 그것의 가까운 원인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물질이다.”**

〈청정도론〉의 주석서에 무상에 대하여 각각의 물질의 사라짐으로 설명하고 있다.

⑥ **“그것의 기능은 (물체를) 해체시켜 사라져 버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이것(무상)이 지속(순간)에 도달한 물질을 말하자면, 해체시켜 버린다. 그리고 물질현상의 해체상태 때문에 이것(무상)은 무너짐과 사라짐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무너짐과 사라짐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물질이 생기자마자 바로 종국으로 향해가서 완전히 파괴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여전히 무상의 진리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 마음과 물질의 생멸에 대해 깨달은 바른 이해와는 다른 것이다. 깨달음이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결코 상상할 수 없다. 사람들은 생멸현상에 대한 개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지혜의 계발이 아니다. 마음과 물질은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마음과 물질을 여전히 혼동한다면, 생기고 사라짐[무상]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 깨달음은 여러 단계들로서 계발되어 사람들은 어떤 단계도 건너뛸 수 없다. 먼저 이 두 종류의 실재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음은 단지 마음이고 물질은 단지 물질임을 아는 정확한 지혜가 있어야만 한다. 마음과 물질이 무상하다는 지혜가 계발되는 것은 더 나중의 단계에 가서야만 이루어진다.

〈앗타살리니〉 (2, 2권, 1부, 2장, 329)에 탄생, 노쇠, 사망을 세 적군으로 비유하고 있다. 탄생은 어떤 이를 숲에 데려 가는 자이고, 노쇠는 그를 던져 버리는 자이고, 사망은 그의 목을 베는 자로 비유하고 있다.

⑦ **“…탄생은 그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적군과 같다. 왜냐하면 그는 이곳 혹은 저곳에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노쇠는 그가 숲에 도달했을 때, 때려서 땅에 쓰러지게 하는 적군과 같다. 왜냐하면 생성된 오온(칸다)은 허약해서 다른 이들에게 의존해서 긴 의자에 눕기 때문이다. 사망은 그가 땅에 쓰러지면 칼로 그의 머리를 베는 적군과 같다. 왜냐하면 노쇠해진 오온은 생명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모든 조건 지어진 실재들은 영속될 수 없어 피난처가 없다는 불리한 처지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마음과 물질의 생기고 사라짐에 관해 지혜(빤냐)로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위험을 파악할 수 없다. 〈디가나카의 경〉(맛지마 2, 74)에 붓다가 디가나카에게 몸은 쇠퇴하기 쉽고, 무상하며 무아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다.

⑧ **“그러나 악기베싸나여, 물질적 형상을 가지고, 사대로 만들어지고, 밥과 죽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닳아 버리고, 상처나고 부러지고 흩어지는 성질을 가진 이 몸은 무상하고, 고통이고, 병이고, 종기이고, 화살이고, 불행이고, 고뇌이고, 남이고, 쇠퇴이고 공허한 것이고, 무아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몸을 무상으로, 고통으로, 병으로, 종기로, 화살로, 불행으로, 고뇌로, 남으로, 쇠퇴로, 빈 것으로, 무아로 간주할 때, 몸에 대한 욕망, 몸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구속 그 어떠한 몸에 관한 것들이라도 제거하게 된다.”**

발생, 지속, 쇠퇴, 파괴는 모든 고유한 본성을 가진 물질들(사바와루빠)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 네 가지들은 그들 고유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고유한 본성을 가지지 않은 물질(아사바와루빠)이다. 이 특징들은 업, 마음, 음식과 온도라는 물질을 만드는 네 가지 요인들에 의해 생성되지 않는다. 물성은 28가지 종류들로 분류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땅 물 열 바람
눈의 감성 귀의 감성 코의 감성 혀의 감성 몸의 감성
색상 소리 냄새 맛
여성기능 남성기능 심장토대 생명기능 영양소
허공 몸짓 암시 말의 암시 경안성 유연성 적응성 발생 지속 쇠퇴 파괴

물성들은 네 개의 근본 물성과 스물 네 개의 파생된 물성들이 있다. 네 개의 근본 물질은 사대물성이다. 파생된 물질들(우빠다루빠)은 사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다른 스물 네 가지 물성이다.

물질은 거친 것과 미세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제 4장에서) 12가지 종류들의 물질들은 거칠다. 형상, 소리, 냄새, 맛, 그리고 사대 중 세 가지 몸의 감성으로 알 수 있는 대상(물 성품을 제외), 또한 다섯 가지 감성물질들, 이것들은 부딪히기 때문에 거칠다. 형상은 눈감성에 부딪히고, 소리는 귀감성에 부딪히고, 그리고 다른 감각대상들도 각각 적합한 감각토대에 부딪힌다. 그 외의 16가지 물질들은 미세하다. 미세한 것은 본성을 쉽게 꿰뚫을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라고 일컬어진다. 반면 거친 것은 쉽게 본성을 꿰뚫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라고 불린다.

또한 다르게도 구분할 수 있다. 물질들은 그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가진 물질들(사바와루빠)과 그 자신의 본성이 없는 물질(아사바와루빠)로 분류할 수 있다. 12가지 거친 물성들과 미세한 물질들 중 여섯 가지, 즉 물 성품, 영양소, 생명기능, 심장토대, 여성기능, 남성기능은 그 자신의 고유한 본성과 특징을 가진 물성들이다.

그 외의 미세한 물질들은 그 자신의 독특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고유한 본성이 없는 물질들이다. 이것들 중에는 마음에 의해 생성되는 나누어 얻을 수 없는 8원소 물질들의 ‘어떤 독특한 변화’ 인 몸짓과 말의 암시 두 종류가 있다.

게다가, 두 가지 암시 물질과 같이 변화 가능한 물질(위까라루빠)로 분류되는 경안성, 유연성, 적응성의 세 성질들도 고유한 본성이 없는 물질에 포함된다. 또한 물질그룹들의 범위를 경계 짓는 허공물질 아까사과 물질의 발생, 지속, 쇠퇴 ,파괴라는 특징들 네 가지도 포함된다.

물질은 생성된 물질(닙판나루빠)과 생성되지 않은 물질(아닙판나루빠)로 나눌 수 있다. 그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가진 물성들(사바와루빠)은 ‘생성된’ 으로 부를 수 있고, 그 자신의 본성이 없는 물성(아사바와루빠)은 ‘생성되지 않은’ 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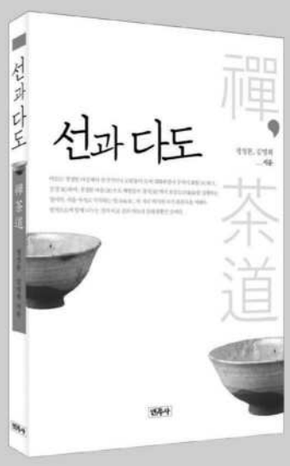
마음에 의해 생성된 두 종류의 암시, 마음에 의해 생성된 경안성, 유연성, 적응성 세 성질들, 온도 또는 영양분 그리고 사대에 의해 만들어 진 물질그룹을 경계 짓는, 그래서 이 사대로부터 발생하는 허공 등은 ‘생성되지 않은’ (아닙판나)으로 불린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독특한 본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체적인 물질’ 이 아니다.

각각 그들 자신의 독특한 본성을 가진 ‘생성된 물성들’ 을 〈청정도론〉(18장, 13)에는 ‘깨닫기 적합한’ 즉, 바른 지혜가 계발될 수 있는 대상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상이나 단단함은 나타날 때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져서, 지혜(빤냐)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무아로 깨달을 수 있다. ‘생성되지 않는 물성’ 들은 그들이 변화가능성과 같은 물질의 성질들이거나 물질그룹들을 경계 짓는 물질이므로 ‘깨닫기 적합하지 않은’ ‘생성되지 않은 물성들’ 이다. 우리가 이 구분을 모르면 잘못된 수행을 할 수도 있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차를 마신다는 것은 우주의 생명을 마시는 것”
선(禪)에 대한 이해를 넓혀, 다도생활에 흥미와 깊이를 더하는 책



선과 다도
취향에만 몰두하는 오늘날 다도에 일침을 가하다!
참된 다도생활로 안내하는 다도의 새 지침서
다도는 단지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다! 다도생활을 통해 불성을 깨닫고 지혜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선과 다도는 “선(禪)과 차(茶)는 하나”라는 선불교적 관점에서 다도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 정성본, 김명희 지음 | 신국판 296쪽 | 13,000원

“자아 힐링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선다(禪茶)의 힐링”
참된 다도생활로 안내하는 다도의 새 지침서
다도를 통해 자유로운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각박한 삶 속에 무너진 자신을 일으켜 세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과 다도』는 좌선과 명상과 같은 선다생활의 방법들을 소개한다.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깊이와 넓이를 모를 정도로 방대하여 팔만사천대장경이라 불리는 불교경전!
불교의 핵심·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놓았다.



유마경과 이상향
“유마경의 번역과 더불어 해설 내지는 잡다한 군더더기를 덧붙였는데, 이는 독자에게 본문 이해와 함께 일반적 불교 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였다.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도한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 화공 강의 | 신국판 양장본 604쪽 | 29,500원

대한민국호를 타고 함께 업을 짓고 사는 우리들…
이즈음 세월호 참사로 혼돈과 좌절과 아픔 속에 헤매는 우리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이 땅을 이상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책.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사바세계, 불교는 물론이고 동서양 철학을 꿰뚫은 화공 스님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 시대 수행자 스물한 분의 스승 이야기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흠모
금생은 안 태어났다 생각하고 공부하다 죽어라, 세상의 인재가 되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몸 바치라는 스승들…
“머리만 깎았다고 중 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 중은 평생 정진하다가 논두렁 베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아이가. 중노릇이 쉬운 기는 아니다.”
–성철 스님께서 갓 출가한 원택 스님에게 해 주신 말씀
■ 유철주 지음 | 변형 신국판 372쪽 | 15,000원

“어른이 없는 시대에 바치는 진정한 어른 이야기”
우리 시대 스물 한 명의 수행자가 인생길을 열어준 은사스님에 대한 회고와 마음 깊은 그리움을 전하는 책 〈흠모〉. 흠모하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제자는 어느새 중생의 흠모를 받는 또 다른 스승이 된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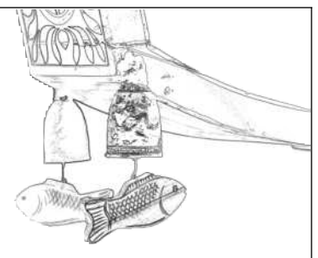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리석게 살지 말라.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지 말라.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
그리고 물질에만
너무 탐닉하지도 말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냉, 난방에어컨, 세탁기, 냄새차단, 의자, 주방후드 청소 수도, 난방배관교체 공사없이 녹물해결

하늘 엔지니어링
www.skyno1.co.kr
T.1566-8616
010-4126-4242
무점포, 소자본창업자 모집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퇴마,천병,신병,
우울증,틱장애,
가정우환, 병명없이
치유못한 환자 치유
(극락암)
010-5152-12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31)585-4626

60대 신심깊은 독신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아름다운 인연

소승은 70세 된 시각장애자
심안으로 달마상과
황금용주도를 남은여생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무소유, 머무를 곳을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10-9003-7783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비구입니다 화주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011-850-0176

불심이 돈독하신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진해, 도선사 부산포교원)
051)761-1447

각 전각 예불 및 제의식 능통한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경북 문경)
010-8819-8988

천도재,49재 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행자스님 모십니다

(대전, 60세 이상도 가능)
010-4220-0566

제주도 사찰

청정도량 적멸보궁에서
몸과 마음을 가꾸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스님 한분, 사무장, 상주인원
두사람, 보시금 전화상담
주지스님 010-3696-8500

중풍, 예방 할 수 있음

(10년 경험)
010-5096-9870

불사 준비하는 60세 비구입니다

절,신축,수리,조립식 등
화재예방, 스프링쿨러
저렴하게
시설해 드립니다
010-4570-4899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0-3544-9777

기도의 달인 대주스님

-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 배우실 분은 한번만 오시면 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렵고 가난한 절을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불사를 헌신적으로 도와드립니다

010-4882-38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노보살 원함)
02)917-3363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아미타불 넉자 관음, 지장
각각 석자반, 금리흙탱화
가로 2m 22㎝ 세로 1m 34㎝
금리신중탱화 가로 1m 14㎝
세로 1m 34㎝ 관음소, 18 관음,
396관음인등 1개 불기,
촛대, 칠판, 방석20개, 연등, 80개
대형에어콘 1개, 엘프 1개
보시금 5백만원
010-6836-4500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부모, 자녀,부부,관계개선 치유명상
* 가족세우기(지도자과정, 특별세션, 개인세션)
2 하나로 깨어나기 명상
* 성장과 성공을 위한 깨달음

네이버카페 - 원네스 가족세우기(참조)
신청문의 : 혜산스님 010-4114-66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몸이 자주 부으시는 분, 치유해 드립니다

010-4411-663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010-7656-9393
033)682-8100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애기있어도 됨
(진주 근교)
010-4587-1011

최면 퇴마

-전생체험, 심리치료 7회완성
-입문반 3회완성 40만
-실전반 4회완성 60만
-수강료 특별할인,
최면의 대중화
(부산) 010-9342-9794

산중절을 좋아하는 공양주를 찾습니다 기도하며 수행할 비구니스님을 찾습니다 지장보궁 내원암 (답사 전화바람)

경북예천 054)653-1180
010-6353-1180

제주도 사찰에서 기도하면서 공양주 하실 분 모십니다

010-3639-8500
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봉정사
- 주 지 : 해주(이종봉)
- 주 소 : 충북 충주시 교현동 남산1길 47-6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일운사
- 법 명 : 일 운
- 주 소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681-2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금, 월, 화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마 감 : 매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두 가지 인연이 있어서 업을 지으니 자신 과 다른 사람의 두 경우이다. 만일 싸움을 걸어오는 이가 있을지라도 지혜로운 이는 맞서 싸우지 않는다."

- 대루탄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자급자족 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 :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법당 50평, 요사채, 산신각, 다실, 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전 문
연 산 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용인시토굴 양도
- 임시법당 15㎡, 요사채 79㎡
- 토지900㎡ 양지IC 부근
- 현재는 주택이나 사찰로 가능함
- 양도금액 : 3억 5천원 조정 가능함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10-3426-9393(사찰경매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주차 40대가능
- 가액: 4억 5천만원
- 8억원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현지 답사 조절가능)

010-9889-31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차량진입
- 양도가 : 7억 8천

- 위치 : 서울 한강 이남
- 부지 : 500평
- 법당 : 40평,목조기와
- 요사 : 60평, 2채
- 양도가 : 20억 8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7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3억7천만원

010-3645-136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산 와촌
- 대지 : 약 500평
- 2층 벽돌집 정남향
- 가액 : 2억8천만원

010-9778-7774

암 자 안 내

- 위치: 경기도 가평읍 북면 화악산 줄기 청정 수월 도량
- 명산지대이며 산세 수려하고 좌청룡 우백호 도량 자리
- 청정 자연물 큰 내가 24시간 흐름
- 평수 총 2,530평 하천부지 2천평 사용 가능
- 요사채 1개, 방 5개, 법당 1개, 정각 2개
- 가액: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 불사하실분 환영하고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바랍니다

010-5009-1772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010-5234-55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지역
- 법당 : 20평
- 요사채 2동 각 18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0-4516-8730

포교원안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437-0088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광명시 광명 5동
- 평수 4층건물에 3층 50평, 방2, 주방, 샤워실 시설 후불탱화 불상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영가단, 집기류 오시는길 광명사거리역 4번출구 10분거리 주변, 아파트 단지 및 새마을 시장
- 가액: 전세 6천 5백 또는 월세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0만원

010-3221-04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소재
- 부지 : 20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3동 80평, 기타: 석탑, 연못, 석등
- 가액 : 6억원
- 특징 : IC에서 5분거리이며 산세와 풍광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기도포교도량입니다

- 위치 : 포항시 북구소재(신도시)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2층, 청기와, 단청)
- 요사 : 40평(1층 종무소 주지실) 기타 : 석탑(15자, 1억원소요), 석등
- 가액 : 6억원
- 특징: 신도시 산아래 위치한 도량으로 신도구성이 잘 되어 있는 포교도량입니다

대구)010-5848-0455 / 서울)010-5728-0455
동진사찰공인중개사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복현동 1층)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800평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3억 2천만원

010-8034-830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부근
- 135평, 임법당, 건물3동, 삼존불
- 신중단, 지장단, 칠성단, 영가단
- 도로에서 200미터 심야전기 보일러, 화목난로
- 가액 : 5천5백만원

010-4146-65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010-2772-721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사찰 근교에 바다가 있음
- 개인사정상 급매
- 가액 : 3억 7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청 약 20분거리 시내버스 운행
- 대지334㎡, 국유지 50㎡
- 법당(약 20평), 친견실, 공양간
- 주차가능, 텃밭 약간
- 가액 : 1억 6천만

(주)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5346-41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절 터 안 내

- 부산 기장 최상의 위치입니다
- 해운대 기장 동부산관광단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 현재 2층 주택이 있습니다
- 토지면적 1064㎡(322평), 2층주택 148㎡(45평)
- 가액 : 6억 7천만원 융자 4억 5천만원 가능합니다

(주)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8676-227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사 찰 안 내

- 위치 : 용인 에버랜드 근처
- 총평수 100평, 방3, 삼존불
- 삼성각, 법당 소불, 탱화, 나한전
- 가액 : 2,000만원에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4732-4849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최고
- 3층 건물 2층 약40평
- 삼존불, 신중, 소불 연등설치
- 법당, 공양실, 방2개 실내 화장실 사용하기 아주 편리함 철학 및 포교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22만원 시설일체 2천300만원

010-4017-0993

시골집안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 건평 24평, 창고 8평, 건물만 양도
- 가액 : 1천 6백만원
- 사정상 급안내

※ 인수시 살림도구 모두 드림

010-8460-6377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신림동 3층 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1 주방1, 화장실1, 약 30평
-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77만원 시설비 2,700만원

011-309-3535
(답사후 절충가능)

전 원 주 택

- 땅을 알고 터를 잡으시고 좋은환경 좋은이웃 찾아오세요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
- 대지 167평, 건평 30평 목조, 기와, 황토방, 정자
- 가액: 2억 8천 5백만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 건평 60평, 법당 18평
- 건강상 부득이 안내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 3평반 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사찰(터)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태곡리 부근
- 정남향, 총 8,960평, 대지 124평, 전1,323평 임야 7,513평
- 사찰 총 본산지 흘륭합니다
- 가액 : 4억 5천

010-5232-2879
043)743-41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15분거리, 큰길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7천 4백만원(절충가능)

054)43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5,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715번지
- 대지 1500평, 특수조립식 35평
- 방3, 화장실2, 거실 겸 선방, 심야보일러,농업용수 설치되있음
- 주차장완비, 호두나무 20그루
- 가액 : 2억2천만원

010-9609-191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5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삼면 면소재지 부근
- 100가옥 사는 동네 맨 뒷집(산자락)
- 면적 1,164평방미터에 법당 34평, 주차시설 및 조경 좋음 (법당까지 승용차 진입가능)
- 모든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010-6621-9400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10-3193-36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산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절충가능)

010-9395-6675

전원주택 및 토굴

- 위치: 인제 원통에서 15분거리
- 사용가능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 잘 가꾸어진 밭 900평, 2중 흙벽돌 심야보일러
- 잘가꾸어진 마당, 멀리큰강이 흐름
- 가액 : 2억 9천만원

010-3337-97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5층 건물 2층 82평, 지하철 대중교통 3~5분이내
- 삼존불, 지장보살, 삼신당, 호신불324(분양10%)
- 법당과 요사채 분리 (기공, 철학, 교육 등 다용도 이용가)
- 임대조건 : 보증금 2천 월 66만 3천 월 55만 / 4천 월 44만 선택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4590-6777
010-3869-6799

암자 전세(동해)

- 위치 : 강원 동해시내(바다 조망)
- 임야 3,349(대지 500평) 포함 건물 5동, 약 120평(1동 80평 신축건물)
- 특징 : 유명한 약수물 있음, 방13개 시내지만 산속같음, 차량 진입
- 창건: 약 70년된 암자, 소쿠리터
- 가액 : 보증금 6천만원(전세)

010-7325-3838

여기! 도심속 참좋은 도량 포교원 임대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인제대)부근
- 2층 법당 45평, 1층 공양간 및 다용도실 30평
- 창고 주차장 시설은 완벽하며 즉시법회 가능한 참 행복이 샘솟는 도량입니다. 비구스님 인연 요망
- 가액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5천만원(약간절충)
- 2층만 계약가능 1천만원 월 50만원

주지직 010-4288-37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종로5가역과 버스정류소
- 4층 건물중 3층, 14평
- 법당과 상담실, 탁자, 운각, 에어컨 1대, 냉장고, 사무용 쇼파 등 지방사찰에서 종무소나 상담실 적합 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77만원 시설비 200만원
- 확장 이전하여 현재 비어있음(언제든 이사가능)

02)7620-108번
02)4430-108번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 2동 472번지 금명사
- 법당, 산신각, 방 2개, 욕실, 주방
- 가액 : 월세 1년에 200만원 (가격조절 전세도가능)

011-9370-7513

포교원 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동면(상동IC에서 5분거리)
- 사찰창건 25년 종교용지외 930평, 임야 2,870평, 계 약 3,800평
- 대웅전 : 목조22평(단청완벽)
- 요사채 2동, 종각, 산신각, 용왕각, 등
- 약 100평 노인요양복지, 연수원, 선원 등 기타 개발 최적지
- 가액 : 12억

010-3847-4705

마음 길들이기

달라이 라마 (티베트 승려)

〈3〉 마음을 집중하기

"분석하고 집중하라… 본래 모습 볼 수 있다"

집중과 통찰지의 힘을 이용하기

우리는 모든 생각의 영역에서 분석을 해야 하며,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렸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분석하고 집중하는 두 가지 능력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거나, 인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거나, 윤회라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기르거나, 사랑과 자비심을 기르거나, 사람이나 사물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등의 모든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분석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 분석과 집중을 통해 나의 견해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신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음은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다. 산만하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뒤따른다. 명료하고 안정된 집중이 없으면 통찰지가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갖고 선정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모아 단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마치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흐르듯 이 마음의 힘도 사방으로 분산된다. 마음이 집중돼 있지 않으면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자마자 그것에 주의를 팔게 된다. 불안정하게 이 생각 저 생각 쫓아다니면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곧 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면서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간다.

우리는 보통 때는 산만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내용을 들을 때는 인식능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자기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집중을 함으로써 사랑이건, 자비이건, 이타적인 의도이건, 자신과 모든 현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건, 그 모든 일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불교에는 강력한 집중 상태에 이르기 위한 많은 수행법이 있다. 이처럼 강력한 집중 상태를 '삼매' 혹은 '선정'이라고 하는데, 삼매에 이르면 모든 산란함이 가라앉고 마음이 스스로 선택한 대상에 명료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또 기쁘고 유연하게 머물 수 있다. 이러한 정신 상태에서는 집중을 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

게으름 극복하기

우리는 게으름으로 인해 명상 수행을 다음에 하겠다고 미룬다. 게으름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바느질을 하거나 운전을 하는 등 도덕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인해 명상에서 멀어지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한다. 이런 형태의 게으름이 특히 해로운 이유는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 문제가 되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대상을 생각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 같은 유익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산만해지는 것도 게으름의 또 다른 유형이다. 자신이 명상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게으름이다. '나 같은 사람이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지닌 엄청난 잠재력과 점진적인 훈련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형태의 게으름으로 인해 우리는 명상을 등한시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의 유연함[경안]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생각하면 게으름을 떨쳐 버리고 명상을 하고자 하는 열의를 키울 수 있다. 일단 몸과 마음의 유연함으로 인해 큰 희열을 얻는 단계에 이르면 원하는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명상에 머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완전히 능숙해지고, 선한 행동을 향해 마음을 기울일 수 있다. 그리하면 몸과 마음의 모든 장애는 사라질 것이다.

수행의 조건

초보자는 명상을 할 때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정신적 역량이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려면 우선 바쁜 활동을 줄이고 명상하기에 적합한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좋다. 내면의 역량이 강화되면 점점 외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삼매를 계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탐욕이나 성냄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피해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를 찾는 게 좋다. 또한 활동을 줄이고 번잡함을 피하고 바쁜 일에서 떠나야 한다. 먹는 것, 입는 것 등에 대한 욕구도 절제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인데, 이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평화, 그리고 양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준비 과정은 거친 번뇌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처음 승려가 됐을 때 외적인 활동을 줄이고 정신적 계발에 집중했다. 절제를 통해 내가 하는 행동을 알아차리려 했고, 서원에 어긋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항상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다. 이는 본격적으로 명상을 하지 않을 때도 마음 속에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세

명상을 할 때는 자세가 중요하다. 몸을 곧게 하면 몸 안의 에너지 통로가 곧게 펴지고 에너지가 그 통로를 통해 원활히 흐르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몸의 에너지 흐름이 균형을 이루면 마음의 균형이 잡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명상은 누워서도 할 수 있지만 마음과 같은 가부좌 자세가 가장 좋다.

첫째,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엉덩이 아래에 방석을 하나 더 놓는다. 둘째, 삼매는 외적인 대상인 내적인 대상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계발된다. 그러므로 두 눈을 뜨지도 감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로 뜨고, 시선은 코끝을 향해 아래로 향하되 힘을 주지는 않는다. 이것이 불편하다면 앞쪽의 바닥을 향해도 좋다. 눈을 살짝 뜬 상태로 둔다.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의식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중에 눈이 저절로 감기는 것은 괜찮다.

셋째, 활처럼, 혹은 동전을 쌓아 올린 것처럼 등을 곧게 편다. 뒤로 휘거나 앞으로 굽히지 않는다.

넷째, 양어깨를 수평이 되게 하고 양손을 배꼽으로부터 손가락 네 개의 너비만큼 아래쪽에 둔다.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밑에 두고 오른손을 역시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그 위에 둔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이 서로 맞닿아 삼각형을 이루게 한다.

다섯째, 머리는 수평으로 곧게 해 코와 배꼽이 일직선상에 있게 한다. 목은 공작처럼 약간 굽힌다.

여섯째, 혀끝은 앞니 근처 입천장에 닿게 한다. 이는 오랫동안 명상을 할 때 침을 흘리지 않게 해준다. 또한 숨을 너무 세게 쉬는 것도 막아 주어 입과 목이 마르지 않게 해준다.

호흡 수행

우선 몸에서 해로운 에너지의 흐름을 없애는 것이 좋다. 쓰레기를 치우는 마음으로 들숨과 날숨을 아홉 번씩 반복하면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갖고 있었을 수도 있는 탐욕이나 성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왼쪽 콧구멍을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왼쪽 콧구멍을 열고 왼손 중지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은 다음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쉰다. 이것을 세 번 반복한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콧구멍을 왼손 중지로 막은 채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오른쪽 콧구멍을 열고 왼쪽 콧구멍을 왼손 엄지 손가락을 막은 다음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쉰다. 이를 세 번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왼손을 무릎 위에 놓고 양쪽 콧구멍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양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쉰다. 이를 세 번 반복함으로써 총 아홉 번의 숨을 쉰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의식을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고 들숨과 날숨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1에서 10까지 그리고 다시 10에서 1까지 센다. 호흡에 집중을 하면 마음이 가볍고 넓어지면서 일시적으로 탐욕이나 성냄의 영향력하에 있었을 때는 이타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쉽다. 호흡 수행은 더러운 천을 염색하기 위해 미리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과 같다. 깨끗이 세탁을 한 천은 염료를 쉽게 빨아들일 것이다.

호흡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새삼스럽게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호흡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면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다음단계에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쉬워진다.

대상

이제는 삼매를 얻기 위한 수행을 하면서 어떤 대상에 집중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이전의 해로운 마음이 아직도 마음속 깊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공의 이미지를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심오한 주제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다. 탐욕이든 성냄이든, 혼돈이든, 자만이든, 혹은 지나치게 많은 생각이든, 그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해가 되는 마음을 약화시켜 줄 집중의 대상이 필요하다.

자신의 기질에 맞는 집중의 대상을 '행동을 정화시키기 위한 대상' 이라고 부른다.

탐욕이 강한 사람은 조금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물건을 보면 즉각적으로 탐심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면 좋다. 이를 부정관 수행이라고 하며, 우리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갗, 살, 피, 뼈, 골수, 오줌, 똥 등 3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다.

우리 몸은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 각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결코 아름답다고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눈알만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면 더럽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게 머리카락부터 손톱과 발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각 부분에 대해 명상을 해보자.

예전에 태국의 한 사원에서 하루하루 변해 가는 시신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찍은 사진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 시신이 부패되는 단계를 보여 주는 사진들은 우리 몸에 대해 명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다겁생에 걸친 업으로 인해 쉽사리 남을 미워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은 흥분도 잘하고 화도 잘 낸다. 그런 사람은 자애 명상을 하면 좋다. 이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또 행복해질 원인을 갖기를 기원함으로써 자애를 키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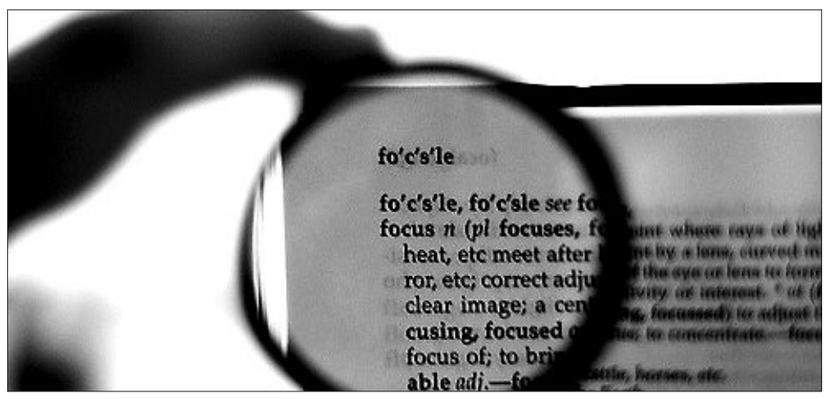
해태와 혼침이 강한 사람은 모든 현상이 원인 없이 발생한다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작용한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은 연기에 대해, 즉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존한다는 점에 대해 명상을 하면 좋다. 또한 십이연기, 즉 무명에서 시작해 늙음과 죽음으로 끝이 나는 윤회의 과정에 대해 명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것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든 잘못된 생각이나 무지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지혜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자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결합체 안에 있는 현상의 범주에 대해 명상하면 좋다. 이러한 요소들에 주목하면 내가 그것들과 별개인 그 무엇이라는 생각이 줄어든다. 또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줄어든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톱, 보텀으로 분류되는 여섯 가지 타입의 쿄크와 전자기력, 중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으로 분류되는 네 가지의 힘 같은 그들만의 과학적 현상의 범주를 갖고 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부심이 갑자기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생각이 많아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들숨과 날숨에 대해 명상하면 좋다. 마음을 호흡에 고정시켜 놓으면 여기저기로 끝없이 떠돌던 생각의 흐름이 즉시 줄어든다. 특기할 만한 기질이 없는 경우 여러 대상 중 어떤 대상을 선택해도 좋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달라이 라마의 〈마음 길들이기〉(이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안내(신축)
- 위치 : 경남 합천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방2, 화장실2, 컨 1동)
- 가액 : 융자 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주차장 완배 실내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사찰안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 IC 부근
- 부지 527평,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조)
- 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요사채 40평 (방3, 거실1, 실내 다용도실2)
- 기타 : 10평(차고, 창고, 야회화장실, CCTV)
- 가액 : 2억 3천만원
- 스님 건강상 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054)338-484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계성마을
- 평수: 730평, 법당 : 30평
- 삼존불, 산신각(신중탱화, 나한탱화), 칠성탱화, 연못, 정각, 두줄기 흐르는 냇가가 있음
- 주지실:방2칸, 공양간2칸,방3칸 화장실2칸
- 가액: 3억2천만원(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55)931-7971
010-4844-7082

사찰 터 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각암면 화리 산43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 임야 8,250평 • 가액 : 7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절 터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 영동IC 5분거리
- 평수 900평 (전기, 수도 인접)

010-9405-818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경동아파트 정문앞)
- 평수 : 3층 100평(승강기 이용)
- 삼존불, 소불300불,인등,산신
- 법당1칸, 방4칸, 현대식 화장실2칸, 에어콘 4대 시설, 비품 완벽, 즉시법회가능
- 도심속 포교로 좋음
- 보증금 4,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3,500만원(절충 가능)

010-4760-0413

사찰 임대 및 양도
- 위치 :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로 천태산 칠불사
- 평수: 대지 230평
- 법당 : 30평, 현대식 요사채 및 방 5칸, 공양간 15평
- 임대전세: 1,0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절충가능

스님직통 : 010-2055-3366

사찰안내
- 위치: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시설비 포함,절충가능)

011-895-2258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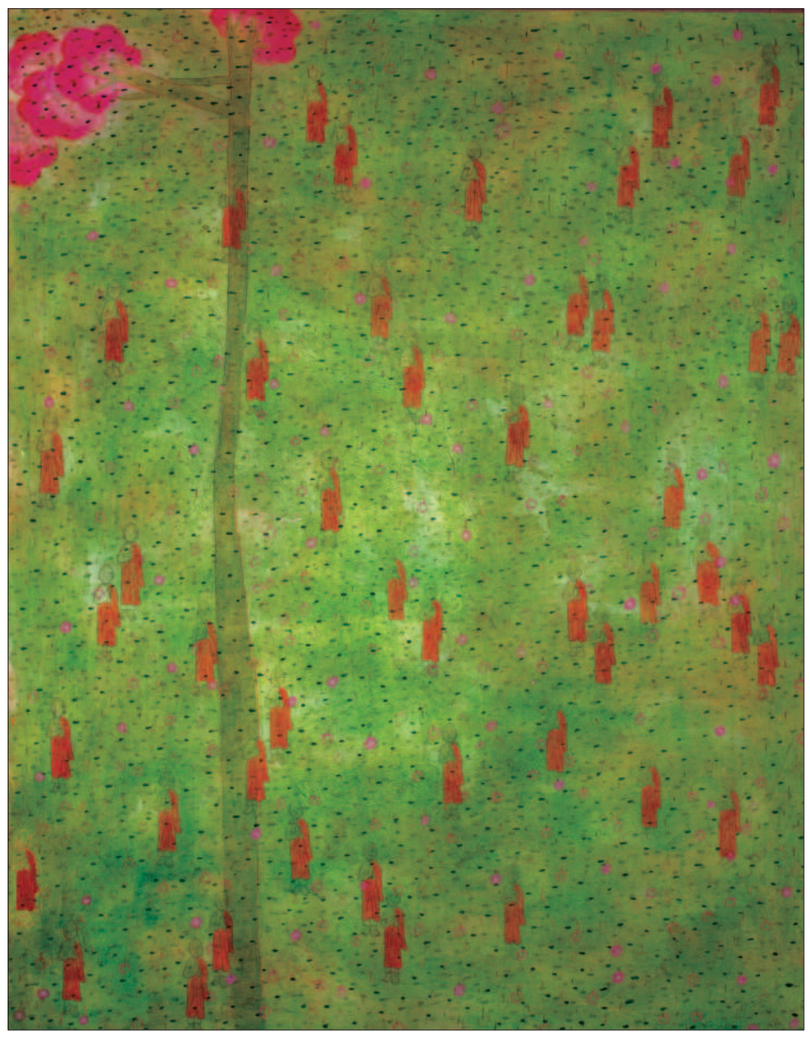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갤러리 색즉시공



지장보살

마흔 아홉분의 지장보살님이 오십니다
한쪽 어깨를 드러내시고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맞이하려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거룩하십니다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미타 부처님께
편안히 인도 하십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나의 어머님도
잘 모셔다 드렸을 거라 확신합니다.
합장 합니다.

지장보살님!
당신은 정말
존귀한 보살님 이십니다.

그림 · 글=희상 스님

종교와 권력이 만들어 낸 위험한 편견들

Buddha in Comic & Ani

⑩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1권 표지



<십자군 이야기>의 한 장면. 약간은 거친 작법이지만 내용은 매우 충실하고 풍부하다. 십자군이라는 폭력의 연쇄가 어떻게 현대의 제노사이드(의도적 대학살)와 이어지는지를 작가는 책을 통해 고발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6일, 조계사 인근에 한 개신교 단체가 집회를 열고 선교 행위를 했다. 당시에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 조계사로 향하는 불자와 시민들이 많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만류하는 불자들에게는 "합법적인 집회다. 왜 연등이 거리로 나오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혀를 찬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06년 6월에는 부산기독교청년회연합이 벡스코에서 철야 기도회 'Again 1907 in Busan'를 열고 "사찰이 무너져라"고 기도했다. 당시 기도회에는 지역 개신교 청년 1만 4천명이 참석했고, 이명박 前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낼 정도로 유명한 행사였다. 전도유망한 20대 청년들이 밤새 모여 한 기도가 다른 종교의 교당이 무너지라는 것이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쯤되면 이는 기도가 아니라 저주다.

유사 이래로 종교로 인한 갈등은 끊임없었다. 특히 유일신을 믿는 서구를 중심으로는 문명의 충돌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큰 전쟁이 있었다. 바로 '십자군 전쟁' 이다.

일반적으로 서양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불의와 싸우는 고귀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철저한 신앙심과 군주에 대한 충성으로 무장된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이교도들과의 성전을 치룬 그들의 모습은 마치 판타지 소설의 성기사와 같은 이미지다.

조지 부시 前 미국대통령도 실익 없는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면서도 "우리의 역사적 책임은 테러를 응징하고 악의 세계를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이 벌일 21세기 첫 전쟁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종종 허리우드 영화에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기사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십자군 이야기가 과연 종교적 신념과 이스라엘에 대한 성지 탈환에 그 목적이 있던 것일까. 역사 만담꾼을 자처하는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십자군은 종교가 가진 오만과 편견이 조장 · 발현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권력의 정치적 꼼수가 함께 가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래 6권을 기획한 〈십자군 이야기〉는 현재 5권까지 발간됐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기존 지

풍부한 텍스트로 당시 역사 조명
성지 탈환 위한 십자군 전쟁은
오만과 편견이 빚어낸 촌극 불과
南亞불교 근본주의 위험… 해결필요

니고 있는 편견들을 하나하나 해체한다는 것이다. 풍부한 텍스트에서 나오는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 구성과 책에 달아 놓은 주석들은 작가가 얼마나 폭 넓은 자료 조사를 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작가는 단순히 십자군 전쟁을 과거의 역사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로마-중세의 폭력의 역사를 고찰하고 이 같은 폭력의 연쇄가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고발한다. 십자군 전쟁을 다룬 책이지만 불자들에게 강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라는 명목의 십자군이 어떻게 대중에게 무지를 전하고 선동해 이를 전쟁으로 이끌어 냈으며, 이 무지와 편견이 어떻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작가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라는 이슬람에 대한 개신교적 편견에 대해 작가는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왜냐면 초기 이슬람은 철저하게 실리로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로마제국이 붕괴되면서 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한 이슬람이 원주민인 유럽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개종이 아닌 세금이었다. 자치권은 물론 종교의 자유까지도 보장됐다.

세금도 당시 자신들의 영주들에게 냈던 것보다 적어서 피지배 계층은 이슬람의 지배를 반기기도 했다. 그나마도 개종을 하게 되면 세금이 면제됐다. 그래서 개종 사례가 이어졌고, 이슬람의 개종을 막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뚜렷한 주인이 없던 유럽에서 정복자들과 맞선 것은 기사들이었고, 그들은 치안 유지(?)를 대가로 농민들을 수탈한다. 수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교회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신의 평화 운동' 을 펼친다. 하지만 곧 기사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교회는 반발을 외부 세력과의 전쟁으로 희석시키려 한다. 이것이 십자군 전쟁의 시작점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역사학자 조르주 뒤비는 " '신의 평화' 의 조항들은 봉건 사회 속에 내포된 공격력을 그리스도교 세계 외부로 우회시켰다"면서 "신의 적들인 이교도에 대항해 무기를 드는 것은 허용할 만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일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교회로 대표되는 당시 정신적 지도자들은 기독교적 증오감을 극대화 시키는 일련의 설교를 해 무지와 편견을 조장했다. 이 같은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는 시대를 관통해 현대의 제노사이드(genocide,인종, 이념 등의 대립을 이유로 특정집단의 구성원을 대량학살하여 절멸시키려는 행위)로까지 내려오고 있다.

사실 불교도 이 같은 폭력의 연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적어도 동남아시아 불교 상황을 보면 그렇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에만 300여 명의 이슬람교도가 불교도와의 갈등으로 사망했다. 이들 이슬람교도들은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의 후손으로 그들이 미얀마 땅을 밟은 이래 지금까지 불교도와의 갈등으로 300만여 명이 사망했다.

이 중심에는 '불교 근본주의자' 인 아신 위라투 스님이 있다. 그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급진적 스님으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주민들 자체를 '이슬람교도의 침략' 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교든 기독교든 성현들의 가르침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갈등과 반목으로 몰고 간 것은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된다. 갈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이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수행, 공부가 필요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 권으로 담아낸 성전!

장종천 편역 | 신국판 양장 | 926쪽 | 33,000원

붓다

붓다의 본생과 탄생, 성장과 출가, 수행과 전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붓다의 감동적인 생애가 펼쳐진다.

방대한 아함의 불음佛音을 한 권으로 쉽게 풀어 엮은 책으로, 붓다의 일상적인 삶과 수행생활, 45년 간 펼친 방대한 가르침의 에센스가 오롯이 담겨 있다.

목숨을 건 수행과 통찰,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상한 가르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쉬임없는 전법활동……



부처님의 덕성과 자비심, 지혜와 공덕을
찬탄한 150게송!

부처님, 나의 부처님



– 일백오십찬불송 –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환희심과 믿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처님 찬가!

마트리체타의 「일백오십찬불송」은 종파를 초월하여 인도의 모든 수행승들이 계를 암송한 후 바로 배우는 게송으로,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은 불교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한문, 영어본, 우리말을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게 엮었다.

마트리체타 지음 · 의정 한역 · S. 담미카 영역 · 허만항 한글 번역
신국판 | 252쪽 |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아무리 사단이 많아도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만약에 이 세계가 빌딩이라면, 우리가 그 빌딩 안에 있는데 빌딩에서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옴치고 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왜 말을 못하십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들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만약에 어느 빌딩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불이 나서 나갈 구멍만 찾는 상황이라면, 남을 건지기는 커녕 나부터 건져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신도1(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신도2(남):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신도3(남): 몸은 죽고 마음은 날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큰스님: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얘기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딩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런 것도 허다하게 보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살겠다는 생각도 생길 여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 하는 거요. 빠져나갈 구멍만 찾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살아야겠다 하는 건 이차적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빠져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중세계가 불타는 지옥과 같느니라. 상세계와 중세계, 하세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이 자리에 있느니라. 과거가 흘러갔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몇 바퀴를 돌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산은 그대로 있는데…. 인생은 몇 바퀴를 돌아도 어찌해서 저 산은 그대로 있는가?' 하는 거요. 여러분이 좀 더 계산을 잘해 보세요. 자기 양심으로써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다면 '내 팔자' 소리도 안 나올 거고 '내 운명' 소리도 안 나올 겁니다. 현실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가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럼 또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닥 줄을 잡고 얼음판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 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모르는 아이들은 얼음이 녹는지 깨지는지 빠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걷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사시다가 화를 내면 얼음판을 걸어오면서 모닥불을 놓는 거와 같습니다. 얼음이 얼른 녹으라고. 그래야 빠져 죽기 쉬우니까. 모닥불을 놓는 거와 같고, 그냥 극치에 이르러 마음이 팔팔 뛰면 얼음이 빨리 꺼지라고 막 뛰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하세요. 나는 항상, 있는 얘기 하지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앞에 도달한 얘기를 하죠. 앞에 도달한 얘기도 미래면서 바로 과거고, 그렇게 초월해서 돌아가는 현재의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화가 나더라도 그 자리에다 놔라.' 이러죠? 그러면 모닥불을 놓지 않고도 그 길은 걸어갈 수 있죠. 펄펄 뛰지 않아도 그 길은 걸어갈 수 있죠. 가는 데까지 가요. 그러나 모닥불을 놓고 뛰면 얼음은 금이 가고 빠지게 되고, 나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빠뜨리게 되죠.

"스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양반들도 계실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게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50%는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50%는 보이는 데서 돌아갑니다. 밤과 낮이 있듯이, 밤에는 자면서 돌아가고 낮에는 깨어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밤에 도는 거든 낮에 도는 거든,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있는 그 가운데에 놔라 이겁니다.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그 가운데 놓는다면, 내가 망한 일도 없고 내가 흥하게 한 일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중심을 잡고 그래도 사람답게 걸었노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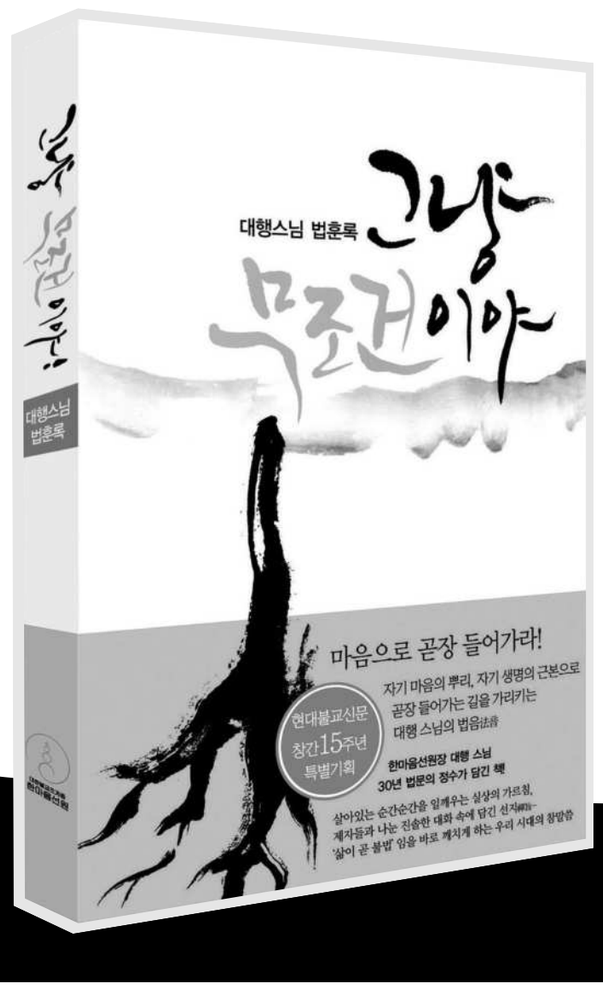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오전에 법사 스님께서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대승(大乘)이다 소승(小乘)이다 하기 이전에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진화가 돼서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수억겁을 돌아 왔다고요. 그래서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항상 여러분한테 말했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봐도 내 아픔같이, 내 괴로움같이, 내 외로움같이 생각한다면 항상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되고 항상 부드러운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노인들을 따로 본다면 항상 말도 거칠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남도 그렇지만 현재 내 앞에 당면해 있는 내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져서 잘못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습니다." 해 놓고 그대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속 안 썩여 드리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내 마음 같고 내 괴로움 같고, 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같이 나도 그렇게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부모가 자식 속을 썩일 리가 없고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일 리가 없어요. '효도해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천차만별의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내 생명 같고 내 몸 같고, 내 아픔 같고 내 괴로움, 내 외로움 같으면 아주 그거는 효도라는 이름 아니더라도 그대로 정말 세세생생의 효도인 동시에 일체제불의 그 마음과도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까도 살얼음판 같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살얼음판을 걷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뜻을 모른다면, 철모른다면 그냥 막 뛸 겁니다, 얼음이 깨지거나 말거나. 깨지는 걸 모르거든요. 금이 가든 깨지든 빠지든, 아랑곳없이 뜁니다. 그리고 부아가 나면 아무거나 막 집어서 던지고, 또 때로는 술 먹고 부수기도 합니다. 그런다면 아주 집에다 불을 놓는 거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얼음판이 빨리 녹고 빨리 깨지고 빨리 빠지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족이 다 빠지고, 자기도 빠지게 되니까 그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살려 달라고만 하는 격이다 이 소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다 차원에 따라서 살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생명의 근본을 불들고 부지런히 거기다 놓고 가세요

☞ 29면에서 계속

고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사람의 차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바로 그 차원에 따라서 모습과 자기 소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게꾼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부모의 탓을 하거나 형제의 탓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애당초에 소임을 가지고 나올 때에 넝마로 차원이 돼 있으니까 넝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로부터 자기가 금으로 차원을 받아 가지고 나왔다면 금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으로 사는 사람만하지 말고, 넝마로 사는 사람 너무 자기를 하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타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금과 넝마를 다 바꿀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도 다 놓고 묵묵히 자기한테 주어진 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걸 거기다 놓는 데서 그것이 무한정으로 없어집니다. 차원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오신통이라는 것은 시쳇말로 한다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스스로 짊어진, 누적돼서 입력된 거는 다 무너지고 우리가 새로이 생각해서 넣는 그 입력이 거기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대로 자꾸 나오고, 또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면서 또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찰나찰나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 아닙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화(化)해서 돌아가는 살림살입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을 뛰어넘으면 그대로 여여함이니라. 한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대로 중생의 모습이니라.' 했으니 바로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돌아가니까 저렇게 되고, 이런 거는 모두 여러분의 사량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느니, 이렇게 돌아가느니 저렇게 돌아가느니 하면서 사단이 많죠.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많아도 하등 상관이 없이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앞뒤 없이 묵묵하게 걸어가다가 문득 옆의 사람이 쓰러질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는 그것이 바로 중생들을 거두는 것이요, 또 저 먼 산을 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서 '아, 안 되겠구나. 비가 오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비가 와서 저절로 꺼지게끔 한다면 이 또한 보살행이죠. 누가 비를 내리게 해서 누가 꺼뜨렸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네들은 좋아할 거다 이겁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들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리의 법칙을 우리들이 몰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고등 동물로서 첨단을 넘어서야 될 사람들이, 앉아서 세상을 다 굴리고 세계를 다 굴리고 우주를 다 굴릴 수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비천하게 자기 한 발짝 떼어 놓으라는데도 못 떼어 놓습니까?

참, 여러분이 오시는 걸 가만히 보면요, 다 맞습니다. 소승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없이 다 맞는데, 좀 높이 생각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맞지 않는 게 되죠. 만약에 저 윗사람들이 내 목을 잘라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편의 마음을 조절하질 못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 윗사람들의 마음과 둘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날 그냥 지지부진하게 살다가 별안간에 주인공 이름만 알아서 주인공에 맡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통신이 돼야 그냥, 즉 말하자면 줄을 그냥 탁 대는 대로 전력이 흘러서 탁 붙어서, 불이 번쩍 들어오게 돼 있죠. 평소에 전화 코드를 끼워 놓지도 않고 전화를 하려니, 전화 통신이 돼야죠! 항상 자나깨나 전화 코드가 끼워져 있어야,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 금방이라도 닥쳐오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전화에다 대고선 통신을 해야 통신이 돼서 그걸 전부 다 알아듣고 소임을 제대로 하죠.

만날 만나기만 하면 이런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떡합니까? 나는요, 여러분과 같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면서도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타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얼음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명의 근본을 붙들고 생명을 아끼지 마시고, 부지런히 뛰시면서 부지런히 거기다 놓고 가시면, 그대로 바퀴의 굴림이 저절로 정신세계의 굴림과 물질세계의 굴림이 동시에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니 거짓이라곤 생각마세요. 사실이니까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질문자1(남): 그 동안 저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점 한 세 가지를 질문 올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먼저 합창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창단을 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 저로서 얻은 이득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저 혼자 담아 뒀다가는 이것도 욕심이 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얻은 이득은, 수행의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합창을 일주일에 한 번, 일곱 시에 시작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이 세속 생활의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생심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원력, 그 두 마음의 싸움에서 그 갈등을 이기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6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갈등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그냥 당연히 나오게 되고, 또 못 가게 될 이유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들이 맞아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잘되고 그냥 그대로 좋은, 그런 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득 좋은 생각이 나면 그냥 그대로 실천해 보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것이 첫 번째 이득이고, 두 번째 이득은 스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실지로 체험을 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숨 쉬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숨을 한 번 들이마시더라도 아랫배 깊숙이 집어넣어서 한 번 돌려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성대를 그냥 이용만 해서 그렇게 내는 도리를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순간순간 나투는 생각들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 내뱉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자리에, 본래 자리에 놓고 돌리는 그 도리, 그것이 바로 노래의 기본 도리와 똑같다는 것을 안 것이 첫째 체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항상 같은 음조가 아니고 높은 음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아, 다음에는 높은 음이다.' 미리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감으로 해서 몸이 굳어지고 성대가 굳어지니, 숨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오히려 제대로 안되는 그런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높은 음이더라도 낮은 음이나 그냥 일반음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경계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체험은, 우리들이 합창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리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옆의 사람의 소리와 내 소리가 어울려야 내 혼자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다고 마음 놓고 질렀다가는 불협화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의 중요성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스님의 법문에 대해 실행을 한 이득이고, 또 다른 이득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합창을 지휘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이나 또 거기다 반주 선생님까지 양쪽을 이렇게 앉혀 놓고 공부를 하려면 세속 생활에서는 실지로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 것을 그냥 저녁까지 얻어먹어 가면서 공짜로 하게 되니 이것이 또 큰 이득이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에 제일 가까운 데서 항상 이렇게 같이 한자리 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이득이니, 이 많은 이득을 저 혼자 말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는 벌받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허허.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나름대로 느끼고 겪은 이득이니까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이득은 스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잠시 박수를 치시고) 아주 일등으로 해 나가십니다.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말입니다. 문이 없는 데로 나고 들어야 진짜 공부다 했더니, 문 없는 데를 찾으려고 하니 그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랬는데 당신께서는 벽도 없으니까 봇장도 없고 문도 없고, 이렇게 문을 찾지 않는 그 도리를 슬기롭게 평가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질문 끝 무렵에서 합창을 할 때에 모두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그 소리가 제대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스님이 은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도무지 어지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시장바닥 같아서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으니까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알았느니라. 그러면 어서 가거라. 옷 벗어 놓고, 이 오장 육부 속의 생명들도 다 꺼내 놓고, 땅도 딛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나무도 베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혼자 가서 살 수 있으면 너 혼자 가서 살아라." 그러더랍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장 육부 속의 생명들도 다 꺼내 놔라, 땅도 딛지 마라, 나무도 베지 마라, 먹지도 마라, 입지도 마라, 죄 했으니 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지금 저 양반이 말하듯, '아, 이거는 바로, 같이 음파를 타고 돌아야 소리가 제대로 나겠구나.'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 소리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주 만물만생이 다같이 평등하게 돌아가면서 또 과거, 미래, 현재가 따로 없이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다가 죽어서 내일 또 태어나도 '나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이러지 '과거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옷만 자꾸자꾸 갈아입으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러다가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고만이지." 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회향을 잘해야 되느니라." 이러셨거든요. "미운 것도 잠시요, 예쁜 것도 잠시니, 예쁘다 탈 잡지 말고 밉다 탈 잡지 말라. 잠시 잠시 바람이 흘러가듯 하는 것이 인생살이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탈이 많거든요. 밉다고 탈을 잡고, 예쁘다고 좋아하고, 이런 문제들이 뭐 허다하거든요. 그러나 또 내가 막상 생각을 해도요, 허허허…, 이런 말을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간판이 좋아야 회사에서도 빨리 뽑는답디다. 하하하…. 그러니 어떻게 간판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 간판을 좋게 타고 나는 것도 바로 자기가 한 거 때문이죠. 그러니 그것도 누구 원망할 수도 없는 거죠. 또 질문할 것 있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앉아서 세상을 다 굴리고 세계를 다 굴리고
우주를 다 굴릴 수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비천하게
자기 한 발짝 떼어 놓으라는데도 못 떼어 놓습니까?



※위 법문은 1996년 6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전사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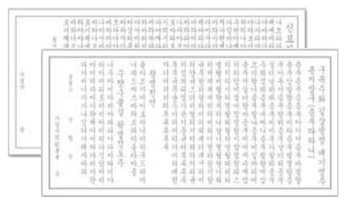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촘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바림등 8cm 3200원 (60개 이상)
등지름 24cm 〈진분홍, 보라, 주황, 빨강, 연분홍, 백색〉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영가옷 B형-남 정가 1,300원 영가옷 B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 D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D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불자 세상보기

공약 남발이 빚더미 지자체 만든다



윤세원
인천대교수

광역단체장을 비롯하여 모두 3952명을 선출하는 2014년 6 · 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5월 16일로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오후 10시 후보등록 신청접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8962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경쟁률이 2.3대 1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6년의 3.2대 1과 2010년의 2.5대 1보다는 낮은 경쟁률이다.

등록한 후보자들 중에는 전과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여야 공히 공천과정에서 투명하고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공천자를 심사하였음에도 중앙선관위가 홈 페이지에 게시한 후보자의 재산 · 전과 · 병역 · 납세기록을 분석한 결과 3505명(40.1%)이 전과자로 나타났다고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이는 2010년 6.2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전과비율 1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고, 전과의 내용도 음주 · 무면허운전은 다반사이고 강제추행, 사기, 특수절도 등 파렴치 ·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직 적격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사들이 출마를 한 것이다.

아마도 세월호 참사로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후보 검증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어 씁쓸하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변의 사후 수습이 채 되기도 전에 실시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선거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후보자는 물론이고, 각 후보들의 공약도 모르고 표를 찍어야 하는 일명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후보등록이 끝나고 거의 일주일이 지나도 65%의 유권자들이 공약은커녕 후보자들의 이름도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 준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운동은 가열되겠지만, 현 시점의 국민적 정서로 보아 가열된 선거 분위기가 밖으로 표출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역풍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둘째는 공약의 부실화와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거는 가열되기 마련이고, 후보들은 표심을 잡을 수만 있다면, 시류에 편승하고 실천 가능성에 관계없이 현란하고 솔깃한 공약을 남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꼭 지켜야 하는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정도의 인식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모든 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유권자를 우롱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는 공약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발해 왔다. 이번에는 아마도 지역개발과 안전에 대한 빈 소리가 요란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부정축재와 파렴치형의 전과기록은 후보의 옥석을 가리는 기본적인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실현 불가능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공약을 한 후보자의 당선은 곧 바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의 경력과 능력 그리고 제시한 공약을 통하여 당선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일이다. 하지만 관행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선거운동은 정책과 능력의 홍보가 아니라, 흑색선전과 상대후보의 비방, 미사려구로 포장된 허황한 공약, 금품과 향응 제공의 매표행위, 혈연 · 지연 · 학연을 통한 표의 구걸 등이다.

불자들에게 투표는 좋은 국토를 만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의 행위들은 공직을 원하지 않은 일반 불자들도 하지 말아야 할 악구 · 망언 · 기어 · 투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좋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면 그 지자체는 좀 더 정토에 가까워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예토에 가까워질 것이다.

악구 · 망언 · 기어 · 투도를 당선의 방법으로 행하는 후보는 좋은 후보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운동으로는 공직진출이 불가능한 선거 풍토를 불자들이 정토구현의 서원으로 앞장서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방안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1위인 동시에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도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불교계에서는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소외 어르신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절실



홍정근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

대한민국은 하루 12명의 노인이 스스로 자살하는 나라다. 한 마디로 '고독하고 가난하고 아파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안녕 하지 못한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어떨까? 현재, 각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서비스로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건강식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 서비스의 경우 각 복지관별 평균 30~40명의 대상자에게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어 전체 수요에 비해 실질적인 수혜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인해 공식적 사회복지기관의 노력 외에 더 많은 민간단체,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발현하여 자비복지를 지향하는 종교다. 모든 존재가 공동체이며 둘이 아닌 하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사회복지인 것이다. 노인 문제 역시 여기서부터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맑고 향기롭게는 1999년부터 각 지역모임 실정과 형편에 맞게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부문화 캠페인이다.

독거노인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자살률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노인자살예방 실천 서명을 받으며 관심과 모금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불교계가 힘을 합쳐 소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발원해본다. 이를 통해 소외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나 여생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苦의 고통 해결이 자살률 낮춰



이명희
서울노인복지센터
부관장

9년째 자살률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또한 세계 1위다. 사회복지에서는 노인이 '무위(無爲), 고독, 병고, 빈곤' 즉 4고(苦)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때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년기 자살은 오랫동안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주변 가족과 지인의 주의 깊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불교계에서는 신도관리체계나 커뮤니티를 잘 조직해 노년기 변화를 집단적으로 관찰하고 종교 ·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은 갑작스레 바뀌는 사회적 역할 변화로 기존 개인의 역할을 상실한다. 무위(無爲)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에서 노년기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사찰 자원봉사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신도를 위한 노년설계프로그램, 일자리사업, 임종준비교육 등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년기에 오는 고독감은 사찰에서 기도 · 명상을 통해, 그리고 사찰 내 모임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며 해소시킬 수 있다.

자살원인의 가장 큰 이유인 노년기 빈곤은 사찰 차원에서 신도와 자원봉사자 등 인력을 활용해 빈곤노인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노년기 건강도 중요하다. 신체적 건강의 노화는 심각한 노년기 우울증, 관계망 축소 등 2차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인드라망 관점에서 보면서 노인자살로 귀결되는 사회적 현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개인이 노년의 문제를 직접 공감할 수 있도록 타인의 어려움에 먼저 나서는 신행활동을 해야 한다.

社說

불교는 한국 사회를 치유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10여 명이 남았다, 이들의 귀환을 기원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은 5월 20일 조계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봉행했고, 24일에는 안산시사암연합회가 1달 동안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한 '참회 · 추모 · 화합'의 1만배 회향 법회가 열렸다.

종단 차원의 49재도 준비 중이다. 천태종은 6월 1일 서울 서초동 관문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49재 및 참회 법회를 봉행하며, 각 종단들도 49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범종단적인 49재와 추모 위령재를 6월 중순경 봉행할 예정이다.

불교계가 열거나 추진 중인 추모행사와 49재는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워낙 대형 참사이고 아직 실종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수 없었다. 이 같이 '울어줄 공간'을 마련하는 불교계의 추모 행사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추모 행사와 동시에 불교계는 '남겨진 슬픔'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49재 등 추모행사를 마친 이후 사업 방안 등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1회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벌써 개신교계가 2년 동안의 장기 돌봄 캠페인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불교계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템플스테이는 국민 정서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 발표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적 성취도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아성찰 등 정신건강 가치가 5.45(7점 만점)로 가장 높았으며, 템플스테이 발전의 중요 가치 역시 정신건강이 6.32점(7점 만점)으로 국민들은 템플스테이의 정신적 가치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주목하는 만큼 불교계와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은 산문을 활짝 열고 대중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감싸 안아 치유해야 한다.

해명없는 한국연구재단 종교차별 사과하라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전문위원 선임과정서 종교분야 중 불교를 배제 시킨 한국연구재단이 불교학계의 강한 반발에 불교학 전문위원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5월 20일 '(사)한국불교학회 공문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을 통해 종교분야 책임전문위원(CRB) 선임에 학문적 전문성, 형평성 및 공정성을 지닌 학자를 선임할 것이며, 학술연구분야분류표상에 있는 불교학 전문위원(RB)을 선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술연구분야분류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책연구과제 '융합시대 인문학 연구분야분류표 재설계를 통한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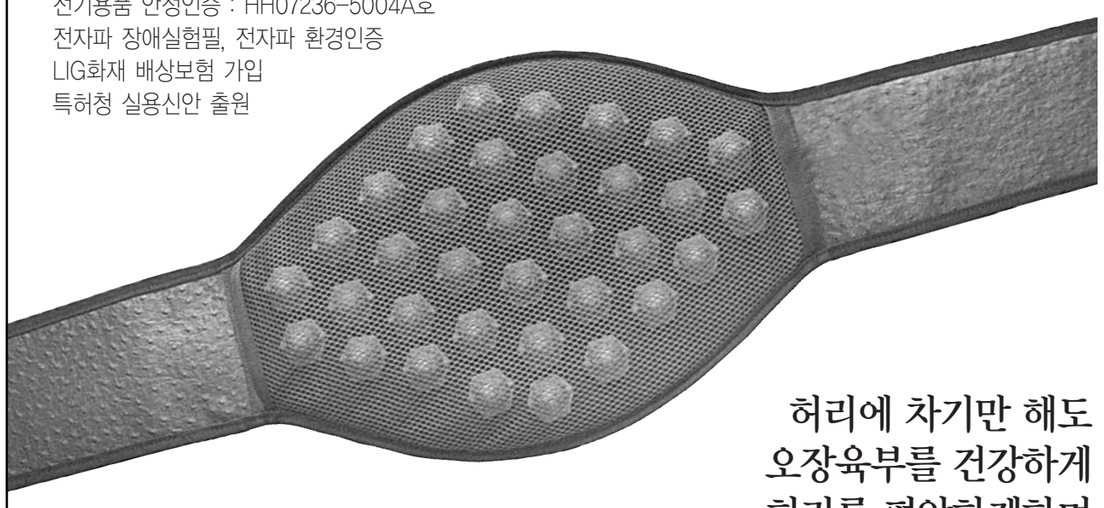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은 앞서 한국종교학회에 기독교 10명, 가톨릭 10명, 한국종교 10명의 후보로 구성된 인문학 분야 책임전문위원(CRB) 및 전문위원(RB)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여기서 가톨릭과 기독교는 종교와 철학분야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 불교는 철학 분야만 인정받은 것으로 종교편향적 행위란 불교계의 공분을 사왔다.

한국연구재단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불교학계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 해명과 사과가 없는 점은 아쉬워 했다.

차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측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CRB와 RB 후보 추천시 납득할 만한 선정 기준을 명확히 밝혀 학계와 종교계에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2014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 (大)


촛대 (中)


촛대 (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탑의 진화

⑪ 앙코르의 유적(1)

우주의 모형 석조 건축물로 조성

'앙코르' 라는 말은 범어로 도시를 뜻하는 '나가라(Nagara)에서 노코르(Nokor)-옹코르(Ongkor) - 앙코르(Angkor)로 음운 변화한 것이다. 이처럼 도시라는 의미의 앙코르는 약 천이백년전에 크메르인에 의하여 수백 개의 사원과 탑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긴 세월동안 역사에서 사라져 밀림 속에 방치되었다가 근세에 알려져 앙코르 왓, 프놈바게임, 앙코르 톰, 바이욘, 바푸온, 코끼리 테라스, 문둥왕 테라스 등 수십 개의 유적이 현재 복원되었거나 복원중에 있다.

앙코르의 유적은 8세기부터 14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으나, 건설 주체자의 신앙 형태에 따라 다양한 사상으로 표출되었다. 왕들의 개인적 신앙에 따라 브라만 사상에 입각한 사원, 왕궁, 무덤 등의 용도로 조성되었으며, 때로는 불교 신앙에 입각하여 사찰과 불탑의 용도로 조성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선대왕이 브라만교 사원으로 조성한 것을 후대왕은 불교사원으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또 다시 힌두교 사원으로 사용한 예도 있다.

세계7대불가사의 중의 하나로까지 표현되는 '앙코르 왓' 을 비롯한 위대하고 거룩한 앙코르 의 많은 유적을 바르게 이해하기위해서는 앙코르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간략한 앙코르의 역사를 살펴보자.

802년에 자야바르만 2세는 앙코르 왕국을 건설하고, 877년 인드라바르만 1세는 자신과 부모를 위한 사원과 브라만 신화의 상징적 치수의 의미를 가진 저수지 등 3대 건축업을 완성한다. 889년 야소바르만 1세는 인드라타타카 저수지의 인공섬에 롤레이를 건립하고, 1011년에는 철권통치로 절대 왕권 시기를 시작한 수리야바르만 1세에 의하여 앙코르 톰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033년에는 더욱 강력한 중앙통치를 실시한 수리야바르만 2세에 의하여 앙코르 와트 건립이 시작 되었다. 1181년에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자야바르만 7세가 즉위하여 마침내 앙코르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여 앙코르 톰을 구축하고, 바이욘 사원을 건립한다. 또한 그는 지극한 효성을 발휘하여, 어머니를 위한 따 프롬, 아버지를 위한 쁘레아칸 사원을 조성하지만 그 이후 앙코르는 퇴락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자야바르만 8세는 힌두교를 신봉하여 집권하면서 앙코르 톰 일대와 따 프롬 등의 모든 불상을 훼손하고 불교관련 부조를 파괴한다. 자야바르만 8세의 악업에 대한 과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1431년 앙코르 왕국은 아유타야 왕국에 의해 멸망하며, 수십만에 달하던 앙코르인들이 1년 만에 역사 속에서 모두 사라져 훼불에 대한 과보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한편 앙코르 왕국의 왕들 중에는 자야(승리), 인드라(전쟁신)등의 단어 뒤에 '바르만' 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데 이는 '보호를 받는 사람!' 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바르만들은 앙코르에서 자신의 신앙적 표현의 건축물을 경쟁하듯 조성하였다.

1) 앙코르 왓(Angkor Wat) 〈사진1〉

'도시의 절' 이라는 의미의 앙코르 왓은 수리바르만 2세에 의하여 37년 동안 약 2만 5천명이 동원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건설되어 '비슈누' 신에게 헌정되었다. 이 사원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해가 지는 서쪽에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고대 인도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불교에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즉 사후세계의 극락은 서쪽에 있다는 아미타 사상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앙코르 왓은 수리바르만 2세의 사후세계를 위한 영묘적 사원임을 짐작케 한다. 또한 중국의 불탑사상을 알아볼 때 자세히 거론되겠지만 '황제가 곧 부처님' 이라는 '황즉불' 사상이나 '왕즉불' 사상처럼 황제나 왕의 유골을 모신 영묘를 탑으로 표현한 예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바르만들은 사후에 힌두교의 여러 신과 동일시되는 관습에 따라 왕궁이나 무덤 등이 탑으로 표현되고 인식 될 수 있었다.

앙코르 왓의 전체적인 구조는 힌두교와 불교의 우주관을 모두 아우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고해의 바다를 상징하는 길이 3.6km의 직사각형 해자에 둘려 싸여 있는 중앙의 높은 탑은 우주 중심인 메루(Meru)산, 즉 수미산이며 주위에 있는 4개의 탑은 주변의 봉우리들을 상징한다. 외벽은 세상 끝에 둘러쳐진 산을 의미하고 있다.

1200년 전 크메르인이 조성
브라만, 불교 등 다양한 사상 반영
세계 7대불가사의 중의 하나

자야바르만 8세 불교배척 후
1431년 앙코르왕국 멸망하고
1년만에 수십만 앙코르인들 사라져

'앙코르 왓' 은 '도시의 절' 이란 뜻
37년 건설에 2만5천명 동원
서쪽 향하는 건 '서방정토' 와 상통

해자를 건너기 위해서는 나가(Naga)난간을 따라 250m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나가는 물에 사는 용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극락세계에 가려면 반드시 '반야용선' 이라는 용이 이끄는 배를 타야지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사찰에서 부처님을 모신 전각에는 황룡, 청룡 등 여러 용을 조성한 것이다. 앙코르 왓의 구조에서도 해자안의 중심건물이 극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를 조각하고 반야교가 있는 이유인 것이다.

이처럼 앙코르 와트는 석조 건축물로 만들어진 지상에 있는 우주의 모형이다. 따라서 앙코르와트가 지니는 신앙적 의미는 3층 중앙 탑들이 있는 곳은 천상계, 2층은 인간계, 그리고 1층은 축생계를 의미한다. 각 층은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1층 회랑에는 아름답고 정교하고 다양한 조각들이 부조되어 있다. 1층 회랑의 조각은 2m 높이에 길이는 약 600m에 달한다.

부조의 내용은 비슈누의 찬양과 수리야바르만 2세의 전쟁의 당위성을 표현함으로써 본인과 비슈누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방에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모두 여덟 가지의 주제를 표현하였다.

동쪽 출입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에 '우유의 바다 젓기' 와 '악마에 대한 비슈누의 승리' 주 출입구인 서쪽 중앙 문을 기준으로 '랑카의 전투 장면' 과 '쿠륵세트라의 전투장면' , 남쪽의 '천국과 지옥' , '역사적 행렬도' , 북쪽의 '신들과 악마의 전투' , '악마 왕 바나에 대한 크리슈나의 승리' , 가 그것이다.

지면의 한계로 동쪽의 '우유의 바다 젓기' 한 가지 예만 들어 알아보기로 한다. '우유의 바다 젓기' 는 비슈누 신에 대한 칭송의 일화이다. 비슈누 신은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신앙하는 신으로 라마와 크리쉬나,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믿는다.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타푸루나(Bhagavata-Purana)〉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옛날에 신들과 악마는 배다른 이복형제였다. 악마가 형이고 신들이 동생이었다. 그들에게도 알 수 없는 죽음의 세계는 두려움의 존재였다. 죽음을 두려워 한 신들은 메루산에 살고 있는 창조주 브라흐마를 찾아가 죽음을 극복할 도움을 청했다. 브라흐마 신은 "너희들은 비슈누 신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 하니 신들은 비슈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비슈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신들은 가서 우유의 바다를 휘저어 거기서 나온 불사의 감로수를 마시도록 하라! 그것을 마신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비슈누신이 말했던 우유의 바다를 휘젓기 위해서는 매우 큰 막대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우유의 바다가 너무 커서 그러한 막대기를 쉽게 구할 수 없었다. 비슈누는 그들에게 만다라 산을 옮겨다 뒤집어 바다를 휘저으라고 충고했다. …(중략)…

결국 독수리인 가루다에 의해 산은 무사히 우유의 바다로 옮겨졌다. 옮겨진 산을 가지고 우유의 바다를 젓기 위해서는 매우 긴 끈이 필요했다.〈사진2〉 그러자 비슈누신은 커다란 뱀인 바수키에게 그 산을 둘러싸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산을 둘러싼 뱀은 곧 바다에 빠져 버렸다. 그러자 비슈누 신은 자신이 직접 거북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 산을 등위에 올려놓고 신들과 신들의 이복형인 악마들로 하여금 바다를 휘젓도록 하였다. 천년이나 휘저은 끝에 우유의 바다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맨처음 흘러나온 것은 불사의 감로수가 아니라 바다의 불순물이 모여진 죽음의 독약이었다. 이 독약은 결국 파괴의 신인 시바가 스스로 마심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러나 시바도 그것을 마시면 죽기 때문에 그는 삼키지 않고 목에 그대로 저장해 놓았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시바의 목부분은 파랗게 물들어 있다. 계속 바다를 휘저은 신들과 악마들은 끈질기게 기다렸다.

마침내 아름다운 암소 수라비가 나타났다. 수라비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가 되었다. 다음에는 취기로 가득찬 술의 여신 비루니가 나타났다. 악마들은 그녀를 손에 넣으려 했으나 그녀는 신들을 더 좋아했다. 신들을 향한 제사의식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략)…

신들의 의사인 단완타리가 나타날 때 들고 있던 병에는 신과 악마가 수천년 동안 그렇게 갈망하던 불사의 감로수가 들어 있었다. 신과 악마들은 공평하게 나누자는 약속을 망각한 채 그들은 싸움을 벌였고 마침내 악마들이 불사의 감로수를 차지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들이 그것을 마신다면 온 세상에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비슈누신은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 모히니로 변화시켜 싸우고 있는 악마들에게 가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다.〈사진3〉

악마들은 아름다운 모히니의 모습에 넘어가 그 제안을 승락했다. 모히니는 신들과 악마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신들부터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악마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속아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악마들은 곧 그녀가 자신들에게도 불사의 감로수를 나누어 주리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그때 악마들 중의 하나인 라후가 신들 사이에 끼여 있었다. 그가 자기 차례가 되어 감로수를 마시려 할 때 태양의 신인 수랴와 달의 신인 소마가 재빨리 비슈누신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비슈누는 자신의 무기인 원반으로 그의 목을 베어 버렸다. 그러나 라후는 불사의 감로수를 삼키지는 않았으나 입으로 마셨기에 얼굴부분은 죽지 않았다. 그는 해와 달을 용서할 수 없었다. 라후는 해와 달을 삼켜 버리려고 계속 쫓아 다녔다. 해를 삼키자 너무 뜨거워서, 달을 삼키자 너무 차가워서 곧 뱉어버렸지만 라후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일식, 월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도인들은 말한다. 악마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신들 모두가 불사의 감로수를 마신 후였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들은 힘이 약해도 악마에게 이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은 창조된 존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어 다른 생명체들을 지배하면서 그들로부터 숭배와 공물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49m에 달하는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다음 호에는 앙코르의 불교유적에 있는 불탑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 1〉 '도시의 절' 이라는 의미의 앙코르 왓은 수리바르만 2세에 의하여 37년 동안 약 2만 5천명이 동원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건설되어 '비슈누' 신에게 헌정되었다.



〈사진 2〉 앙코르왓 부조, 신들이 우유바다를 젓기 위해 긴 끈으로 수미산을 끌고 있다.



〈사진 3〉 비슈누가 신과 악마를 지휘하고 있는 모습



글 · 우인보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적하수오 된 장' '적하수오 고추장'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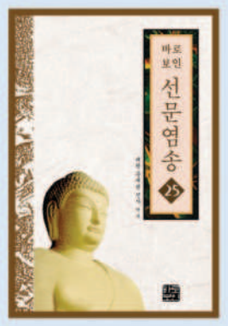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6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5권 출간!
운문, 장경, 경청선사, 부 상좌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